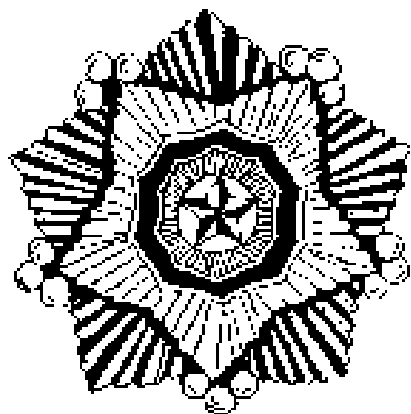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5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5호

(루계 제 691 호)

◇◇◇◇◇◇◇◇◇◇◇◇

## 차 례

◇◇◇◇◇◇◇◇◇◇◇◇

승리의 축포여 .....	3
장군님 전선길에 노래가 울리네 .....	3
위인의 기억력 .....	4
주체문학의 대강 .....	5
깊어가는 동강의 봄밤에 .....	5
《방한방탄이불》 .....	6
영원한 사회주의수호자 .....	8
옮겨진 백리향 .....	9
한줌의 흙 .....	9
철학의 샘줄기 시의 샘줄기 .....	10
울림폭포의 메아리 .....	11
울림폭포, 너의 그 울림속에 .....	12
울림폭포 .....	13
유모아 .....	13
보금자리 .....	14

내 고향 동구길 .....	23
길을 열어라 .....	23
선군이 낳은 전설.....	24
내가 아는 그의 모습.....	27
안녕하십니까.....	27
원군길 .....	28
위대한 선군년륜이여.....	29
경구, 격언.....	29
불 길.....	30
삶의 절정에서 부르는 노래 .....	39
나는 이 봄을 노래한다 .....	42
씨앗보다 먼저.....	42
대지여 나의 사랑이여.....	43
류다른 풍경화.....	44
유모아.....	51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 .....	52
걱정마세요 .....	52
《만풍년》 찬가 .....	53
위대한 령도자 <b>김정일</b> 동지는 재일조선문학예술의 개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해 나가시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다 .....	58
모란봉의 봄날에 .....	62
고향에 대한 생각.....	63
성격의 매력, 심리의 여운.....	65
행복한 인연 .....	67
통일애국투사의 신념에 대한 진실한 형상.....	68
연필화.....	72
미제놈!.....	80

# 승리의 축포여

김만영

축포가 오른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천만군민의 가슴을 뒤흔들며  
백두산이 봄우뢰 터친다

장엄하여라, 숭엄하여라  
이 행성을 뒤흔리는 정일봉의 축포여  
얼마나 높고 강렬한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혹시키는것이나  
얼마나 억세고 거세찬 혁명의 열풍으로  
이 땅을 뜨겁게 덥혀주는것이나

백두산의 기상으로 불의를 치고 붉은기를  
수호하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저 불에 어려있다  
폭풍을 맞받아 사회주의를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저 불에 어려있다

백두의 불이여 너는  
정의의 불  
붉은기의 불  
백전백승의 불

그래서 백두의 저 불을 안고가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더라  
오직 용기백배 앞으로만 나아가더라  
그래서 저 불을 안고 나아가는 나의 조국은  
력사상 류레없는 고난을 박차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것 아니더냐

세계여  
천지를 진동하는 저 축포를 보라  
우리는 이 불로  
결사옹위의 총대에 더욱더 만탄창하리라  
우리는 이 불로  
용광로의 쇠물도 끓이고  
우리 사는 이 땅에  
풍요한 오곡백과를 무르익히리라  
우리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제국주의 검은 구름을 산산이 불살라버리리라

축포가 오른다  
세상에 그 어떤 천지풍파가 들이닥친다 해도  
장군님 모시고 끝까지 혁명할  
군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터치며  
축포가 오른다  
정일봉의 하늘가에  
선군승리의 축포가 오른다

## <가사>

# 장군님 전선길에 노래가 울리네

김 석

눈덮인 철령넘어 병사들을 찾아오신  
장군님은 기쁨속에 오락회를 보시네  
병사들 노래소리 힘이 난다 하시던  
아버이 그 믿음 노래로 울리네  
아 장군님의 전선길에 노래가 울리네

중대의 피리합주 어깨춤이 절로 나고  
평양의 세쌍둥이 3 중창에 흥이 돋네  
장군님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는

아버이 그 사랑 노래로 울리네  
아 장군님 전선길에 노래가 울리네

서산에 저녁노을 기발처럼 날리는데  
장군님은 노래안고 전선길을 이으시네  
야전차 달려가는 조국땅 그 어디나  
선군의 노래는 끝없이 울리네  
아 장군님 전선길에 노래가 울리네

## 위인의 기억력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장군님의 열렬한 동지애와 한없는 인간애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는 불멸의 혁명사적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는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혁명동지로서 귀중히 여기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줍니다.》**

지난해 12월의 어느날에 있는 일이었다.

이날 소문도 없이 국립교향악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립교향악단은 연극단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조직된 예술단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름있는 연주가들중에 여기 출신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람석으로 가시다가 연혁소개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연혁소개관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0(1971)년에 외국공연을 떠나는 이곳 악단연주자들을 비행장에서 배려하시는 사진이 모셔져있었다.

감회깊은 눈길로 이윽도록 사진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진속의 한 첼로연주가의 이름을 부르시며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0년대에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시던 초기 교향악단 첼로연주자로 있으면서 연주를 흥취가 나게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적이 있는 평범한 연주가였다.

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지 많은 세월이 흘러 함께 일하던 예술인들의 기억속에서도 삭막해졌던 보통 연주가를 30여년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추억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일군들은 가슴뜨거워 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이 시작되였다.

무대우에서 울려나오는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교향곡의 선율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속에는 전사들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더욱 깊어만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연이 끝나자 주체59(1970)년 1월에 3판이 처음으로 조직될 때 있던 한 연주가가 지금도 연주생활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제2차 예

술인체육경기대회때 부정선수로 퇴장당할번 했던것을 자신께서 보증해주신 사실과 그때 그가 뿔을 차다가 앞이발이 부러졌었다는것까지 즐겁게 회고해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바이올린연주자에 대해서도 물으시였다.

그 연주가는 몇해전에 사망하였다고 일군들이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못내 애석해 하시면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전에 그가 바이올린연주를 잘했다고, 무용곡 《눈이 내린다》의 연주를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떠나간 전사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고 어느 동무는 장새납을 얼마나 잘 붙였던지 공연을 관람하던 외국인들이 감탄하여 자기 이마를 쳤다고 회상도 하시고 누구는 편곡을 잘했거나 누구는 작곡을 잘했다고 한사람한사람의 특징과 재능을 일일이 말씀해주시였다.

그것은 30여년세월이 흐른 오래전의 일이었다.

무릇 기억력은 과거에 인식하고 체험한것을 머리속에 새겨넣고 보존해두며 다시 재현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한 인간의 기억력에는 상실도 있고 한계도 있기 마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근 반세기에 달하는 기나긴 혁명령도과정에 장군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조국과 인민앞에 지울수 없는 생의 흔적을 남기고 그이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일군들은 또한 얼마이겠는가.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인연을 맺으신 평범한 연주가들의 이름과 재능을 사람마다 기억해주시니 참으로 장군님의 기억력은 깊이도 끝도 없는 무한대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는것이다.

위인의 기억력, 그것은 인간 최고의 고급한 능력이기때문에 앞서 혁명의 길에서 동지로 한번 인연을 맺은 전사의 운명도 미래도 그의 사후의 모든것까지도 다 품어안아주는 특이한 동지애의 발현이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루밤에 천리도 가시고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렬한 동지애를 지니신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참으로 수십년전에 정을 맺은 음악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재능도 조국과 인민앞에 크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기억력은 동지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가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부터 작품의 핵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작가의 창작과정이며 새로운 형상세계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오직 종자만이 창작과정과 예술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일시킬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유일한 기준으로 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종자는 오직 한 작품과만 결부되어있으며 해당 작품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작가는 생활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동에 현혹되지 말고 한걸음 더 들어가 그 파동을 일으킨 근본 요인까지 파헤쳐야 작품에 담을수 있는 종자를 면바로 골라잡을수 있다.》

《작가는 생활현상을 관찰하는데 머물지 말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현상으로부터 생활의 본질에 로 끝까지 파고드는 철학적 사색과 탐구능력을 가져야 한다.》

《문학에서 인간은 복잡한 갈래를 이루는 생활의 다양한 흐름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화폭의 중심위치에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김정일

## 깊어가는 동강의 봄밤에

리광선

흘러간 혁명의 력사가  
위대한 스승이 되어  
나를 맞아주는  
여기 조선혁명박물관  
감동어린 화폭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걸음을 못뻔다

깊어가는 밀림의 밤  
타오르는 모닥불을 마주하시고  
해방의 대강을 구상하시는  
아버이수령님

전체 조선인민의 힘을 총동원하여  
왜놈의 야만통치 때려부시고  
인민의 새 세상 세워갈  
원대한 사색으로  
한자 또 한자...

총대가 약해 수난받는 민족이기에  
총대로 나라를 찾고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새 정권을 눈앞에 그려보신다

빼앗긴 공장을 찾아  
로동자들에게 주고  
빼앗긴 땅을 찾아

발같이하는 농민들에게 주고...

또 봉건의 질곡속에 시들던 녀성들에겐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희망의 빛을 잃은 아이들에겐  
무료교육의 터전을!

배움의 창가에서 피어나는  
그 아이들의 밝은 웃음 그려보시며  
한자...  
존엄높은 민족의 래일을 생각하시며  
또 한자 ...

위대한 그 강령이  
현실로 펼쳐진 오늘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그날의 수령님모습 우러르니

오, 가슴뜨거워라  
그날의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인민의 수령만이 그려보실수 있는  
조국의 위대한 모습이였다는 생각에  
오늘의 선군조국은  
위대한 그 심장에서  
그날에 벌써 태어났다는 생각에...



## 《방한방탄이불》

한때 관동군사령부 소속 종군기자로 근무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몇해동안이나 따라다닌적이 있는 일본의 유명한 기자 다카끼 다케오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주에 사는 조선농민들에게 있어서 **김일성** 사령관은 완전히 신격화된분이시였다.》

다카끼 다케오가 위대한 장군님을 이처럼 높이 칭송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는 어쩔수 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위대하신 장군님의 위인적인 풍모가 바탕에 놓여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들이나 고대 동서방의 유명한 신화들에 나오는 의인화된 신적존재이상으로 신기한 힘과 지혜와 용맹을 겸비하신분으로, 천기를 타고나신분으로 인민들속에 높이 칭송되였다. 그리하여 《방한방탄이불》에 대한 전설도 생겨나서 길이길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때는 1930년대 중엽이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는 벌써 여러차례나 왜놈들의 《토벌》을 받았다.

마을은 불타고 집들은 재더미로 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불사신처럼 일떠섰다.

원수들이 열번 불태우면 백번 다시 일떠서고 백번 불태우면 천번, 만번 다시 일어나 기동을 세우고 지붕을 엮었다.

산과 들에 강설이 뒤덮이고 흑한이 엄습해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로지 한마음 왜놈도 지주도 없는 새 세상-혁명정권밑에서 제 땅을 가지고 농사지으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격근거지를 목숨바쳐 지켜내려는 한가지 열망에 불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머나먼 싸움길에 오르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거지로 돌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근거지마을을 몸소 돌아보시며 한집한집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다.

왜놈들의 《토벌》에 집이 불타는 바람에 이불까지 태워버린 집들이 적지 않았다.

《이 추운 겨울에 이불없이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불을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구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이불솜과 천을 구해오도록 하시는 한편 전투를 따로 조직하시여 왜놈들의 포목상을 치도록 하시였다.

천과 솜이 해결되자 녀성유격대원들이 며칠밤

을 새며 이불을 만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녀성대원들이 이불을 만들고있는 장소에까지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솜도 두툼하게 두고 시침도 총총히 해서 근거지인민들이 추위를 모르고 지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다가 이불에 끝동이 없는것을 보시고는 고운 천으로 꼭 끝동을 달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드디어 이불이 다 만들어졌다. 함박꽃무늬가 활짝 펼쳐진 이불천에 남색 끝동을 달고 햇솜을 두툼하게 두어서 만든 이불은 첫날색시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이불 못지 않았다.

《이불이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불의 안팎도 살펴보고 솜의 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매우 문명하고 깨끗한 인민입니다. 보십시오. 덮고 자는 이불에까지 끝동을 대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다는 장식이 아닙니다. 이불의 아래우를 알아볼수있게 해서 발쪽으로 갔던 이불깃이 입쪽으로 오군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쉽니다. 세상에 수백개의 나라가 있고 민족도 수없이 많지만 이불깃에 끝동을 다는 민족은 우리 조선민족밖에 없습니다.》

순간 녀대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끝동을 달면서도 그저 보기 좋으라고 장식으로 다는줄만 알았지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새 이불을 전달하는 모임이 인민혁명정부 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이불을 받아안은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담긴 이불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위대한 장군님앞으로 달려와 큰절을 올렸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나는 이불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만주땅에서 혈벗고 굶주리는 우리 조선사람들을 볼 때마다 빗을 진 느낌이 들어 가슴이 저리군 합니다. 나는 그저 변변치 못한 이불이 여러분들을 추위로부터 막아줄뿐아니라 원수들의 총알도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장군님! 이 하해같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이불을 받아안은 집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이불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가보로 여기면서 시령에 정히 없어놓고는 덮을념을 안했다.

《나무 한짐 더 해다 불을 따끈히 때면 뭇텐데 그 귀중한 이불을 덮다니...》

모두들 이런 심정이였다.

《갑산집》이라고 부르는 진채순할머니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차곡차곡 개서 시령우에 없어놓고는 몹시 추운 날에조차 덮지를 앓았다.

혁명정부일군들이 날씨도 추운데 어서 이불을 덮으라고 권고하면 도리머리를 저었다.

《우리 그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저렇게 척 없어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온몸이 훈훈해지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유격대가 또다시 멀리로 싸움길을 떠나고 근거지에 얼마 안되는 적위대원들만 남아있는 틈을 타서 왜놈들이 달려들었다.

적위대원들은 마을사람들을 급히 뒤산으로 피하게 하는 한편 왜놈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마을 하나를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마주한 앞산과 뒤산사이에는 맹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앞산에 기여오른 왜놈들은 적위대원들이 차지한 뒤산과 마을을 향해 미친듯이 총질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겠는가. 마을에는 아직도 피신을 못한 사람들이 더러 남아있었으니...

그들가운데는 《갑산집》 할머니도 있었다.

그도 회장이 뛰어나니며 빨리 뒤산으로 오르라고 소리치는것을 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그냥 두고는 떠날수가 없어서 허둥거리다가 왜놈들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이 이불만은 두고서는 못떠난다.》

할머니는 안간힘을 쓰며 이불보통이를 끌어내려고 하였지만 부피 큰 이불이 문에 걸려서 로약한 할머니로서는 도저히 끌어낼수가 없었다.

이런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었으면 오죽 좋으련만 하나는 적위대에 나가있고 또 하나는 부녀회일때문에 이웃마을에 가고 없었다.

《뚜루룩... 따르룩... 팡팡...》

요란한 총성이 려이어 터지며 담벽이며 천정이며를 벌둥지처럼 만들었다.

다급해난 진채순할머니는 허둥지둥 방안으로 뒤걸음쳐서 이불보통이를 풀고 급히 이불을 뒤집어썼다.

(죽어도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속에 싸여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한 할머니는 이불깃을 퐁퐁 여미었

다.

어찌된 일인지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불을 안겨주시던 그날이 생각났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불을 쓴 채 이대로 숨진대도 여한이 없을것만 같았다.

또다시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움쭉 안하고 이불속에 엎드려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근거리마을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유격대가 적위대와 합세하여 《토벌대》놈들을 물리친 다음에야 할머니는 이불속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형클어진 머리를 대충 쓰다듬고 방안을 둘러보던 할머니는 입을 딱 벌렸다.

담벽과 지붕에는 온통 총알구멍투성이였기때문이다. 이런 속에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이 놀랍고도 이상스럽게 그지 없었다.

그래서 이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데 있는가.

이불거죽에는 풀발을 뛰어다니던 개잔등에 도꼬마리씨가 불듯이 수많은 총알들이 가득 붙어있었으나 놀랍게도 총알들은 이불을 조금도 뚫지 못하였다.

이불을 툭툭 털자 꽃이불등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총알들이 후두두 떨어지는것을 보고서야 진채순할머니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까닭을 알았다.

《아,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불이 총알을 막아주었구나!》

할머니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울었다.

《장군님께서 추위만이 아니라 원쑤의 총알까지도 막아주고싶다 하시더니 그 사랑, 그 은정이 총알을 막아 이 늙은이의 목숨을 지켜주셨소이다.》

진채순할머니는 마치도 위대한 장군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인사를 드리듯 이불깃을 붙안고 불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문득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을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싶은 생각이 들어 동년배 늙은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들도 모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쓰고 있었기때문에 무사했다는것이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였다.

뒤늦게야 집으로 달려온 진채순할머니의 아들은 총알이 가득 널려있는 방바닥을 보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어찌자고 이불을 쓰고있었어요? 빨리 산으로 오르지 않고. 이불숨이 두툼하길래 총알이 뚫지 못했지 하마트면...》



그러자 할머니는 어성을 높였다.  
 《이불숨이 두툼해서 총알이 뚫지를 못했겠느냐?  
 우리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은덕이 두터워서 뚫지를 못한거야!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은 실로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탄이불이야!》  
 아들도 마을사람들도 친채순할머니의 그 말이 천만번 옳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유격근거지들에는 물론 온 만주땅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추위뿐아니라 총알까지도 막

아주는 방한방탄이불을 만들어주셨다. 제아무리 날씨가 사납고 왜놈들이 발악을 한다 해도 장군님의 품에 안긴 유격근거지인민들은 끄떡없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방한방탄이불》-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들켜워지는 모든 재난과 불행을 막아주시려고 끝없는 로고를 다 바치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전설이다.

지홍길

## 영원한 사회주의수호자

(로씨야) 세르게이 로마노비치 잔다노보

나는 로씨야의 평범한 공민  
 우리 가야 할 사회주의 그 길  
 마음속에 그리며 찾고찾았노라

나는 로씨야의 이름없는 시인  
 우리 찾아야만 할 사회주의길  
 그 길을 맘껏 노래하고싶었노라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린 무산계급의 기치  
 휘황하던 10 월혁명의 기발이어

혁명의 성새 소련의 모스크바  
 크레믈린탑우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질 때  
 로씨야는 그 얼마나 절망에 몸부림쳤던가

허나 불패의 성새 동방조선을 보라  
 주체사상탑에 타오르는 불길  
 그것은 진정 오늘의 사회주의기치여라

사회주의수호자 **김정일** 동지  
 그 붉은 기발 틀어쥐고 선언하시었노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과학의 진리로 선포하신 사회주의  
 만민의 심장속에 붉은 빛발로 새겨주신분  
 그분은 우리의 **김정일** 동지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사나운 폭풍도 헤쳐나가는 기상  
 붉은 기폭에 장엄히 내려치여라

그분께서 선군의 총대로 지켜가시는  
 조선식사회주의기발  
 그 누가 빼앗을수 있단 말이나

제국주의아성을 불사르고  
 사회주의앞길 밝히는  
 붉은기 우러르며 인류는 웨친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생명

세계는 보리라  
 로씨야와 동유럽에 다시 나뉠길 붉은기  
 세상 곳곳에 펴릴일 저 기발을

조선의 사회주의  
 그것은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  
**김정일** 동지는 사회주의의 탁월한 명도자

오직 그분만이 사회주의를 지켜내셨거니  
**김정일** 동지는 사회주의의 영원한 수호자  
 사회주의의 영원한 수령이시여라

(필자는 로씨야련방 부랴찌야공화국  
 국가재정경제검열위원회 일군임)

## 옮겨진 백리향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꽃나무인 백리향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마음이 어려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해방후 어느날 수령님께서 계시는 창문가에 백리향 몇그루를 심으시었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었다.

해방직후 어느 봄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으로 찾아왔던 항일혁명투사들은 뜻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정원에서 백리향의 독특한 향기가 풍기고있었던 것이다. 눈여겨보니 꽃밭에는 파란 주단을 편듯이 백리향이 한벌 쪽 깔려있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백리향의 청신한 향기속에 묻힌 정원의 꽃밭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해보였다.

그런데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창문가에 새로운 꽃밭이 생겨났다. 그 꽃밭에서도 백리향의 향기가 그윽하게 풍기였다.

항일투사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새로 생긴 꽃밭도 그러하지만 좀처럼 옮겨심기가 어렵다는 백리향이 또다시 자리를 옮긴것은 정말 희한하였던것이다.

여기에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의 창문가

에서 정원의 꽃밭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아무리 보아야 꽃밭이 좀 멀어보이고 게다가 바람결이 맞지 않아서 꽃향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흘러들지 않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러날동안 꽃밭의 향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관찰해보시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의 창문가에 꽃나무들을 옮겨심기로 하시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살리기 힘든 백리향을 또 옮겨 심으시려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해질무렵 정원에서 손수 백리향을 쓰시여 경위대원들과 함께 창문결에 심으시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한들 장군님을 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꽃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그것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피우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부터 온갖 지성을 다하시여 새로 옮겨심으신 백리향을 정성껏 가꾸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밤새워 일하시다가 피곤이 몰려올 때면 자주 창문을 여시고 그 꽃밭을 굽어보곤 하시었다. 그때마다 백리향의 그윽한 꽃향기를 맡으시며 피로를 푸시곤 하시었다.

## 한줌의 흙

-삼지연 대기념비 군상앞에서-

곽명철

우리 늘  
레사롭게 밟고 다니던 흙이  
삼지연 여기서는  
정히 두손우에 받들려있구나

금싸래기 섞인 흙도 아니건만  
그렇듯 소중한  
한줌의 흙을  
오늘도 뜨거웁게 받들고있는  
항일의 투사들

묻지 않을수 없구나

떨어졌던 살불이인양  
두손에 조국의 흙을 그러안고  
눈물글썽한 저 투사들처럼  
내 정녕 이 땅을  
그렇듯 진정을 다해 사랑해왔던가를

결음을 옮기기조차 서슴어지노라  
투사들이 피로써 찾은  
고귀한 이 땅이 흙을  
내 지금껏  
너무도 무심히 밟고 다닌것만 같아

스스럼없이  
저 한줌의 흙의 무게를  
이 마음속에 달아본다  
저 한줌의 무게를 내 정녕 모르면  
거대한 조국의 무게도 모를것만 같아...

오, 둘러보라  
넓으나 넓은 이 세상에  
흙은 어디나 있어도

내 조국에서처럼  
선렬들의 두손우에 받들려있는 땅이  
어디에 또 있거나

항일의 그날에  
투사들 떠올린 한줌의 흙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슴속에  
붉은 댕으로  
끝없이 떠올려지고있어라

## 철학의 샘줄기 시의 샘줄기

정준기

우리 장군님께는 마를줄 모르는  
철학의 샘줄기가 있다  
하시는 말씀마다에도  
쓰시는 글줄마다에도  
철학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우리의 머리는 날마다 영민해지고  
두눈에는 정기가 넘친다  
가장 올바른 갈 길을 환히 내다본다  
모든 일의 진속을 터득하고 산다

지금까지 철학이란  
말마디도 알기 힘들고  
엮여가는 줄거리도 까다롭다 했거늘  
철학은 《신사복차림》을 하고  
인민대중과 멀리 있었다

그러나 인민을 사랑하시고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철학에 《평민복》을 입히시고  
대중속에 데려왔다

세상만사에 정통하신 장군님께서는  
모든 심오한 철리를  
쉬운 말로 용해시켜  
사람들에게 리해시킨다  
보약이 풀려있는 약물처럼 섭취되어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부쩍 높아지고  
지혜도 커진다

우리 장군님에게는 마를줄 모르는  
시의 샘줄기가 있다  
말씀의 마디마디에도

쓰시는 글줄마다에도  
시가 넘쳐 흐른다

그래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뜨겁게 안겨져있고  
심장은 열기를 뿜으며 고동친다  
온몸에 새힘이 넘친다

언제나 시란  
남다른 재능가진 사람만이  
쓸수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망은 있으나  
머리를 짜고짜도 첫줄을 쓰고는  
다음줄을 쓰지 못했다 한다

그러나 세상만사에 정통하시고  
인간사랑에 넘치는  
우리 장군님의 말씀과 글들은  
그대로 시가 되어  
온 세상에 감동의 파도가 일게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장군님 명언은  
우리에게 신심을 주고 열정을 주는  
행진곡이었다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시려는  
장군님 위대한 뜻의  
시적분출이었다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앞날이 환한  
랑만의 나라에서 산다  
위대한 철학의 샘줄기를 받아안으며  
위대한 시의 샘줄기를 받아안으며

## 울림폭포의 메아리

조인영

선군8경은 그 어디나 보는 멋이 황홀하고 장관이어서 더 이룰데 없는 절경을 이루고있다.

그런데 울림폭포는 보는 멋도 멋이거니와 그 장쾌한 음향으로 하여 들을 멋 또한 이룰데 없어 《울림폭향》이라 그 이름 역시 멋스럽고 건드려지다.

한여름의 해빛이 내리쬐는 어느날 동해안의 어느 한 산간군에서 취재를 마친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는 울림폭포를 찾아볼 마음을 안고 길에 나섰다.

내가 떠난 곳에서 울림폭포까지는 근 50리길이다. 사실 그 길은 나에게 너무도 낯익고 정든길이다. 20년전에 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 그곳 탄광에서 한해동안 탄부로 일할 때 수없이 밟아본 길이었다. 한동안 걸음을 다그쳐 탄광지구를 벗어나니 어데선가 지심을 뒤흔드는듯 한 웅글은 소리가 간단없이 귀에 와닿았다.

가슴은 미묘한 흥분으로 설레이며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사시창철 한시도 잠못 드는 대지의 박동인양 쉬임없이 메아리치는 울림폭포가 어젠가 멀지 않은곳에 있는것이였다.

가는 길에서 나는 마침 울림폭포를 찾아낸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쾌기있고 씩씩한 젊은 군관이 나와 걸음을 함께 하였다.

군관의 말에 의하면 울림폭포 주변의 10여리아군의 지형지물들에는 폭포의 메아리가 울린다는 의미에서 울림지구, 울림산, 울림령, 울림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는것이였다. 심지어 울림폭포의 물로 만든 술은 그 맛이 이룰데 없이 좋아 울림술이라 하며 울림산의 오미자로 만든 단물도 울림단물이라 하는데 그 약효 또한 이룰데 없다고 했다.

《울림폭포야 예로부터 있었지요. 그 장쾌한 메아리도 폭포와 함께 태어난것이구요. 그러나 천험의 산골짜기 인적없는 곳에 있다보니 와본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폭포를 구경하겠다고 신들메를 매고 이른새벽에 떠났다가 허탕치고 캄캄칠야에 되돌아선 길손도 허다했고 지어는 험한 낭떠러지 바위코숭이에서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인가들에서는 그 신비한 폭포의 메아리를 산의 울음소리라고들 했다고 합니다.》

한때 배우를 지망했다는 그는 해설원 못지 않게 랑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산이 생기고 폭포가 생긴 이래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내리쬐으며 메아리를 일으킨 울림폭포가 어이하어 21세기의 첫 기슭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드디어 그 장쾌한 모습을 드러내놓은것입니까.》

그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세기에 이어 새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굳게 믿으시고 조국보위와 건설사업의 앞장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설계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은 깊은 산중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져있지 않던 울림폭포를 찾아낸 순간 기쁨에 앞서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명산, 명소를 많이 찾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나가도록 해주신 사랑과 은덕의 깊은 의미를 절감한때문이였다.

그렇다. 수천수만년 숙절없이 흘러흐르던 폭포, 와본이는 별로 없고 그 소리만 울린다 하여 울림폭포라 이름붙은 명소, 기막히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울림폭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은정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오랜 날 감추어온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놓은것이였다.

어느해 여름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울림폭포를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세상에 이런 희한한 폭포는 드물다고 하시면서 울림폭포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리라고 말씀하시고나서 이 폭포를 21세기에 발굴한 폭포라는 의미에서 2001년이라는 글자를 크게 새겨놓자고 하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수억년 잠자던 폭포를 두드려깨워 이 땅위에 또다시 하나의 절경을 안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감동된 군인건설자들은 산악같이 펼쳐일어나 그이의 명령을 관철하였다. 군인들은 울림폭포로 오르는 답사길을 닦고 폭포일대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꾸려놓았던것이다.

젊은 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 애족의 사상에 감동된 나는 힘든 줄 모르고 걸었다.

어느덧 폭포에 이른 나는 하늘을 날을듯 한 기분이 되었다. 심신은 말할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혔다. 그 거연하고 장엄한 기상과 장쾌한 폭향이 불려일으키는 격동과 흥분으로 하여 심장은 흥

팍안에서 쿵쿵 래질하는듯싶었다.

폭포는 수십여미터의 아아한 바위벼랑우에서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쿵쿵 내리쪼었다. 빙빙 섰도는 푸르른 소에서는 서늘하고도 상쾌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폭포가까이로 다가서니 안개발과 같은 비말에 얹은 여름옷이 단번에 눅눅해졌다.

물이 많은 여름과 가을철에 한줄기로 합쳐져 내리는 폭포수는 겨울철이면 두줄기의 쌍폭포로 그 모양을 달리하여 흐른다.

폭포는 억센 힘과 기상을 시위하듯 여전히 쿵쿵 내리쪼었다. 폭포의 울림소리에 다른 아무소

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나 지심깊이에서 어마어마한 소리의 썸이라도 분출하는듯싶고 소리의 자기마당에라도 든듯싶어 폭포의 울림소리 밖에 다른 아무소리도 더는 포착할수 없다.

한낮의 햇빛을 받은 폭포의 물기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의 장검에서 내뿜는 빛발인양 서슬푸른 광채가 번개친다.

아, 울림폭포의 메아리여!

21세기가 울리는 선군의 포성으로 정의와 평화의 원썩들을 짓부시며 이 세상 끝까지 궁지높이 울려가라!

## 울림폭포, 너의 그 울림속에

송재하

내리쪼는  
그 소리  
팔안마다 차고 넘쳐  
너 울림폭포인가

한줄기로 쏟아지면  
그 소리 성차지 않아  
다시 두줄기로 쏟아지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너의 그 울림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들으면 들을수록 장쾌하지만  
병사들이 찾아낸 네앞에선 이 마음  
불을 안은듯 뜨거워

탐승길에 펼쳐진  
자갈도 무심히 밟을수 없노라  
심산속에 묻혀있던  
이름없는 너를 찾아  
병사들이 땀흘려 안아 빛낸 자욱자욱...  
눈에 삼삼 어려와

가슴속에 솟구치는 웨침은 하나  
울려퍼지라 폭포여  
선군시대 병사들이 찾아낸 너여서  
더 좋고 더 장쾌하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 말씀

온 세상이 다 듣게  
자기 령도자  
자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이 없는  
선군시대 병사들의 열렬한 마음  
너의 울림속에 다 비껴있거니

총대로 조국을 수호하고  
총대로 이 강산을 꽃피워가며  
우리 병사들이 올라가는 승리의 행진곡에  
너의 그 울림  
어찌 하늘땅만을 울리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  
애국의 울림으로 메아리친다

우리 장군님 병사들의 그 열렬함 그 뜨거움  
떨어지는 물줄기에 다 비껴있고  
흘날리는 물보라에 다 어려있어  
너보다 아름다운 폭포  
이 세상 그 어디서 찾아볼수 있으랴

끝없이 울리라 울림폭포여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병사들의 그 조국애  
불타는 충성의 그 위훈을  
천년토록 만년토록 길이 전하며  
강성대국 내 조국의 영원한 노래되어 울려퍼지랴!

## 울림폭포

리영철

천년을 만년을 울려왔으리  
아아한 마식령  
그 깊은 계곡  
깎아지른 절벽과  
수려한 산밭을 흔들며-

아는이 없이  
보는이 없이  
속절없이 떨어지던 폭포수  
비단으로 내리고 구슬로 흩어지어도  
노래불러 전한이 하나도 없었다

심산에도 심산속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려도  
그 옛날 화전을 일구는 농부의 귀전에조차  
귀밝은 포수의 초막에조차  
가닿지 못하고 다시 오던 메아리

노루며 사슴이며 수리개조차  
너를 찾지 못한 길  
청산의 젖줄기로 흐르고흐르며  
락엽에 묻힌 물은 산삼꽃을 피워왔어도  
너를 알고 너를 찾아간 사람 그 뉘였던가

침침 바위에 막혀  
침침 덩굴에 가리워  
해와 별도 못보고 흘러간 세월

울었다 너는 광광 가슴을 치며  
그 눈물이 아니라 이 산중에 생긴 6 담은...

오, 장쾌하도다  
빛없던 제모습 세상에 드러내놓고  
오늘은 강산을 울리며  
기뻐 좋아라 떨어지는 폭포수  
불수록 아름답고 황홀하도다

위대한 장군님 손길이  
너에게로 오는 길을 나에게도 열어주었다  
칠보산, 장수산... 이 땅에 빛내주신 명산의  
명소들처럼  
선군 8경의 하나로  
전선길에 너를 빛내주신 우리 장군님

탐험가도 미처 못와본 이곳에  
휴양객 탐승객 다 불러들이며  
인민의 유원지로 꽃피우신  
그 은정 전하며  
나의 넋을 흔드는 너의 메아리

아, 천년을 만년을 울려가리라  
네가 빛나고 내가 행복한  
선군의 이 시대  
선군태양의 그 사랑을 안고서  
선군 8경으로 내 조국의 영원한 자랑이 되여!

## 유모아

### 공연한 걱정

한사람이 죽기 직전에 안해의 손을 꼭 쥐고 말  
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너무 슬퍼 말고 다른 사람  
을 남편으로 맞아서 살라구. 그리고 내가 입던

옷들을 다 그에게 줘서 입히오.』  
이 말을 들은 안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걸 어쩌나. 그 사람은 당신보다 키가 펴 작  
은데...』

## 소포

한 늙은 부인이 아들에게 소포를 보냈다. 그  
소포속에는 이런 내용의 쪽지가 있었다.  
『너에게 이 외투를 보낸다. 무게를 덜기 위해

서 모든 단추들은 떼버렸다. 너를 사랑하는 어머  
니로부터.  
더듬: 제일 옷주머니에 단추들을 넣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동지적의리를 지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동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 □실화문학□

# 보금자리

리라순

렬차에 오른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취재수첩을 펼쳤다. 나의 앞자리에 앉은 20 대의 젊은 군관이 내가 펼쳐드는 수첩에 흥미있는 눈길을 던졌으나 나는 개의치 않고 그냥 수첩을 번져나갔다. 이번 물길공사장에 나가서 만났고 일을 함께 하며 친숙해진 그들은 앞으로 나의 소설의 주인공들이었던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훑어가던 나는 문득 수첩 한귀에 밑줄을 그어놓은 이름밑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모성영웅 서혜숙!》

부모없는 33 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 얼마전에 신문과 방송으로 소개된 녀성이었다.

나는 물길공사장에 나가기 전에 그를 찾아갔었다. 그러나 그를 만날수가 없었다.

《옆집에 사는 우리도 애어머니 보기가 힘들다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니...》

할머니는 그가 젖먹이아이들의 암가루를 구하려고 어린이식료공장에 갔을거라고 하며 돌아오면 소학교아이들의 학습때문에 또 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을 만나야 할게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잠시간에는 갓난애기들의 기저귀와 술한 애들이 벗어던진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쯤에는 남새상점으로 뛰어간다는것이다.

비록 하루의 짙막한 일이지만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서혜숙의 수고가 헤아려지는 토막이야기였다.

나는 이제 돌아가는 길로 서혜숙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앞자리에서 수첩을 슬그머니 넘겨다보던 젊은 군관이 불쑥 물었다.

《혹시 그 수첩에 적혀있는 이름이 서혜숙어머니가 아십니까?》

나는 놀라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선구자동에 사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옳군요!》

젊은 군관은 환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바람에 더욱 놀란것은 나였다.

(어머니라니?! 그럼?...)

무작정 반가운 생각이 앞섰다. 이 젊은 군관에게서 서혜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는 기대가 나를 흥분시켰다.

《아들인가요?》

《예, 둘째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그 수첩에?...》

《어머니에 대한 소설을 쓰려구요.》

《그러니 작가선생이군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흔히 취재길에선 작가를 만나면 무턱대고 반가와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던것이다.

군관이 물었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셨는가요?》

《아니,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때문에 항상 바쁘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 그런 어머니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인 훌륭한 어머니지요. 나이도 성격도 취미도 다른 수십명의 아이들을 키운다는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루 세끼 끓여 먹여야 하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과 같이 옷을 빨아 입혀야 하는 조무래기들도 있고 엇드레질로 마음을 썩이는 머리 큰 아이들도 있었습시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는듯 생각에 잠겨 차창을 바라보았다. 나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약간 울려민듯 한 군모밑으로 그의 고집스러워보이는 이마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어렸을 때 어지간히 서혜숙의 속을 태웠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눈길을 느끼였는지 젊은 군관은 멋적게 웃으며 자리를 바로잡았다.

《전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짐작합니다. 정말 애를 먹었지요. 철없이...》

그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원래 이름은 정만이였다. 정만은 13 살 때 부모를 잃고 6 살난 동생 윤미와 함께 서혜숙 어머니의 집으로 왔었다.

그가 온 새 집에는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벌써 19 명이나 있었다.

몇달밖에 안된 갓난애기 네명과 서너살짜리 아이들이 여라문명 되었고 일여덟살난 장난꾸러기들과 자기포래의 처녀애들이 몇명 있었다.

서혜숙어머니는 호기심에 싸인 아이들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있는 정만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 우리 집에 큰 오빠가 생겼다. 모두 큰오빠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예!》

아이들이 큰소리로 대답했다. 이 애들이 모두 내 동생들이란 말인가.

정만은 윤미의 손을 꼭 잡은채 한방이나 되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볼뿐이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잠자리가 따뜻한것이 좋았고 하루 세끼 더운밥 먹는것이 좋았다. 동생 윤미도 애들과 잘 어울려 놀았고 새 어머니도 다른 애들과 자기 형제를 차이없이 대해주는것 같았다. 하지만 습관처럼 몸에 밴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집안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던 정만은 자저러지는듯 한 윤미의 울음소리에 화다닥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윤미는 애들속에 둘러싸여있었는데 성국이라는 애가 자기의 바람개비를 가지고 논다고 윤미를 밀쳤던것이다.

성국이는 아주 애기때 이 집에 왔었는데 8살이 되도록 서혜숙을 자기의 친엄마로 믿고있는 애였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서혜숙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 단번에 입을 삔죽하며 《체, 자기 엄마래! 내 엄마인데.》하고 한사코 승벽을 부리는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그 애는 다른 애들과는 달리 때도 잘 썼고 아무때나 투정을 부리곤 했다. 정만은 눈이 시리게 노는 그 애를 못본척 했으나 언제든지 혼내주리라고 버르고있던참이었다.

《야! 내 동생은 왜 때려?》

정만의 눈찌가 사나와졌다. 모여선 애들이 두려움에 차서 정만이와 성국을 엿갈아보았다.

정만은 다른 애들 뒤로 슬금슬금 숨어버리는 성국에게 한주먹 안겨주었다. 성국이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자리에 풀썩 넘어졌다.

원래 약풀이었던것이다.

그 자리에서 돌아선 정만은 상점으로 뛰어가

새 학습장과 연필을 사오라고 준 돈으로 바람개비 열개를 사다가 윤미와 작은 애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첻. 그까짓 학습장…)

정만은 큰 형인 자기가 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것이 기뻐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오자 차츰 걱정이 앞섰다.

어머니가 사오라고 한 학습장은 정만이뿐 아니라 다른 애들도 래일 학교에 가지고 가야 할 학습장이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렸으니…

아니나다를가 어머니의 된 꾸중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큰 애가 그러면 어떻게니? 동생을 때리지 않나. 제마음대로 바람개비를 사지 않나… 이 집에 왔으면 모두 한형제나 다름없는데 봐라, 성국이 가 저렇게 누워있지 않니.》

정말 성국이는 자리까지 펴고 누워있었다.

정만은 자기에게 등을 돌려대고있는 성국을 흘겨보았다.

《엄살을 부리는거지…》

이때 성국이에게 사랑물을 먹이던 같은 포래의 은혜가 정만에게 쏘아붙였다,

《넌 잘못을 빌줄도 모르니? 어머니속만 태우면서… 너같은 애는 처음이야!》

《뭐라구?!》

정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윤미야, 가자!》

(여기 아니면 있을데가 없어서?)

《정만아, 너 어딜 가려고 그러니?》

불잡는 아이들을 뿌리친 그는 다짜고짜 동생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을 나섰다. 고충살림집모서리를 돌아섰는데 《정만아!- 정만아!-》 하고 찾으며 허둥지둥 달려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한 불빛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었다.

…

젊은 군관은 젖은 눈을 손바닥으로 꼭 누르며 고집스러운 그 이마를 쳐들었다.

《미안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그만… 철들고보니 부모없는 우리들에게 준 서혜숙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인것인지 깨닫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을 그저 교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지요.》

그는 메고있던 전투가방에서 군사우편으로 온 여러개의 편지를 꺼내었다. 매 편지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일숙, 편숙, 단숙, 심숙,

충일, 성일, 다숙, 하일, 리숙, 라일...

《우리 큰 애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합치면 <일편단심 충성 다하리라>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애들은 방패, 보답, 성세, 조숙, 국일, 통일, 일숙... 그래서 윤미는 단숙이로, 성국이는 성일이로 저는 정만이가 아니라 라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중에서 제일 두툼해보이는 편지봉투 하나를 나에게 내밀었다. 리숙이의 편지였다.

## 2

나는 리숙이의 편지를 펼쳤다.

《...

오빠, 우리 33 명의 형제중에서 또 하나의 총대병사가 된 오빠를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어요. 오빠에 대한 공지가 클수록 다 커서도 어머니의 속을 태웠던 제가 부끄러워요.

생각나세요? 제가 통계전문학교에 입학하고도 안가겠다고 떼쓰던 일이... 전 그때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기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요. 구역당 책임비서동지와 어머니가 공부하고싶어하는 저를 통계전문학교에 입학시켜주었지만 첫 등교를 했던 저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온 처녀애들인데 모두 차림새들이 세련되고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어요.

한 처녀애는 외국에서 사왔다는 고운 구두에 고급책가방을 들었는데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나는 저도 모르게 나의 가방을 내려다보았어요. 낡은것은 아니지만 그 애처럼 멋있는것은 아니었어요.

(저 애는 부모가 있으니까!...)

30 명이나 되는 술한 아이들이 자라고있는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나를 저렇게 내세울수가 없는것입니다.

때없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처녀애가 부러웠고요...

전 학교에 가기가 싫었어요. 자주 결석했지요, 어느날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묻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난 거짓말을 했어요. 머리가 좀 아파 그런다고...

어머니는 더 묻지 않더군요.

그저 말없이 방금 사온 우유가루와 암가루를 보관함에 차곡차곡 쌓아넣기만 했어요.

그 우유가루와 암가루를 보느라니 뭔가 생각키우는것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애기들이 먹고도 남을 우유가루

를 많이 사들가? 여분의 우유가루를 사지 않으면 고운 구두와 가방을 살수도 있을텐데...)

또다시 우울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난 공부를 그만두었어.)

속으로 결심은 이렇게 했지만 어쩔선지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의 숙제검열도 해주고 방청소도 부지런히 하였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저를 한동안씩 지켜보곤 하셨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학부에서 옥실이라는 처녀동무가 찾아왔습니다. 한자리에 앉게 된 동무인데 내가 나오지않아 데리러 왔다는것이였습니다.

<등교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마침 그리 크지 않은 꾸레미를 든 오빠와 함께 들어서던 어머니가 놀라서 나에게 따져물었어요. 전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리숙아, 너 어떻게 된거니?>

오빠가 나에게 다가서며 조용하게 물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눈을 내리간채 대답을 피했었어요. 이제 얼마 안있어 집을 떠나야 할 오빠였지만 앵돌아진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던거예요.

그때 오빠 학급에서 제일 먼저 군대에 탄원하였던것입니다.

<어서 가거라.>

<싫어요. 전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겠어요.>

<원, 애두... 아이들은 이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리. 걱정말고 공부나 잘해라.>

어머니는 웃으며 내가 들고있던 방비자루를 빼앗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문에 잔뜩 매달려있던 꼬맹이들이 좋아라 이 방 저방을 울리뛰며 내 교복과 학용품들을 하나씩 들고나왔어요.

<너희들 참 용쿠나.>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옥실이 밝게 웃으며 귀여운 꼬마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낮모를 누나에게서 칭찬까지 받은 국일이가 뽀내듯이 나에게 책가방을 내밀었어요.

<자, 이거 누나!>

나는 국일이가 내미는 책가방을 보자 그만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학교에 간단 말이야! 남들은 멋진 가방을 들고다니는데... 차라리 공장에 나가 일하는게 낫지.>

국일이는 어째서 누나가 갑자기 성났는지 모르겠다는듯 흩어진 필기도구들을 주어모으며 이사람 저사람 눈치를 보았어요.

<리숙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놀랍게 부르짖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라일 오빠였어요.

그제서야 아차! 하고 움츠렸으나 나는 이미 내친 걸음이라 그냥 투정을 부렸어요.

<싫어요 이런 가방은... 제가 친딸이었다면 그랬겠어요. 책임비서동지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해 줄텐데...>

나는 막아서는 오빠를 밀치고 나가려고 했었지요. 그때 오빠가 얼마나 무섭게 나를 노려보았는지 퍼그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를 멈추어세운건 오빠가 아니라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였지요.

<게 섰거라! 누구를 찾아간다구? 너희들이 그런 특전에 습관될가봐 걱정을 해왔지만 이렇게 응석받이가 될줄은 몰랐구나.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어...> 어머니는 비칠거리며 몇발자국 옮기더니 그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라일오빠와 작은 애들이 다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너 정신있니? 부모없는 우리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그런 가슴아픈 말을 마구 하다니... 지금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고있는 성일이에게 자기 피를 넣어주고 오는 길이야. 알기나 하니?> 오빠의 절절한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어요.

나는 속이 뜨끔했어요. 내가 너무했구나. ...

정신을 가다듬은 어머니가 내손을 더듬어줬어요.

<아니다. 난 너희들을 데려오기만 했지 너희들을 키워준건 온 나라 사람들이란다. 온 동네, 온 구역이 너희들을 위해서 뛰어다녔지. 상점에 좋은것이 나와도 너희들에게 먼저 주었고 아무리 나라사정이 어려워도 너희들에게만은 배급을 주고 학용품을 공급해주었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응당히 받아야 하는 특전으로 생각하고있구나.>

어머니의 이야기는 평범한것이였지만 그것은 사실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새 교복이 나오면 부모없는 아이라고 제일 먼저 나에게 주었고 교과서도 제일 먼저 나에게만은 꼭꼭 주곤 했었지요.

그리고 내 생일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과 온학년아이들이 찾아왔고 저녁이면 구역 당책임비서동지도 오곤 했었지요.

정말 그랬어요....

내가 발끝만 바라보며 손톱눈을 썰고있는데 라일오빠가 나를 타일렀지요.

<리숙아, 우리가 도대체 뭐니? 우리가 뭐가 돼서 온 나라가 위해주어야만 하는가 말이다.>

너의 부모나 우리 부모가 나라를 찾으려고 피를 흘린 투사니, 아니면 조국을 위해 위훈을 세운 영웅이니? 아니다. 그런데두 넌 돌봐주고 보살펴주는데 습관해서 응석을 부리고 투정질하고... 네가 자본주의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전문학교는 고사하고 거리에서 시들고말았을거야.>

진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오빠의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무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책상서랍에서 두툼한 책 한권을 꺼내놓았어요. 오래전부터 써오던 <우리 가정수첩>이였답니다.

첫장을 펼치니 아버지가 어느 한 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닌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장을 번지니 온 가정이 여러 출판물들에 소개된 이야기가 적혀있었어요. 또한 여러 성, 중앙기관들과 사회단체들에서 보내여온 지원품 명세들도 일일이 적혀있었고요.

<후날 너희들이 커서 어른이 된 다음 누가 너희들을 키우고 보살펴줬는가를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 이걸 적어두었다.>

어머니는 <우리 가정수첩>을 내앞으로 밀어놓았어요.

...그래, 우리 부모있는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자랐어!... 부러운것 없이...

오빠가 무엇인가 더 이야기하려는것을 어머니가 제지시키더니 아까 들고들어오신 작은 꾸레미를 제앞에 내놓으시였어요.

<리숙아, 내가 친어머니구실을 잘하지 못했구나. 좀 늦긴 했지만 이 어머니의 성의로 알고 받아라.>

어머니가 안겨준 꾸레미를 풀어보니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고운 구두와 멋진 새 가방이였어요.

<아니?! 이젠...>

나는 마음처럼 선뜻 손을 댈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것이 나에게...

이때 옆에서 보고있던 옥실이가 부러움에 차서 감탄하지 않겠어요.

<야! 정말 끝구나...>

그제서야 나는 옥실이를 결눈질해보았어요.

그 애가 든 가방도 낡은 가방을 깨끗이 손질한 것이였는데 그에 비하면 나의 가방은 얼싸하게 좋았고 새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지요.

그리고 그가 신고있는 신발도 구두가 아니라 앞등을 동그랗게 오려낸 수수한 편리화였어요.

부모들이 다 있는 옥실이가 말이에요.

어떻게 된것인지 몰라 서있기만 하는 나에게 오빠가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자, 어서 신어봐. 어머니 전문학교에 입학한 너에게 새 가방을 마련해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치마저고리를 팔았단다. 애기들에게서 여분의 우유와 암가루는 땔수 없었구.>

<뭐라구요?>

그러니 어머니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친딸이 아니라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난 정말!...

나는 그만 어머니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주세요!...>

나의 등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눈곱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리숙아, 이 어머니에게 투정하는거야 뭐라냐?

다만 이 어머니 너희들이 자기들을 안아키워준 고마운 이 제도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웅당한 것으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될가봐 그러는 거다. 리숙아,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싶은것은 보답에는 높은 목표가 있어도 받는데서는 자그마한 요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거라.>

나는 어머니기 우리 매 아이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훌륭히 키우려고 애쓰고있는지 그 제서야 알게 되는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모양으로 되기를 바라셨던것입니다....

나는 리숙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을 품들여 키우려는 서혜숙녀성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기때문이다.

라일군관은 탁우에 놓았던 편지들을 차곡차곡 묶어서 다시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한두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를 수혈해주고 병원으로 업고 뛰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생활은 평상시 구체적인것이지요. 작가선생은 자식들이 부모들의 결혼식을 차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까?》

《부모들의 결혼식을요?》

나는 그가 다음 이야기들 계속 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었다.

### 3

...처음 서혜숙이 데려온 아이들은 방랑생활을 하다가 모여온 애들이어서 거칠고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없어지지 않았다. 옆에서들 서혜숙에게 슬그머니 권고하였다. 왜 귀한 물건을 깊이 간수

해두지 않는가고...

서혜숙은 웃었다.

제자식들인데 무슨 열쇠를 채우겠는가고...

서혜숙은 가끔 돈가방도 경대에 그냥 놓고 나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일은 없었다. 아이들은 그 자그마한 사실도 자기들을 믿어준다는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들였던것이다. 어머니는 뿐만아니라 일상시 우리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려고 무척 애를 썼다. 깨끗한 환경이 아이들의 가정교양에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겼던것이다. 어머니의 꾸준한 노력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불을 마구 쑤셔넣거나 남의 신발을 끌고다니는 아이들의 나쁜 습관들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다. 끝내는 마을사람들도 서혜숙녀성이 키우는 아이들이 다른 집 애들보다 인사성이 밝고 정직한 애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믿음을 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정이 통하는 법이다. 아이들은 키도 크고 생각도 커갔다.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없을가?

어느날 인민군대에 탄원하고 돌아온 라일이와 충일이가 사진첩을 뒤적이고있었다.

며칠후에 군대에 나가야 할 그들이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사진을 가져가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한참동안 사진첩을 뒤지던 충일이가 기웃거리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사진이 왜 없을가?》

사진을 고르고있던 라일이가 어처구니없는듯 충일이에게 눈을 흘기었다.

《넌 아버지, 어머니 결혼사진을 품고 군사복무를 하려니?》

《그런게 아니야. 다른 집들에 가면 사진첩 맨 첫장엔 부모들의 결혼사진이 있거든, 혹시...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식을 못한게 아닐가?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어머니 처녀였구 그후에 어머니 아버지와 만났구...》

그제서야 라일이도 눈이 둥그래졌다. 충일이 말마따나 어머니가 그들을 데려온것은 10 여년전 처녀때부터였던것이다. 그때부터 결혼식은 커녕 그 비슷한것도 없었다. 아버지도 아무런 격식없이 나타났었다. 어느날엔가 갑자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한것이 전부였다.

라일이와 충일은 서로 멍하니 마주보다가 결혼식사진이 있어야 할 빈 사진첩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는 여직껏 결혼식도 못하고있었구나! 우리들때문에... 아, 우리 어머니!...

라일이는 사진첩을 탁 덮어놓고 벽에 걸어놓은 달력을 번지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빨간 연필로 진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날짜를 손으로 길었다.

《...3월 29일! 이게 한주일밖에 안남았구나.》

3월 29일은 서혜숙어머니의 생일날이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은 생일을 꼭꼭 차려주면서도 자기의 생일은 그냥 지나쳐온 어머니였다. 그래서 이번만은 어머니의 생일을 번지지 말자고 달력에 표식을 해놓았던 것이다.

골똘히 달력을 들여다보고있던 라일이가 큰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애들아, 다들 모여라.》

무슨 일인가 해서 꼬맹이들과 큰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한가지 토론할게 있다. 난 이번 어머니생일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상을 차려드리자는 거다.》

《뭐?! 아버지와 어머니결혼식?...》

모여선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서로 마주보았다. 라일이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다음말을 이었다.

《애들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바칠수 있는 것은 다 바쳤어.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도 못차렸구 또 정이 나누어질가봐 우리를 위해 제자식도 바라지 않았어. 이런 어머니에게 우린 무엇을 해드린게 있니? 그래서 난 늦기는 했지만 이번 어머니생일날엔 우리가 어머니의 결혼식상을 차려드리자는거다.》

《찬성이야!》

《좋아! 우리모두 본때있게 결혼식상을 차려드리자.》

아이들이 합창하듯 목소리를 합쳐 소리쳤다.

라일은 제마끔 떠드는 아이들에게 한손을 쳐들었다.

《그런데 이건 어머니생일날까진 절대비밀이야. 너희들 말했다간 알지? 가만두지 않겠어!》

라일은 애들에게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고는 머리를 맞대고 큰애들끼리 오래도록 의논을 하였다.

토론이 되자 다음날부터 아이들은 분담에 따라 제각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끌어들인것은 어머니몰래 옷장뒤에다 감추어놓았고 꼼꼼한 일숙이는 장부정리를 하듯 수첩에 빠짐없이 적어넣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어머니생일날이 다가왔다.

그날 어머니는 마침 이른 새벽에 새로 난 봄시금치를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시외농장으로 떠나고 없었다.

《리숙이, 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오후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단숙이는 밖에 나가 어머니가 오시나 보렴.》

라일이는 몇아이에게 임무를 주고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결혼식상을 받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려보았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실거야!)

흰바탕에 남색공단으로 가장자리와 웃고름을 장식한 반회장저고리를 입은 어머니는 한철 젊고 아름다와보일것이다. 그 반회장저고리도 어머니키와 비슷한 다른 녀인의 몸을 재서 아이들이 마련한 첫날옷이었다.

이때 방문이 벌럭 열리며 단숙이가 뛰어들어왔다.

《오빠! 큰일났어요. <신랑>, <신부>가 달아야 하는 꽃이 없잖아요. 꽃이!...》

꽃?!

라일은 벽에 걸어놓은 어머니의 결혼식치마저고리를 쳐다보았다. 정말 가슴에 달고 상을 받아야 하는 장식꽃이 없는것이였다. 앞가슴에 꽃을 달지 않고 결혼식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야단났구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라일은 옷도 바로입지 못한채 무작정 가까운 직매점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직매점에는 꼭 있을거야. 혹시 거기에도 없으면 어쩐다?!)

라일은 직매점에 들어서자마자 판매원에게 다우쳐물었다.

《꽃이 어디 있어요?》

무엇인가 계산하던 판매원이 깜짝 놀라 혈색거리는 라일이를 명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이거, 여기에 다는 이런 못 말이에요!》

라일은 쑥 내민 제 가슴과 판매원의 머리에 꽃을 장식하는 흉내를 내었다. 판매원은 그제야 알았다는듯 원주필뒹뚱지로 진렬장을 가리켰다.

《그런 장식꽃은 저기 있잖니?》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였다.

《하나 주세요.》

판매원은 머리로 들지 않은채 재빨리 전표를 떼주었다. 전표를 받아들고 조급하게 출납으로 다가가던 라일은 그만 가슴이 철렁하였다.

덤벼치며 나오다보니 돈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였다.

《이걸 어쩐담!》

이제 다시 갔다가 오자니 시간이 없었다.

《저, 돈을 못가지고 왔는데...》

라일은 딱한 표정으로 판매원을 바라보았다.

《그럼 얼른 갔다와야지.》

판매원은 여전히 계산기만 골똘히 들여다보며 레사롭게 대답했다.

《지금은 바빠서 그래요.》

《그럼 후에 사려무나.》

《안돼요 오늘 당장 어머니결혼식을 해야겠는데...》

라일은 오히려 제편에서 골을 내며 불부은 소리를 했다

《어머니결혼식이...》

그제야 고개를 쳐든 판매원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식들이 부모의 결혼식을 해준다는것은 난생처음 듣는 소리인것이다.

《그래요. 어머니결혼식이에요. 우리를 데려다 키우시느라고 어머니인 결혼식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들의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된 판매원은 라일을 부둥켜안았다.

《너희들이 참 기특하구나!》

판매원은 진렬장에 놓인 장식꽃 한조를 정히 꺼내여 그것을 라일에게 안겨주었다.

《고마워요! 다음번에 들리면 돈을 물게요.》

《일없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꼭게 포장한 장식꽃을 가슴에 안은 라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줄달음쳤다. 그러나 집이 가까와오자 문득 다른 걱정이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했다. 결혼식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지금쯤 술한 아이들이 큰상에다가 품들여 끌어들인 음식들을 마구 늘어놓고 있을런지도 몰랐다. 그러면 야단인데... 빨리 가야지!...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숨이 턱에 닿아들어서니 아이들이 오구구 밀려나와 저마끔 라일에게 알려주었다.

《오빠야, 책임비서동지가 오셨다!》

《동사무장어머니도 오셨어요!》

방안에는 이밖에도 서혜숙녀성의 가정에 늘 관심을 두고 돌봐주고있는 여러 중앙기관 책임일꾼들과 봉사소소장들이 결혼식에 쓸 음식들을 한가득 부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서혜숙녀성의 결혼식을 차린다는 기특한 소행을 전해듣고 저저마다 최대의 성의를 다해 결혼식상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왔던것이다.

《고맙습니다.》

라일은 그들모두에게 꾸벅 머리숙여 인사하였다. 언제나 고마운 사람들이었던것이다. 그중에서

도 구역당책임비서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처럼 가까운 사람이였다. 처음 아이들이 새 집에 이사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도 구역당책임비서였다. 한 꼬마를 번쩍 들어 품에 안는 그에게 아이들이 누군가고 묻자 그는 빙그레 웃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하고 친하자.》

그날부터 그는 아이들과 한식술이 되였다.

설날에 제일 먼저 찾아와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안겨주는 사람도, 때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의 숙제장을 보아주는 사람도 바로 그였다.

《이번 일은 라일이가 선코를 때였다면서? 그래, 준비는 다 됐느냐?》

구역당책임비서동지가 대견한듯 라일의 어깨에 한손을 얹었다.

《예, 이젠 다 됐습니다.》

라일이는 장식꽃함을 들여다보며 즐겁게 대답했다.

《헌데 주인공이 아직 안돌아왔구나, 허》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니는 해가 기울어서야 나타났다.

《어머니가 오신다!》

어머니가 오는 골목을 지켜서있던 단숙이가 먼저 환성을 올렸다.

지보다 큰 남새보따리를 머리에 인 서혜숙이 넘어질듯 걸어오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

가다리던 아이들이 와!-하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를 에워싼 아이들은 저저마다 머리에서 짐을 내리우고 땀에 젖어 흠뻑이로 어지러워진 어머니의 옷을 털었다.

그제야 숨이 나가는지 서혜숙은 두다리를 어루쓸며 시름없는 미소를 지었다.

점심밥도 건넬면서 힘들게 이고온 시금치나물이지만 아이들이 맛나게 먹을것을 생각하니 힘들었던것이 저절로 사라지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어머니, 어서 들어가십시오.》

앞에서 짐을 맞든 아이들이 서혜숙의 손을 이끌었다. 아이들과 함께 들어서던 서혜숙은 방 한가운데 차려놓은 류다른 상을 보고 금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뭐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는 어머니앞에 라일이가 조용히 나섰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생일날이에요. 자식들이 많다니니 우리 생일은 꼭꼭 차려주면서도 어머니생일은 늘 번져왔지요. 저희들을 키우시느라고 10 여년이 넘도록 결혼식도 못하고 아버지와의

모여살았는데 이전 저희들도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머니생일날에는 저희들이 어머니의 결혼식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그 첫날옷을 갈아입고 우리 자식들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결혼식이라니?...》

서혜숙은 너무도 뜻밖에 닥친 일이라 멍하니 아이들만 번갈아 볼뿐이었다.

《혜숙동무, 아이들의 성의인데 어서 옷을 갈아입고 상에 나왔소.》

구역당책임비서가 서혜숙의 등을 떠밀었다.

《어머니, 어서요!》

아이들은 어머니머리카락에 붙은 검불을 뜯어내고 머리를 빗긴 다음 새 반희장저고리를 입히었다.

그리고 서리꽃처럼 하얀 장식꽃으로 온몸을 장식하였다

《그렇게 차리니 선녀갈구만!》

결혼식을 축하해주러온 사람들이 웃으며 한마디씩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큰 상에 나란히 서자 요란한 박수가 터지었다.

어머니의 눈귀에 서서히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어머니, 저희들의 밝은 웃음을 바라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고맙다! 애들아...》

둘러리려 선 충일기와 라일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피여올랐다. 밤마다 울고있는 아이들의 눈물 젖은 두볼을 닦아주며 따뜻이 품에 안아준 어머니... 울음을 달래느라 옛말을 들려주고 그 옛말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들어버린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오래오래 들여다보던 어머니... 그 아이들을 들여다보며 어머니는 이 애들모두를 옛말속에 나오는 착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곱게 곱게 키우리라 마음다지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결혼을 축하해서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는 밤길도록 찾아질줄 몰랐다.

## 4

라일군관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옛날부터 부모가 자식을 키워 결혼식을 차려주는것은 레사로운 인간론리이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결혼식을 차려주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인것이다.

《작가선생님,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 구실을 하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머니는 수많은 자식들의 투정질에도 노여움보다 먼저 마음편한 그들의 심중을 느끼며 위안을 찾았고 벗어던진 수십벌의 옷들을 빨면서도 훌륭하게 자라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한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바란 훌륭한 사람은 자식들이 앞으로 우리 장군님을 보위하는 선군시대의 총폭탄용사로 자라는것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철들자 서혜숙어머니는 군사복무를 하는 가정의 딸이인 다숙이 누이와 자주 편지런계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그를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다숙누이의 초소로 위문편지를 써보내게 했다.

아이들은 크면서 총대의 귀중함을 가슴깊이 새기었으며 모두가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을 가장 큰 희망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서혜숙어머니는 때 아이들의 수첩에 리수복영웅의 시를 적어주곤 했다.

《나는 너희들이 자라서 모두 리수복영웅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너희들이 육탄영웅, 총폭탄영웅이 된다면 이 어머니는 더 바랄것이 없다.》

어머니의 당부는 아이들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졌었다.

한아이, 두아이... 어느덧 라일이를 비롯한 큰애들이 서혜숙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날 그들을 배려주려 나온 어머니는 의젓한 라일이의 군복입은 모습을 보며 빼없이 손수건으로 눈귀를 짖었다.

아마도 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속을 태우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우셔요? 어머니...

...

리수복의 어머니처럼

장군님 기억하시는

그런 영웅의 어머니가 된다면

너를 두고 늘 근심으로 희여졌던 이 머리가 그 순간에 검어지리라

...

어머니! 우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압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 아들들이 가슴에 혼장을 가득 달고 돌아오는 그날을!》

끝내 어머니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그 눈물은 이렇게 성장한 자식들에 대한 대견함이었으며 긍지높은 자랑이었다. 또한 그 눈



물은 고향도 성격도 피도 다른 자식들을 하나의 무게로 달아 남부럽지 않게 조국에 바친 고결한 인간의 뜨거운 눈물인것이다.

한해, 두해,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 15 명이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초소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어머니는 자기의 편지와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편지를 함께 보내주곤 하였다.

라일군관은 품속에서 정히 쓴 가족사진 한장을 내놓았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앞에 주련이 서있는게 남아있는 동생들이고 어머니가 안은 이 애는 다속 누이의 아들애랍니다.》

사진을 받아든 나는 이윽도록 서혜숙녀성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안고있는 손자에게 무언가 속깊은 말을 하고있는것만 같은 그는 너무도 평범한 녀인이었다. 바로 이 평범한 녀인이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모성영웅》으로 온 나라에 알려진 서혜숙영웅인것이다.

《어머니가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도 걸고 축하전보도 쳤습니다. 그랬지만 어머니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볼 때마다 그리움은 더 커지지만 했습니다. 온 집안이 한번 모여앉아봤으면!... 우리 33 명의 형제들이 모여앉아본적은 단한번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군대에 나온 다음해도 새 아이들이 왔으니깐요. 꿈이었지요. 우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될줄이야!...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저희들의 이 소원을 헤아리시고 서혜숙어머니가 키운 33 명의 자식들이 모두 모여앉아 영웅이 된 어머니를 축하해주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복무중인 저와 동생들이 명령을 받고 이렇게 각기 집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랬됐군요.》

드디어 열차는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서혜숙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던 우리는 짐을 들고 승강구로 향했다.

《아, 저기 어머니가 마중나왔습니다. 저기!》

앞서가던 라일군관이 어린애처럼 환성을 올렸다. 그가 가리키는 역구내에는 영웅메달을 앞가슴에 단 서혜숙녀성이 아이들과 마중나와있었다.

《어머니!》

승강구에서 뛰어내린 라일군관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려는 순간 열차의 여기저기에서도 거의 동시에 젊은 군인들이 뛰어내리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두팔을 벌리고 마주오던 서혜숙녀성은 그만 열댓명의 군인들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저저마다 매달려 숨막히도록 포옹하고 끌어당기는 자식들에게 몸을 맡긴 영웅은 두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검실검실해진 자식들의 얼굴이며 찢겨벌어진 어깨의 령장을 어루 쓸었다.

《모두가 용쿠나!...》

《어머닌 또 우시네.》

두줄배기를 단 어느 한 딸이 뽀얀조로 나무라며 하얀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두볼을 닦아준다.

《그래그래, 림름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이 어머닌 그저 기쁘기만 하구나. ... 어머닌 너희들의 그 어깨의 별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때 제일 막내인듯싶은 작은 총각애가 형님, 누나들을 비집고 어머니앞에 나섰다.

《어머니! 나도 크면 형님, 누나들처럼 군대가 될테야!》

자랑스러운 그 애의 청높은 목소리에 온 가족이 소리내어 웃었다.

한옆에 선채 웃고 떠드는 그들을 지켜보는 나는 저도모르게 마음이 따듯해지는것을 느끼었다.

구김살없이 자라난 저 아이들!... 떠나갔다가도 다시 기쁘게 돌아올 집이 있는 저 아이들!...

진정 그 품은 그들을 키워준 한 어머니의 품이 기전에 조국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품이며 영원한 그들의 보금자리인것이다. 그 보금자리를 지켜 한생을 바쳐온 서혜숙녀성은 진정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시대 이 나라 어머니들의 참모습인것이다.

웃음소리가 떠들썩하는 가운데 건장해보이는 어느 아들인가 어머니를 업어보자고 등을 돌려대었다. 밝게 웃으며 그를 사양하는 서혜숙녀성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비졌다.

나는 오래도록 그들을 지켜보았다. 진정 그들의 모습은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시대의 참모습인것이다.

## 〈가사〉

# 내 고향 동구길

정성환

최전연 전호가에 밤이 깊어갈수록  
떠나온 동구길이 눈에 삼삼해  
영웅되어 돌아오마 굳은 맹세 다진 길  
충대너머 그 언제나 그려보는 길이어  
아 목숨보다 귀중한 내 고향의 길이어

준엄한 전선길을 걸으시던 장군님  
내 고향 동구길을 지나오셨네  
그이께서 고향소식 전하여주실 때

천리길 먼 동구길이 이 초소에 닿았네  
아 목숨보다 귀중한 내 고향의 길이어

이 나라 동구길 초소로 이어지니  
병사들은 고향집을 문앞에서 지키는듯  
맑은 하늘 푸른 들에 군공을 빛내며  
병사들은 금별달고 동구길을 걸으리라  
아 목숨보다 귀중한 내 고향의 길이어

# 길을 열이라

로완를

하늘이어 들어여  
길을 활짝 열이라  
양지바른 제대군인마을에서  
고고성 터친 운전수집 철남이  
오늘은 걸음마 타며 첫자욱 뎌다

행복과 기쁨이 태동하는 보조개  
옥같은 구슬이 반짝이는듯 한 눈동자  
장미같은 웃음이 넘쳐나는 방울입술...

젖살이 부풀어 사랑스러운  
그 작은 어깨에  
강성대국의 큰집을 벌써 떠메려나  
고사리같이 펼쳐든 그 손으로  
내 조국의 존엄을  
하늘가득 펼쳐보려나

하늘이어, 들어여  
길을 더 활짝 열이라  
새세기를 빛나게 장식할  
조국의 미래가  
백두대지를 구르며 길 떠난다

아기가 걸음마 옮기자  
온 마을이 경사난듯  
박수소리, 웃음소리...  
꽃구름에 실려

들가득 하늘가 저 멀리 울려퍼진다

아기야 너 지금  
옮기는 보폭은 크지 않아도  
네 발걸음 가닿을 곳은  
새세기의 령마루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

별이 비좁도록 가슴펴고  
힘껏 내짚어라  
프락토르로 별을 가꾸는  
네 아버지처럼  
드넓은 이 별을 마음껏 주름잡거라

아가야  
아장아장 그 걸음  
씨엥씨엥 내뻗쳐  
백두의 하늘아래  
세상에서 으뜸인  
사회주의 지상락원 꽃피우자

청고운 산새들아  
목청다해 노래불러라  
보통날 이 대홍단벌에서  
장군님식솔이 또 하나 늘어  
찬란한 미래를 향해 길 떠난다

## 선군이 낳은 전설

홍현양

### 눈내리는 다박솔초소

눈이 내린다  
송이송이 추억을 안고  
눈이 내린다  
송이송이 력사를 부르며  
다박솔 솔잎마다에  
고요히 내려앉은 눈송이

사락사락 속삭이는 그 무엇  
흰빛에 담아  
순결한 그리움을 안아  
그리도 뜨거운가  
위대한 사랑의 자욱우에  
희디흰 눈송이여

아, 송이송이  
내리는 눈송이에  
감겨드는 그리움은  
아버이장군님 모습  
그이의 어깨우에  
그이의 야전복 옷자락에  
스며들고 젖어들던 정월의 눈바람

피눈물을 안으시고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민족의 대국상을 안으시고  
아버이장군님 찍으신 선군정치의 자욱은  
설날의 다박솔초소

아, 그 무엇을 속삭이느냐  
송이송이 눈송이여  
아버이수령님께 바친  
자신의 한평생은  
《흰눈철학》과 같다 하신  
그 숭고한 뜻을 강산에 전하느냐

그 설날이 흘러  
선군정치의 피어린 자욱  
다박솔그루마다에  
하많은 사연을 없으며  
순결한 그 흰눈이 내린다

쌓이고 또 쌓이는

희디흰 눈송이  
불멸의 위훈을 수놓으며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다박솔마다에  
《흰눈철학》을 기념비로 새긴다!

### 병사들 마음속에 있는 말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것  
어머니와 아들딸  
그 살뜰한 정속에  
씨앗처럼 묻고사는 그 말은  
병사들 심장속에 있더라

따뜻한 아래목  
고향의 어머니 품을 떠나  
중대의 병실에  
나란히 누워 잠들 때도  
병사는 마음속 그 말을  
언제나 총대에 채우고있거니

한모금 웅달샘으로  
마른 목 추기는 훈련의 산정에서도  
흐르는 땀방울속에 맺혀  
끓는 피처럼 식지 않는 그 말은  
불타는 락동강  
피물에도 격랑쳤더라

총대에 채워져있는 병사의 말  
그것은 죽음과 삶  
이 두 계선에서  
병사가 자기의 모습을 찾는것  
병사가 자기의 위치를 아는것

이것을 알기에  
병사는 그 뜻을 지켜  
터지는 수류탄도 한몸으로 덮어  
전우들을 살리고  
최후의 순간에 웃음으로 남기더라  
아, 병사의 그 말을

하나의 숨결로 합쳐지고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병사의 크나큰 그 심장

병사의 마음속 그 말은  
태양을 걸사옹위하라!  
바로 그 웨침이더라

병사는 마음속 이 말을  
총대에 장란하고 살더라  
그래서 병사의 이 말은  
수호자의 군복에서  
언제나 백두의 향기로 날리더라

## 전선길

길을 바라보면  
그 끝이 어딘지 알수 없어라  
고개너머 또 고개  
병사들이 살고있는 초소들을  
이 나라의 산발들이 다 알고있어라

길은 뻗어  
느티나무숲속에 묻혀  
병사들이 떠나온 고향마을  
어머니 계시는 그 토방우에  
사랑으로 닿아있는  
생의 피줄기

지난날 나라 잃고 집 잃고  
삶의 보금자리 없을 때  
길은 슬픔의 작별  
길은 피나리보짐우에 아리랑눈물  
가도 가도 깃들일 곳 없던  
망국노의 운명

그러나 오늘의 길은  
천리전선길  
어버이장군님  
눈비를 맞으시고 비바람 헤치시며  
굽이굽이 칼벼랑  
최전연고지들에 오르시여  
목숨으로 사수하신 조국의 운명

아, 이 길에  
최고사령관의 웨기밥  
전설로 눈물겨웁고  
이 길에  
병사들과 같이 나누신  
한공기 죽이  
고향집사랑으로 우등불가에 따스해라

길이여  
사연많은 전선길이여  
그 누가 알아줘도 몰라줘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실  
그 신념과 의지를  
조용히 노래에 담아 부르시던  
장군님의 맹세가 끝없는 네가 아니더냐

다시는 류량의 길  
다시는 노예의 길을  
허용할수 없으시여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으로 넘으신 철령에  
전설로 만발한 철쭉꽃들

사연도 깊어라  
끝은 끝마다  
전설로 울리는 울림폭포의 메아리  
그 메아리 올라가는 이 나라의 모든 길들은  
우리 장군님 밟으신 전선길

## 옥류관의 늦쟁반

옥류관의 해빛밝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물결  
대동강의 풍치앞에 황홀했다가  
식탁우에 놓이는  
늦쟁반의 눈부심에 꿈인가 했습니다

어버이장군님  
찬바람에 야전복자락 날리시며  
고지에서 고지에도  
눈덮인 전호속에  
병사들과 함께 계시는데  
늦쟁반에 담긴  
옥류관의 뽕면을 받아안은 우리 마음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귀여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속에 있듯이  
아, 이 늦쟁반  
장군님은 전선으로  
인민들은 옥류관으로 불러주신  
태양의 봄빛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전선길  
병사들과 군감자를 드시면서도  
최후에 웃는자

그 승리를 보시며  
우리 장군님  
옥류관의 랭면을  
늦쟁반에 향긋이 인민에게 주셨습니다

옥류관의 식탁앞에 앉아  
늦쟁반  
옥류관의 랭면맛을 보며  
선군의 향취  
장군님의 사랑에 울었습니다

아, 장군님은 전선으로  
장군님은 험한 그 길에 계셔도  
인민들을 행복의 식탁앞에  
인민들을 한식술로 앉혀주셨습니다  
창밖의 대동강물결도  
그래서 흐느끼는듯 눈실댕니다

나무여, 선군조국의 노래로 설레이라  
산에 들에 자라는 나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있다  
이 땅에 뿌리를 소중히 내리워준  
그 사랑  
그 햇빛이  
움트는 새싹의 푸른빛이다

우리 장군님  
병사들과 같이 봄날의 나무를 심으실 때  
우리  
눈시울 적시며 새겨안지 않았던가  
아, 《사향가》  
조국과 고향에 대한  
빨찌산사랑의 노래를

백두밀림 우등불가에서  
조국을 그리며 부르시던 그 간절함  
그 사랑이 노래로 들려왔다  
우리 장군님 한삽 두삽  
나무의 뿌리를 덮어주시는 그 손길에  
사랑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 내렸다

피로써 찾은 조국을  
피로써 지키는 결사전의 나날  
우리 장군님은 장자산에  
두그루 잣나무도 심으시였거늘

푸른 숲의 설레임이 노래이던가  
노래가 밀림의 설레임이던가  
우리 장군님

선군의 길에서 뿌리 내리워준  
그 한그루 나무가  
만경대고향집 프락의 두그루 백양나무  
그 푸른빛으로 흐느끼는듯

나무는 노래를 안고있다  
나무는 인생길을 새기고있다  
우리 장군님 심으신  
한그루 한그루 나무는  
만경대고향집 그 푸른빛의 설레임  
백두밀영고향집 그 밀림의 설레임

노래도 그 푸른빛  
나무도 그 푸른빛의 노래  
백두산에서 그리움을 아신  
그 손길이 심고 가꾼  
이 땅의 나무들에 조국이 있다  
이 땅의 나무들에 고향이 있다

우리 장군님  
야전복을 입으시고 심으신 나무여  
우리 장군님  
우리 수령님과 함께 심으신  
그 나무들이 밀림으로 설레이  
우리에게 조국이 된 이 땅이여

나무는 심어준  
그 사람의 마음이라 했더라  
우리 장군님 심으신  
그 나무는 아이들이 따먹을 열매  
만경대가문의 마음  
우리 민족의 무궁할 래일

노래가 들려온다  
밀림이 설레인다  
이 땅의 나무들은  
만경대에 뿌리를 내렸고  
백두밀영 밀림의 씨앗에서 움터 자란것  
우리 장군님은  
그 푸른빛을 강산에 입히신다  
선군의 총대로 가꾸어가신다

사람들이여  
전선길에 뿌리내린  
우리 장군님  
병사들과 함께 심으신 나무를  
선군조국의 노래로 안으시라  
그 년륜에 충성의 나이를  
자자손손 새기시라!

# 내가 아는 그의 모습

리진철

우리 장군님  
선군시대 숨은 영웅으로 내세워  
온 나라가 다 아는 김사명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머리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른아침 봄비는 출근길도  
하많은 생각속에...  
깊은 밤 늦은 퇴근길도  
끝나지 않은 사색속에...  
습관인듯  
숙이고 산 머리입니다

시련의 나날  
불꺼진 거리를 지날 때  
벗어선 공장에 다녀왔을 때  
더욱 깊이 숙여졌던 머리  
곧추 쳐든 머리로는  
시련의 길 헤쳐가는 어머니조국의  
그 피로움 다 헤아릴수 없어  
그렇게 머리숙이고 산것입니까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가는 조국의  
과학자된 량심으로 무겁고  
쫓는 해, 뜨는 달도 따라서지 못할

끝없는 사색의 흐름우에 가득히 실린  
창조의 세계로 무겁고

하여 남들은  
머리 쳐들고도 바라보지 못한  
과학탐구의 봉우리에 그는  
머리 숙이고도 올라설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색 바쳐진 곳들에서  
최첨단공학기계를 줄지어서고!  
우리 장군님 기쁨의 미소 없으시고!

품고 산 마음 대견해  
안아올린 열매 소중해  
조국은 금별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었던만  
그때에도 그는 머리를 숙였으니  
더 일찍 이루지 못한 자책속에  
숙여졌던 과학자의 량심입니까

오늘도  
그는 조용히 머리 숙이고  
우리앞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머리 숙이고 산 날과 달우에  
조국의 키는 더욱 커갈것입니다  
조국의 웃음은 더욱 밝아질것입니다

## <가사>

# 안녕하십니까

박천걸

해쫄는 아침이면 일터로 가며  
서로 서로 다정히 인사들 나누네  
따뜻한 눈빛에 웃음 지으며  
살뜰한 정을 담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만나도 처음 만나도  
형제처럼 이웃처럼 다정하다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목소리로  
기쁜 마을 가득 담아 안녕하십니까

일심단결 내 나라 화목한 대가정  
어디 가나 뜻이 같아 정다웁다네  
혁신의 위훈과 건강을 바라며  
친근한 정을 담아 안녕하십니까

# 원군길

최인덕

땅우에 길은 많아도  
걸을수록 영광 넘치고  
갈수록 승리의 길인  
그런 길이 이 땅에 있어라

눈비를 맞으며 걸어도  
자욱자욱 행복의 꽃이 피고  
그 자욱 락엽에 묻혀도  
조국이 기억하는 성스러운 길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우리 장군님 계시는 전선길로  
우리 장군님 병사들 있는 초소로  
온 나라 마을 달려가는 원군길

조국의 북단에서 분계연선까지  
그 어디에나 뻗어가는 원군길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길에  
운명을 함께 하는 조선의 길

늙은이도 젊은이도  
너인들도 아이들도  
보폭을 맞추는 발걸음소리는  
이 땅에 메아리치는 원군대교향곡

얼마나 미더운 모습들이냐  
분려보는 원군선구자들의 이름마다엔  
선군시대가 비껴있고  
원군력사가 안겨오나니

총대는 사랑, 사랑은 총대이기에  
도시쳐너들 최전연초소의 군관의 안해가 되고

영예군인 안해가 된 그 모습은  
선군이 가꿔준 원군의 붉은 꽃

아, 항일의 그날에 시작되고  
전화의 불비속에 다져진 길  
오늘은 온 나라 길마다 원군길 되고  
원군대오가 굽이쳐흘러라

축복을 받으라  
원군길을 운명의 길로 정하고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고 누이가 된  
이 나라의 녀인들이여

축복을 받으라  
붉은넥타이 원군길에 날리며  
원군의 대를 이어가는  
미더운 아이들아

원군이 가풍이 되고  
원민이 전통이 된  
군민일치가 애국의 나날로 빛나는  
나의 조국

아 이 땅에 열린 모든 길은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의 길 따라나선 원군의 길  
조선이 가는 영광의 길이거니

선군길 원군길은 운명의 길  
선대가 걷고 우리가 걷고 후대가 걸을  
조선의 영원한 군민일치길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여라!



# 위대한 선군년륜이여

리 실

창조와 위훈의 하루를 새겨안고  
찬란한 래일을 부르며  
선군혁명총진군의 열풍  
거세차게 타번지는 이 땅

아직 대지엔 정적이 깃들고  
별무리 흐르는 이 새벽  
봄빛 넘쳐나는 정다운 일터를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이 땅에 새겨지는 년륜을

그러면 안겨와라  
한가슴에 넘쳐나 가슴 터질듯  
백두의 총대  
백두의 붉은기  
더 높이 추켜드시고 새겨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이

선군으로 날이 가고  
선군승리로 빛나는 날과 달  
이 땅에 흐르는 하루하루는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로 이어지는  
뜨거운 선군세월

우리 어찌 잊으랴  
설날만이라도 쉬여주시기를 바라는  
천만군민의 간절한 소원도 뒤로 미루시고  
소문도 없이 찬바람부는  
북방의 공장길 걸으시며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말씀

그전에는 수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주었으면 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조국과 인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아, 오직 수령님 안녕만을 위해  
흐르는 초침소리도  
마음속에 안아  
천날 백날로 새겨가시더니  
오늘도 그날처럼  
조국과 인민 위해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  
그 불면불휴의 로고여

우리 장군님의 혁명시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한초는  
조국수호의 한시간  
조국변영의 한시간

백날 삼아  
천날 삼아  
맞고 보내시는 그 한초에  
천만년 찬란한 래일이 마주온다  
조국의 새 력사가 펼쳐진다

아, 영광빛나라  
위대한 혁명시간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년륜이여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이여!

## 경구, 격언

- 문체는 심장을 실수없이 찌르는 단도이다.
- 얼굴이 붉어지는것은 인간의 모든 속성들이  
운데서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인간적인것이다.
- 한번 출판된것은 영원히 전세계의 소유물로

된다.

-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칭찬하는것마저 잊  
어버릴 때만이 참답게 칭찬하는것이다.



김영선

1

네귀가 번듯하게 들린 합각지붕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 모락 피어올랐다.

미닫이문의 넓은 유리창들에 노을빛이 어리자 집주변의 과일나무들사이를 감돌던 넓은 안개는 씻은듯이 사라졌다.

어느 집에서인가 청종은 수탉이 《꼬끼요-》하고 울어제끼자 돼지들은 먹이를 내라는듯 골골거리고 덩달아 염소들도 짧은 꼬리를 성급히 저으며 매매거리었다.

살찐 닭들은 모이를 찾아 뚝에서 후드득후드득 날아내리는데 계사니들은 주둥이를 거만하게 쳐들고 퐁기적퐁기적 마당을 거닐었다. 게으른 오리들은 그제야 느릿느릿 잠자리에서 기어나왔다.

집집의 마당들에는 삼시에 집짐승들로 가득차다.

록음기의 경쾌한 음악소리와 아침먹이를 찾는 집짐승들의 각이한 울음소리로 샘골마을에는 새날의 활력이 차넘치었다.

일매지게 정리한 백헥타르밭을 돌아본 나는 한동안 밭을 잃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해마다 알곡생산은 물론 돼지기르기에서도 널리 소문난 샘골마을은 집집마다 세칸짜리 온돌방에다 현대적인 세간살이들이 그ռռ하게 갖추어진 마을이다. 어느 집에서나 고기 그리운줄을 모르고 산다.

옛날에는 강냉이타개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거지골》이라 불리우던 이 마을이 오늘은 살기좋은 마을로 되기까지에는 이곳 작업반에서 수십년간 반장을 하다 세상을 떠난 로력영웅 류근혁의 남모르는 수고와 정성이 깃들어있었다.

지금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딸 류은아가 작업

반장을 하고있었다.

내가 샘골작업반에 취재다닐 때 은아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였으므로 얼굴이나 익힌 정도였다.

그러나 류근혁에 대하여서는 이웃에 산 사람 못지않게 잘 알고있었다.

류근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돼지기르기를 잘하여 해마다 두엄생산을 많이 하여 작업반장을 하던 전기간 농장적으로 소출을 제일 많이 내는 작업반으로 돼지고기생산은 군적으로도 제일 앞장선 작업반으로 소문나게 하였다.

나는 여기 작업반에 대한 기사를 여러건 썼으며 그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사진까지 받쳐 신문 한면에 대서특필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1211고지에서 영웅적으로 싸웠고 반장사업을 하면서는 말보다 실천으로 작업반을 이끌어가던 류근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여러번 취재하는 과정에 정이 들었던것이다.

그뒤 은아가 반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찾아올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궁금하던중 어느날 우연히 열차칸에서 신대승을 만난적이 있었다. 류근혁이가 애착을 가지고 키우던 총각분조장이었다.

기쁜 상봉에 이어 내가 은아에 대해 묻자 뜻밖에도 대승은 낯색이 달라지며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슬금슬금 에둘러 물으니 그는 은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것이였다.

제대되어 청년동맹사업을 하다 작업반장이 된 은아는 아버지가 수십년간 이루어놓은것들을 모조리 뒤집어엎는다는것이였다. 백헥타르 밭이랑들을 모두 다시 재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고양이손도 빌려 써야 할 바쁜 농사철에 강냉

이발최족을 말끔히 없애자고 달라붙고 심지어 아버지의 땀과 땀이 깃들어있는 돼지우리까지 헐어버리려고 덤빈다는 것이었다.

대승은 은아가 끝까지 현실성없는 고집을 부리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대승의 말을 들으니 은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뚝뚝하면서도 인정깊던 류근혁의 모습이 측은하게 안겨왔다. 그가 살아서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아프겠는가.

나의 뇌리에는 언제든 은아를 한번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때마침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영예군인이 된 총각한테 시집오는 사촌동생 결혼식때문에 샘골마을 이웃동네에 왔던 나는 은아를 만나볼 기회가 마련된 것이 다행스러웠다.

은아가 도에 있는 감자조직배양공장에 갔다가 오늘 돌아온다니 그를 만나 말을 좀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백택타르발로 나왔던 것이다.

천천히 등판을 내리던 나는 《선군혁명의 준마라고 질풍같이 달리자!》는 큼직한 구호판이 서있는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기자동무가 아닙니까?》

반갑게 웨치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리었다. 키는 별로 크지 않으나 다부지게 생긴 신대승이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고 급히 다가왔다. 우리는 반갑게 상봉하였다.

《그사이 왜 발길하지 않았습니까?》

대승의 목소리에는 원망기가 어려있었다.

《두루 일에 몰리다보니 그만...》

《어쨌든 잘 왔습니다. 며칠 놀러계십시오.》

대승을 마주하니 그와 열차칸에서 만났던 생각이 떠올랐다.

《아직 분조장을 하오?》

《안할수 있습니까, 여전히 1분조장입니다.》

《그렇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구분조장이란 누구요? 분조장들이 더러 바뀌었소?》

잠전에 두엄을 내는 청년들의 일손을 도우며 누구네 분조인가 물었더니 구분조장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전에는 구가성을 가진 분조장이 없었다.

《구분조장이요? 허허...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역시 기자동무의 안테나가 높긴 높군요. 내가 구분조장입니다.》

《뭘요? 동무야 신대승이 아니요?》

《신대승이가 구대승이로 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헛참, 무슨 소리인지...》

나는 얼퍼름해서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왜서인지 서글픈 빛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총각이지만 나를 대승분조장이라고 각듯이 존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무슨 일이나 대승이가 나서면 안되는 것이 없었다. 그 누구한테 저본 적이 없고 이름과 일습씨가 꼭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큰대승이라 하였다.

해마다 두엄생산으로부터 씨불임, 김매기는 물론 가을걷이까지 대승이에 분조를 따르는데가 없었다. 어느해인가 군적인 씨름경기에서까지 1등을 하여 누구도 대승이하고는 겨루어 볼 엄두를 못냈다. 샘골작업반에 대한 기사에는 류근혁과 나란히 신대승의 이름도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구대승이가 되고말았지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 대승은 주근주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대승은 속이 울컥해졌다. 최족에서 풀을 뜯던 늑집 염소가 1분조강냉이 몇포기를 뜯어먹은 게 무슨 큰 범죄나 되는 것처럼 은아가 작업반원들 앞에서 열을 올리며 비판한 것이다.

며칠전 은아가 옷발과 아래발의 높낮이가 심한 최족을 없애자고 할 때 귀등으로 흘러보냈더니 보복을 하는 모양이었다. 농사군이 난알 한포기라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강냉이모를 옮기고 한쪽으로 빈포기를 찾아 보식해야 하는,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써야 할 때에 꼭 일을 벌려놔야 옮겼는가, 게다가 전번 발정리를 할 때 발이랑을 짜면서 빗반사요, 통풍이요 하면서 까다로운 리론을 내놓고 원래 이랑들을 말끔히 고쳐 짓다나니 한숨 실 사이도 없이 강냉이 모심기에 얽어질듯 하면서 들어선터이다.

그런데 또 최족을 헐어내는 일을 벌려놓자고 접어드니 의견인들 왜 없으랴...

제대된지 몇해밖에 안되는 그가 농사일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벌써부터 큰소리인가, 농장대학에 다닌지 이제야 3년남짓한 처지에... 거기에도 그래도 작업반의 기동분조장인 자기를 반원들 앞에서 망신시키야 올단 말인가. 화가 폭뒤편까지 치민 대승은 점심때가 되자 은아가 찾는 데도 못들은척 하고 집으로 들어와버리었다. 방북판에 드러누운 그는 어머니가 들어오기만 기다리었다. 한시가 지날 때까지 기척이 없어 벌떡 일어난 그는 뒤울안에서 실한 강냉이모를 푼푼히 떠가지고 집을 나섰다. 치마두른 반장한테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심어놓아야 하였다.

얇은 등성이밭을 지나 염소를 땀던 최족으로 다가가던 그는 아연하여 그 자리에 굳어졌다. 작업반원들모두가 달라붙어 자기네 분조 최족을 뭇 땅 뒤집어엮고 거기에 강냉이를 심느라 왈작 뿜

고있었다.

그속에서 은아의 말소리가 대승의 가슴을 아프게 긁어내리었다.

《최뚝이 다 없어지니 얼마나 시원해요. 최뚝은 네땅, 내 땅 가르던 낡은 사회의 유물이예요.

토지정리는 논만이 아니라 밭도 해야 돼요.

보세요. 백헥타르밭에 풀나오는데가 아예 없어지니 그대신 나라에 낱알 한줌이라도 더 보태게 되지 않았나요. 옳은 일은 언제나 우물쭈물 할 것이 없이 단숨에 해제껴야 속이 시원하지 그것이 옳다는것을 알면서도 속에 넣어두고 바재이면 그만큼 속이나 상할거예요.》

절반 웃음섞인 은아의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판이 터졌다.

《옳수다. 반장이 백헥타르땅에 남아있던 낡은 유물을 말짱 들어내서 속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지금껏 더 거둘수 있는 낱알을 아까운줄 모르고 흘린 우리 종아리를 제때에 쳐주니 더 옳수다.》

대승이네 분조 박명감이 하는 말이었다.

또 한번 웃음판이 터치는데 그속에서 은아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럼 오늘처럼 온 작업반이 하루 한두시간씩 달라붙어 래일은 2분조, 모래는 3분조 하는 식으로 최뚝을 말끔히 없애버리자요.》

모두가 호응한다.

《여 신분조장, 왜 망두석처럼 멍청히 서있나? 손에 든것두 마저 심어야지.》

대승을 발견한 5분조장이 소리쳤다.

《신분조장은 무슨 신분조장이요. 낱아빠진 구분조장이지.》

누군가의 말에 폭소가 터졌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대승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때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도 모욕받은 아픔이 더 컸지요. 류근혁반장같으면 그런 식으로 아래사람을 대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조용한데 불려다놓고 충분히 깨닫도록 일깨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인이 된 반장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그리움이 되살아나는지 고인의 묘가 자리잡은 뒤산을 추연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분조장동지-》

뒤머리를 강동하게 졸라맨 애된 처녀가 뛰어왔다. 아까 포전에서 만났던 처녀였다. 그는 나를 보자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보이고 대승이앞으로 다가갔다.

《저... 11호 두엄더미것두 덕골포전에 다 내아지요?》

《그럼, 말끔히 내야지.》

《그런데 창일동무는 계획톤수가 훨씬 넘는다면서 조절하잡니다.》

처녀는 안타까운듯 두손을 맞잡고 발까지 굴렀다.

《저 동무들이 새벽작업을 하다 의견상이가 생긴 모양인데 내가 나가봐야겠습니다. 기자동무는 우리 집에 먼저 가계십시오.》

대승은 몹시 미안해하였다. 내가 어서 가보라고 하자 그는 처녀가 사라진쪽으로 급한 걸음을 놓았다.

## 2

나는 돼지우리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류근혁이가 반장을 할 때에도 두엄을 많이 내었는데 앓그루 감자농사를 위해 그보다 곱절이나 더 낸다니 잘 믿어지지 않았다.

《위생 또 위생》이라고 쓴 축산분조 정문앞으로 다가가던 나는 맑은 물이 출렁이는 도랑에서 남새를 씻고있는 녀인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사료조리공 초옥이 어머니가 분명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다가가자 초옥이 어머니는 물물은 손을 털며 엉거주춤 돌아보았다.

《아니, 이게 누구요? 기자선생이 아니시오?》

초옥이 어머니는 반가와 한손으로 끄당기는 시늉을 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사이 몸이 더 난것 같습니다.》

딸 초옥은 무우밀같이 쪽 빠지었는데 어머니는 호박같이 동실동실하였다.

《몸 나불 째이나 있는줄 알아요. 매일 팽이돌듯 해두 시간이 모자라요.》

초옥이 어머니는 말쑥해진 시래기를 또다시 물에 행구었다.

《돼지먹일걸 이렇게 깨끗이 씻는가요?》

《청결임한 무우임은 세번이상 씻어야 합격이래요. 돼지두 생명가진 놈이니 사람이 먹는 음식과 꼭같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나요.》

《축산분조장의 요구성이 보통 아닌 모양입니다.》

《아이구, 분조장이 그러면 낫거나 하게요. 처녀반장이 더 해요. 인정사정 있는줄 알아요. 이거 하면 고거 하재, 고거 하면 저거 하재, 끝이 없어요. 우리 반장은 돼지우리에 비닐테자를 깔아주면 춤을 출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손을 어찌나 재게 놀리는지 무독히 쌓였던 남새가 말쑥해졌다.

《여기 돼지들은 대우가 높아진 모양입니다.》

《높아두 대단히 높아졌지요. 돼지죽을 푹 끓여놓으면 나도 군침이 돈다니까요. 하긴 우리 반장이 어데 가서 적어왔는지 두툼한 수첩을 펴놓고

돼지생육조건이니 먹이배합비율이니 하면서 하나 하나 깨우쳐준 덕이지요. 그러면서도 반장은 우리가 일찍 새로운 돼지사육방법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안타까와하지 않겠나요.

그다음부터 반장은 노상 돼지우리에 나와 살았지요. 제자신이 돼지죽도 끓이고 돼지관리도 하면서 말이지요. 그걸 보니까 자책이 크더군요.

지난날 되는데로 경험만 가지고 돼지관리를 해오던 일들이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슬그머니 내이젠 돼지관리공을 못하겠다고 하니 반장은 우리 돼지들이 초옥이 어머니가 끓여주는 죽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며 울상을 지어보이지 않겠나요. 그리고 나를 사료관리책임자로 내세워주더군요....

《허허...》

나는 그전보다 몸이 더 뚱뚱해지고 사료책임자로 승급한 초옥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어버리고 말았다. 하얀 비닐박막우에 무드기 쌓아놓은 청신한 남새를 바라보던 나는 먹이해결은 고기생산이며 두엄생산은 난알생산이라던 류근혁의 말이 생각났다. 그와 함께 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당했던 다리를 불편하게 끌며 남 다 자는 깊은 밤에 멀리 강변에 나가 돌을 주어들어 돼지우리를 한칸한칸 늘여온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꾸러진 돼지우리덕을 이곳 사람들은 툭툭히 보아왔다.

그런데 아버지의 공적이 깃들어있는 돼지우리를 은아가 하루아침에 헐어버리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통에 작업반사람들의 말밥에도 오르고 대승이와는 대판들이 충돌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돼지우리는 예전 그 자리에 있었다. 외랑식이 립체식으로 그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진것을 보면 은아가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운 모양인데 대승의 립장은 어떠했는지 궁금하였다.

《은아반장과 대승분조장은 서로 화해했습니까? 돼지우리사건으로 단단히 격셨는지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옥이 어머니는 손부터 내저었다.

《아이구, 말두 마시우. 그땐 무슨 일이 나는줄 알았수다. 괜히 우리 초옥이까지 껴묻어가지구...》

《초옥이도 말밥에 올랐겠습니까?》

《말밥정도가 아니지요.》

씻어놓은 남새를 버치에 담던 초옥이 어머니는 그때의 흥분이 되살아나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은아반장이 아버지가 아글타글 꾸러놓은 돼지우리를 헐어버리려고 할 때 말들이 많았지요. 나도 은아반장의 겸손치 못한 처사에 불만이 가득했었으니까요. 그것도 앞그루 감자파종이 당장 박두한 때에 말이요. 그러니 대승이 그 사람이야

오죽했을까구요. 필사적으로 막아나섰지요. 돼지우리를 그만큼 꾸리느라 근혁반장과 작업반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은아반장이 알력이 있나요.

바로 여기 사료조리장앞에서 은아반장과 대승분조장이 대판 붙었었수다....

...참나무토막처럼 단단하게 생긴 대승은 두다리를 버티고 서서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은아의 얼굴에 구멍이라도 낼듯 쏘아보았다.

은아는 도톰한 입술을 꼭 깨문채 까딱 않고 서 있었다.

《돼지우리를 왜 헐지 못해 몸살이요?》

《났았어요.》

《났았다... 어째서?...》

대승은 입귀를 일그러뜨리며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은아는 콧꽃해진 눈길을 대승에게 견주며 또박 또박 그루를 박듯 말했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면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해요.》

대승은 뒤집을 짓고 천천히 은아의 앞뒤를 빙 돌았다.

《동무는 저 돼지우리에 아버지의 땀이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 알기나 하오? 그래서 우리 작업반 사람들이 저 돼지우리를 보며 어떤 각오를 다지는지 알기나 하오?》

한참후에 약간 갈린듯 한 은아의 목소리가 대승의 귀전을 쳤다.

《저도 알고있어요. 그래서 헐어버리자는거예요.》

대승의 눈은 그말에 화등잔처럼 커지더니 저오기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떨구었다.

《이 사실을 동무 아버지가 안다면...》

은아는 쌀쌀하던 눈길을 아래로 떨구며 입술을 꼭 옥물었다.

《그 말은 그만 하자요. 동무도 작업반실 벽에 내붙인 새로운 돼지우리전경도를 보았겠지요.》

대승은 은아를 곳곳이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봤소. 그리고 동무가 며칠전 밤을 새우며 도에 새로 꾸러진 돼지목장을 다녀왔다는것도 알고있소.》

은아는 대승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조금 높아진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두벌농사를 잘 짓자면 거름이 지금의 두배는 더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돼지우리를 새로 짓자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요구예요.》

대승은 이내 머리를 가로 저었다.

《아니, 지금은 년중 제일 바쁜 영농기요. 자칫하면 한해농사를 망칠수 있소. 이전 최뚝이나 헐

어내는 일하고는 전혀 다르오. 돼지우리문제는 후에 토론합시다. 부족한 거름문제는 내가 시대에 들어가 실어내오는것으로 보충합시다. 덧붙힌다면 우리 작업반은 류근혁작업반장이 있을 때부터 한번도 알곡생산계획을 드린적이 없는 작업반이요.》

그만에야 은아의 격한 음성이 대승의 말을 가로 막았다

《그만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어요. 이전 시대가 요구하는거예요. 부단히 전진하고 혁신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하루도 주저앉아있을 권리가 우리에게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류근혁의 딸이라는걸 명심하세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자 은아는 돌아서 가버렸다. 대승은 격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은아 잔등에 못이라도 박듯 쏘아보았다.

(흥. 딸이라구...)

그날 작업반 달구지들을 몽땅 끌고 읍에 갔다 돌아온 대승은 미칠것 같았다. 은아를 따라 청년동맹원들이 두줄로 길게 지었던 돼지우리를 몽땅 헐어버렸던것이다. 대승은 폐허가 된 돼지우리 앞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당장 많은 면적의 밭에 감자종자를 묻어야겠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려놓다니?!

그러다 적기를 놓쳐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대승은 그달음으로 은아를 찾아갔다. 집에는 어머니밖에 없었다.

불몽치가 태동하는 가슴을 안고 돌아선 그는 때마침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는 초옥이를 만났다. 초옥은 작업반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였다.

《동무네가 돼지우리를 헐었소?》

서리찬 대승의 눈길에 여기가 질린 초옥은 얼굴색이 굳어졌다.

《농장 청년동맹비서동지가 앞장서서 동맹원들과 함께...》

대승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흥, 반장이 청년동맹비서동무를 찾아갔었던 말이지...》

하긴 제대군인출신의 열정적인 리청년동맹비서와 은아는 한부대출신으로 각별하다는 말을 들어오던터이다.

《어쨌든 작업반농사가 제대로 안되는 날에는 동무도 같이 책임질줄 아오.》

초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무말도 못하였다...

《그날 대승이 그 사람은 반장과 대관들이로 싸우고 은아하고는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까지 하였지요.

에그머니, 이 정신 좀 봐. 말장단에 시간가는줄도 몰랐군.》

초옥이 어머니는 넘쳐나게 담은 남새버치를 닝큼 이고 조리실로 황황히 사라졌다.

《여기 있는걸 찾았군요.》

범도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대승이가 다가왔다. 초옥이 어머니는 그가 나타나자 자리를 피했던것이다.

《갑시다. 우리 집 구경도 해야지요.》

나는 대승이가 끄는대로 따라갔다. 초옥이 어머니한테서 들던 이야기의 매듭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서였다

샘골마을을 어느 집이나 그러하듯 대승이네 집마당에도 집짐승들이 욕실거리며 발 옮길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소담한 닭알을 무독히 담아두고 닭우리에서 나오던 안주인이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으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였다. 마주 인사를 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초옥이였던것이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후에 하고 식사나 합시다.》

대승은 초옥이가 눈짓하자 하려던 말을 중등무이하고 미닫이문을 활짝 열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양어장가운데 다람이네 집처럼 캄캄하게 지은 정각으로 올라갔다. 해바라기를 하느라 물우에 떠올라 서서히 헤엄치는 잉어들이 어찌나 크고 살이 졌는지 보기만 해도 흐뭇하였다.

《반장이 오면 인차 물고기를 잡아 반원들에게 나누어주자는겁니다.》

《얼마씩이나 차례질것 같소?》

《발전소건설장에 뒤통 지원하고도 세대당 10키로씩은 돌아갈겁니다.》

《대단하구만.》

《여름 한철에는 메기를 넣어 속성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고기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겠구만.》

《더 말할게 있습니까.》

대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대승은 양어장을 자랑하고싶어 여기로 나온 모양이었다. 류근혁이가 반장을 할 때에는 여기가 퇴비장이였다. 마을에 들어서면 산더미같은 거름더미가 제일 먼저 눈을 끌곤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퇴비장이 포전머리로 나가고 양어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은아와 격했던 대승이가 그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어 그를 돌아보았다.

《돼지우리사건으로 해서 은아동무와 같이 일하

지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랬습니다.》

2층집처럼 덩실한 사료가공실과 잇닿아 《ㄷ》차형으로 새로 지은 돼지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대승은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가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여기를 뜰수 없었습니다. 영웅의 자취가 어려있는 이곳을 어떻게 뜨겠습니까.》

그러나 농사적기와 로력타산도 없이 일판을 곧잘 벌려놓곤 하는 반장하고는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말이 났으니 다른 일은 오늘 못하면 래일 미루는 식으로 할수 있지만 농사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새롭고 효율적인 일이라 해도 다 때를 봐가며 하는것이 랑패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아반장은 그 일이 옳고 실리적이려면 무슨 타산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곧 달라붙곤 하지요. 그게 내 마음에 들리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웅반장의 딸이 영웅의 공적을 허물어버릴것 같아서지요.... 그다음부터 나는 은아반장이 하는 일에 일체 참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때든 자기를 깨달을 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매일 저녁 돼지우리공사장쪽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보니 청년동맹원들이 저녁마다 돼지우리공사장으로 달려나가 밤늦게까지 일한다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작업반의 많은 농장원들이 은아반장을 따라 돼지우리공사에 떨쳐나섰습니다.

하루는 작업총화뒤끝에 요즘 청년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초옥동무가 벌떡 일어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조장동무, 할 말이 있으면 툭 빠개놓고 하세요. 밤마다 은아반장과 같이 돼지우리를 새로 일떠세우는 청년동맹원들이 아니잖다는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분조장동무도 돼지 우리공사장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요?>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찌나 크게 소리쳤던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통채로 물속에 잠긴듯 잦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옥동무는 내가 하는 일에 의견을 부린 적이 없고 언제나 앞장섰으므로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은아동무가 반장이 된 다음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초옥동무뿐만아니라 분조의 거의 모든 분조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작업지시를 주면 따져보고야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리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곧잘 은아반장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지어 젊은 분조원들은 은아반장의 말투와 거동까지 닮으

려하였습니다.

분조원들앞이라 나는 애써 마음을 자제하였습니다.

<초옥동무만 남고 돌아들 가시오.>

이쯤되면 나의 과격한 성격을 잘 아는 초옥동무이니 인차 뉘우칠줄 알았는데 그날은 제일 먼저 달아나고말더군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들었는지 먹었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초옥동무네 집으로 뒤쫓아갔습니다. 있을 게 뭘니까. 돼지우리공사장에서는 벌써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까지 짜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초옥동무가 동맹원들을 이끌고 돼지우리공사장에 나가는것은 우리 작업반 백헥타르포전의 농사에 큰 몫을 하는 돼지들을 한지나 다름없는 림시우리에 넣었으니 근심스러워 그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수십년간 이루어놓은 것들을 무시하는 은아동무를 따라가는수밖에 없다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본격만이 부각부각 차올랐습니다.

나는 리당비서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리당비서는 류근혁반장을 잊지 못해하며 그가 이루어놓은것들을 소중히 여기었으니까요.》

대승은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지 잠시 침묵하였다

나는 대승의 성격으로 보아 돼지우리사건이 무난히 끝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며 그의 다음말을 기다리었다.

《1분조장아저씨, 전화예요.》

양어장건너편에서 위생복차림의 보육원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예, 이제 갑니다.》

대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탁아소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그전에는 작업반실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탁아소로 옮긴 모양이었다. 모두 포전으로 펼쳐나섰으니 비우지 않는데가 탁아소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 3

나는 정각에서 나와 양어장주위를 천천히 거닐었다. 잉어들은 서로 비비적대며 떠오르기도 하고 곤두박히기도 하면서 부글부글 끓었다. 사람 그림자가 얼른거리니 먹이를 주려는것으로 안 모양이었다.

《기자선생님, 이걸 놓고 나왔습니다.》

초옥이가 다가오며 취재수첩을 내밀었다.

《이야기에 정신팔려 수첩 놓고 나온것도 모르고있었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까?》



초옥은 맑은 눈동자에 호기심을 담고 나를 바라보았다.

《초옥동무가 대승동무한테 돼지우리공사장에 나오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끝났던 이야기를 듣겠소.》

《그래요.》

초옥은 자기 말이 나오자 눈길을 떨구며 얼굴을 붉히었다.

《그날 우리는 자정이 지나 일을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승동무방에 불이 켜있지 않았어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동무들과 웃고 떠들며 일을 했는데 잠 못드는 대승동무를 대하고보니 너무나 야박하게 남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자책이 들더군요. 누군가가 저의 팔을 살며시 그러쥐길래 돌아보니 은아였습니다.》

<초옥아, 대승동무가 잠 못드니 가슴아프지?>

<아까는 내가 너무한것 같아.>

우리는 중학교를 같이 다녔기때문에 둘이 있을 때에는 너나들이로 말했습니다.

<초옥인 응당 해야 할 말을 했어.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귀찮은 말만 하면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수 있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돼. 우리 시대, 선군시대가 용납하지 않아.>

저는 은아의 말을 긍정하면서도 죄의식에서는 벗어날수 없었습니다.

<밤도 깊었는데 어서 가 자자.>

저는 은아의 팔을 끌었습니다. 요즘 은아가 많은 일을 벌려놓고 뛰어다니느라 너무 힘들어 자리에 들면 뒹아떨어지곤 한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좀 있다가 가자. 밤이 얼마나 좋니. 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들에서는 곡식 자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돼지들은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달라고 조르고...>

은아는 키낮은 담장에 기대어 은싸레기를 뿌려놓은듯 하늘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감상에 잠기는것이었습니다. 나도 그의 옆에 기대었습니다. 은아는 앞으로 돼지우리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기계화하여 일을 험하게 하면서도 돼지고기는 물론 두엄과 물거름을 두배, 세배 생산하여 감자농사 두벌농사를 본때있게 할 계획을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은아의 말을 들을 때면 막 힘이 나고 새로운 의욕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동안 지나 은아가 돌아가자고 하길래 대승동무방을 바라보니 불이 꺼졌더군요.》

《그 이야기를 대승동무에게 해주었소?》

《그 뒤에도 은아한테 꾸점없이 놀기에 말해주었지요 뭐.》

나는 초옥의 말을 들은 대승이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겠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돼지우리는 며칠만에 완공했소?》

《스무날만에 <새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동무가 끝내 손들고말았겠구만.》

《어쩔수 있습니다. 돼지우리는 립체식으로서 현대적이면서도 돼지를 굽은 더 기를수 있게 지었으니까요. 두벌농사를 하자면 모든것이 두배가 되어야 하니 새롭게 우리를 개조한것이지요.》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당에서 요구하는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은아의 그 투지가 마음에 들었다.

《저는 빨리 나가봐야겠어요. 점심때 우리 집으로 꼭 오세요.》

말을 남긴 초옥은 포전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조금 지나 대승이가 돌아왔다.

《관리위원회에서 반장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글쎄 말입니다.》

나는 은아가 인차 오지 못하면 랑패가 될것 같아 은근히 걱정되었다.

우리는 천천히 포전으로 향하였다.

《돼지우리는 스무날만에 새로 완공했다지요?》

내가 이렇게 말꼬지를 떼자 대승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때 저는 리당비서동지가 강습을 끝내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으나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승동무답지 않구만. 》

《그래서 구대승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대승이가 될 때는 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속이 풀리지 않소?》

나는 대승의 옆얼굴을 슬쩍 훑쳐보며 시까슬렀다.

대승은 《후-》하고 한숨만 내쉬뿐 대답을 못하였다.

《...어느날 아침 일찍 발에 나가 김을 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 돌아보니 은아동무가 호미질을 하며 따라오는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와 같이 일하기 멋적어 팔에 힘을 주며 호미질을 더 세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따라오고야말더군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호미질만 승벽내기로 했습니다. 얼마간 지나 은아동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왜 그래요. 신분조장이 아니라 진짜 구분조장이 되자는게 아니예요?>

내가 대책을 하지 않자 은아동무는 손을 짹게 놀려 나를 떨구어버려더군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은아동무의 일숨씨는 아버지때부터 물려받아 내려오는것이라

고 하는데 무슨 일이든 그를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랑끝에 나온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이마에 질펀히 내뺀 땀을 훔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앞에 빨간 도마도가 가득 담긴 구력이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마도라면 사축을 못쓰는지라 한알 닝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어떻게 생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두리번거리는데 2분조쪽으로 가는 은아동무가 보였습니다. 천근무게의 짐을 지고 가는듯 비척거리는데 그를 처음 본 나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눈에 비친 은아동무는 이악하고 걷는것이 아니라 늘 쿵쿵 뛰어다니었던것입니다. 금시 쓰러질듯 비척거리는데 그를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바위에 짓눌린듯 뼈근하게 아파났습니다.…」

대승은 한동안 말없이 자기 발끝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은아도 인간이니 어찌 지치고 힘들지 않겠는가. 군대에서 단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한개 작업반을 책임지고 뛰어다니자니 잠이 모자라고 피곤이 풀릴새가 없을것이다.

《…나를 생각해서 시작한 파실구력이 이제는 작업반원들모두를 위한것으로 되어 딸기철에는 딸기, 살구철에는 살구 사과, 배… 발머리에서 못 먹어보는 과실이 없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최특강생을 누구도 모르게 따로 수확해서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군에 회의갔던 반장이 돌아와 하루총화를 지으려고 모였을 때였습니다.

<1분조장동무, 최특강생이가 800키로 실히 되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800키로 하고 퍼그나 남았는데 반장이 그걸 어떻게 알고있단 말인가. 아연해서 말을 못하고있던 나는 분조장을 7년이나 했으니 5톤반이상의 난알을 풀발에 썩었다는 생각과 함께 시대의 요구에 발을 맞추줄 알아야 한다던 은아동무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나는 구분조장이 분명합니다.>

모두 웃더군요. 나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승의 말을 듣고보니 나 역시 은아에 대해 잘못 알고있던 사람들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침에 우리 처를 보고 놀랐지요?》

대승은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초옥동무하고는 언제 결혼했소?》

《저가락 짝을 못다 그렇게 뻘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나는 수탉처럼 투닥거리던 그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흥미가 동하였다.

《지난해 우리가 다른 작업반으로 보내기지원

갔을때입니다. 오전작업을 끝내고 빙 둘러앉아 점심을 먹은뒤 밥곽을 부시던 초옥동무가 저가락 한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내기철이라 물이 넘쳐흐르고 감탕바닥이어서 찾을리 있습니까. 약이 오른 초옥동무가 나머지 한개를 던지려고 하자 은아동무가 말리며 대승동무네 집에 외짝 저가락이 있으니 그것과 짝을 무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외짝 저가락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가락 짝맞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초옥동무와 한짝이 되고말았지요. 누구네 집에 저가락이 몇개 있는지 다 아는 반장이 처녀의 가슴에 무슨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모를리 있습니까.》

《대승동무는 자기네 분조처녀가 사랑하고있는 것도 몰랐소?》

《글쎄말입니다.》

《한심하구만.》

《누가 아니랍니까.》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통쾌하게 웃었다.

《은아동무와 사귀느라하면 저절로 정이 끌립니다.

저도 돼지우리싸움이 벌어졌던 그해 가을 은아동무한테 끝내 지난날을 사죄하고말았습니다.》

《그래 은아반장은 뭐라고 합니까?》

대승은 허허 하고 소리내여 웃었다.

《눈물이 가랑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정말 힘겨웠다고 말하더군요. 내가 적기를 놓칠가봐 신경을 쓴것처럼 자기도 속을 까맣게 태웠더군요.

하면서 새 세기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새롭게 구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면 무조건 즉시에 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는것입니다. 자기는 군사복무를 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과 의도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풍에 익숙되었다더군요.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혁명적군인정신을 일생을 두고 따라배울 결심이라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나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다보면 아무 일도 칠수 없다는거지요. 특히 농촌조건에서는 더 그렇다는것입니다.

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들이 부끄럽게 돌이켜졌습니다. 어쨌든 은아동무는 정말 존경이 가는 동무입니다.》

나는 대승의 말을 다시 음미해보았다.

은아에 대한 대승의 존경심은 체면과 감정을 초월한 참되고 진실한것이였다. 정열에 넘치는 한 인간에 대한 매혹, 그것은 한알의 난알이라도 더 생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뜨거운 충성심에 대한 애착이였다.

시대의 지향속에 혈맥처럼 이어지는 이런 동지에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웃으며 뚫고 나갈 힘의 원천으로 될것이다.

## 4

은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류근혁을 취재하던 때의 흥분이 되살아나 신문사에 전화를 한나는 오후부터 정식 취재를 시작하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이야기마다 모든것이 놀랍고 새로웠다.

두벌농사에서도 고기생산에서도 군적으로 앞장서고 자체의 힘으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로 방을 덥히는 샘골마을!

흥분된 마음을 안고 리당을 나서던 나는 은아가 돌아왔다는 말에 급히 샘골마을로 향하였다.

단숨에 작업반탈곡장에 이르니 대승이가 화물차에서 짐을 부리고있었다.

《이게 뭐요?》

대승은 목덜미에 번지르르 내뺨 땀을 문지르며 나를 바라보았다.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입니다. 이 종자는 한알이 밥사발만 하답니다. 수확고가 다른 감자들보다 몇배나 높답니다.》

그러니 이 종자를 심으면 앞그루감자와종면적을 몇배로 늘이는 셈이 아닌가.

대승은 고구마씨를 하나 집어들었다.

《이건 다수확품종의 고구마씨입니다. 조직배양으로 키운것인데 한알이 한키로그램이상 나갑니다.

이 고구마품종은 아직 널리 퍼지지 못했는데 은아반장이 감자조직배양공장에 그런 종자가 있다는걸 알고 며칠동안 지켜앉아 끝내 해결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심게 되었지요.

하긴 이런 일에서 우리 반장을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거름만 듬뿍 주면 수확고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어오른답니다.》

대승은 신바람이 나서 설명하였다.

다수확품종의 감자와 고구마,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종자혁명방침을 실현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은아를 한시바삐 만나고싶어 주위를 살피었다.

《은아동무는 어디 갔소?》

《도착하자바람으로 포전에 나갔습니다.》

《포전에?》

감자종자를 구하느라 몇밤을 꼬박 지새웠을 은

아가 날도 저물어가는데 포전에는 왜 나간단 말인가.

내 마음을 짐작한듯 대승이가 제격 설명하였다.

《계획했던대로 앞그루 감자심기를 오늘 끝내자는겁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소출이 떨어지니까요.》

나는 급히 포전으로 향하였다.

나지막한 등성이에 올리선 나는 그 자리에 굳어지였다. 사태긴 밭이랑을 하나씩 타고 앉아 서둘러 감자를 심어나가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바라보였던것이다.

《저기 기러기떼 길잡이처럼 맨 앞에서 호미질을 하는 처녀가 은아반장입니다.》

어느사이 따라왔는지 대승이가 손을 들어 가리키었다.

나는 《길잡이》처녀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현시기 농업전선을 기본전선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은아의 불타는 열정에 나의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노을이 스러져지자 무릎을 펴고 일어난 은아는 해불대에 불을 달아 이랑마다 꽂아놓았다. 포전은 삽시에 환해졌다.

나는 불빛어린 은아의 모습을 망막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지핀 충성의 불을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게 하는 처녀.

가슴속에 일단 불꽃이 튀면 그대로 순식간에 온몸이 불타오르는 정열적인 처녀.

당의 의도가 그대로 불꽃이 되고 실천이 그대로 불길이 되는 처녀.

낡고 뒤떨어진 모든것을 불사르며 강성대국건설에로 줄기차게 내달리는 선군시대의 참된 지휘관!

후대들은 앞선 세대가 이루어놓은 공적을 현상유지나 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혁신해나갈 때만이 참담게 계승할수 있다는것을 은아는 현실로 증명하고있었다.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은아의 모습은 류근혁영웅의 모습과 꼭 같았다.

나는 해불이 앞을 밝혀주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오늘 밤이라도 은아와 함께 힘껏 땀을 흘리고싶었다.

## 삶의 절정에서 부르는 노래

류동호

생각도 환희에 젖고  
추억도 환희의 눈물에 젖어라  
저 멀리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빛나게도 흘렀구나 우리의 선군세월이여

그 뜻에 매혹되어 따랐노라  
그 정에 마음끌려 노래 불렀노라  
가장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가장 뜨거운 혈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아버이장군님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백두산총대에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전선길에 오르신 장군님  
나는 그이의 선군신념에  
삶의 숨결을 잇고  
선군의 총대에  
시와 노래의 총탄을 섬겼거니

총대와 탄알처럼 가를수 없는  
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  
감격에 겨워 부르노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부름  
아 선군혁명동지!

부모의 사랑도 그 끝이 있다 했더라  
안해의 정도 그 끝이 있다 했더라  
허나 헤아릴수 없는것은  
장군님의 사랑과 정으로 가득차있는  
선군혁명동지애의 세계  
그리움의 세계

그 위대한 세계는  
이 세상 가장 높은 삶의 절정  
황금을 뿌려도 오를수 없고  
백년을 산대도 오를수 없는

선군혁명가의 빛나는 삶의 결정우에  
장군님은 내 걸음걸음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세워주셨나니

나는 사랑하노라  
사람마다 제 사는 멋이 있고  
제 삶의 재미가 있다 하지만  
최고사령부의 종군시인으로 사는 멋  
장군님을 노래하며 사는 삶의 재미를  
나는 정녕 사랑하노라

허나 내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가장 위대한 아버지  
가장 뜨거운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내 삶의 절정에 올라  
뒤를 돌아보아도 한길  
앞을 바라보아도 한길  
내 붓 한자루를 총대처럼 틀어쥐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시와 노래로 받아들여갈  
오직 그 한길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아름다운 미래를 가리키는  
선군의 이정표따라  
내 삶의 천만리길을 다 알고 간다는것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조국과 함께  
강성대국의 래일을 마중해간다는것이

아 우리 삶의 태양은 밝게도 빛난다  
장군님과 영원히 한길을 가며  
나는 한생을 바쳐 부르고 또 부르리라  
행복한 내 삶의 노래 선군찬가를  
온 세상 하늘땅이 넘치도록 부르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김정일**장군찬가를!

주체 93(2004). 12. 22

아버 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농법을 틀어쥐고 종자혁명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자!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에서-

## ◇수필◇

### 푸른 잎 설레임소리를 들으며

사공일금

나는 저녁산보를 몹시 즐긴다.

시내중심을 벗어난 교외지구엔 자리잡은 우리 집 뒤로는 가까운 협동농장벌과 잇닿은 휘우듬한 언덕길이 있다. 그 언덕우에는 걸터앉기에 안정맞춤한 너럭바위가 몇개 널려진 평퍼짐한 공지가 있는데 키 높이 자란 아카시아나무가 몇그루 있어 언제나 시원한 그늘을 던져준다.

거기까지가 바로 나의 산보길이다.

운동에도 알맞춤하고 조용하여 사색하기에도 좋고 또 나날이 변화하는 자연을 감상할수 있어 더없이 좋은 산보길이다.

나는 오늘도 그 언덕우에 올라섰다.

눈앞에는 기복이 그리 심하지 않은 구릉지대가 멀리까지 펼쳐졌는데 구릉을 따라 여러가지 농작물들이 키다툼하며 5월의 훈풍에 조용히 설레이고있다. 제일 눈에 띄이는것은 언덕 낮은 지대로부터 저앞 과수원옆까지 넓게 펼쳐진 콩밭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식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곳 농장원들이 강냉이와 그루바꿈을 한 새로운 다수확품종의 콩밭이다. 열흘전만 하여도 초록색의 애잎들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아이들 손바닥만큼씩 넓어진 살진 잎새들이 저녁해빛을 탐스레 빨아들이고있다.

매양 그러하지만 그 콩밭을 바라보노라면 자연류다른 정회속에 어린시절 보아온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군 한다. 언제봐야 한손에는 호미를 들고 어깨에는 그리 크지 않은 종다래끼를 메고 다니던 할머니의 모습이다. 한때 농장관리일군을 지낸적도 있는 할머니는 한뼉 농사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도 일손을 놓지 않고 이른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그런 모습으로 한해를 보내군 하였다.

할머니가 하는 일이란 이른 봄철부터 집오래들은 물론 멀리 산기슭이나 밭머리 그리고 여기저기 길옆에 널린 울망줄망한 빈 땅들을 찾아 땅을 두저 콩을 심고 가꾸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거두어들인 콩을 농장탁아소나 유치원에 보내주기도 하고 바쁜 농사철에는 콩국을 만들어가지고 포전에 내가기도 하였다.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할머니네 집을 다닐 때도 그래, 오금이 떠서 저혼자 할머니를 찾아다닐 때에도 나에게 제일 익혀진것은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콩음식이였다.

큼직한 망돌을 토방우에 올려놓고 콩을 갈아콩비지도 끓여주고 두부도 앗아주는가 하면 뛰여놀 때는 따끈따끈한 닭은 콩을 주머니가 불룩하게 넣어주기도 하던 다심하고 지극하던 할머니이다.

지금도 콩알을 다문다문 박은 흰쌀밥에 부글부글 끓는 토장국을 맛스레 떠먹는 내옆에 앉아 흐뭇해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어제런듯 생생하다.

하여간 할머니는 콩으로 못하는 음식이 없었던듯싶다. 두부나 비지, 콩밥에 토장은 물론 구수한 콩국이나 순두부, 콩떡과 콩지짐, 콩나물 지어는 송편속감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다 쪼끔 어렵다. 한번은 음식투정을 부리는 나의 엉덩이를 철썩갈기며 할머니가 입지 않게 눈을 흘겼었다.

《이 녀석, 사람은 그저 콩을 많이 먹어야 뼈대가 싹해지고 속이 든든해지는거야...》

《피, 그럼 왜 콩을 큰 밭에다 많이많이 안심나?》

그무렵 나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울망줄망한 폐기밭들을 따라다니던 중이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을 끔찍하며 짐짓 으르는것이었다.

《이녀석. 그럼 이 할미가 농장밭에다 콩을 심겠냐. ...어쨌든 이녀석 벌써부터 타밭을 하는걸 보면 넌 인민군대가 되기는 다 글렀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스럽게 들렸던지 다시는 콩음식타밭을 하지 못하였다. 여담같지만 그래서인지 나는 오늘토록 별로 앓는 일 없이 지내오는가싶다. 지금도 나는 어린시절부터 몸에 익힌 콩음식이 없으면 밥상이 별로 허전하게 느껴지군 한다. 어찌다 별식이 생겨도 먼저 눈길이

가는것은 콩으로 만든 민족고유의 음식이다.

하긴 이걸 나만의 습관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콩의 원산지로 예로부터 이름 높았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수천년전부터 단백질이 높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있는 콩을 재배하여 왔으며 콩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민족음식을 만들어 리용하여왔다.

정말 우리 민족이 수천년을 두고 발전시켜온 콩음식가지수는 수십가지를 헤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콩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콩을 두고 그저 하나의 전통식품으로 여겨왔을뿐이었다.

그러다나니 콩농사를 크게 중시하여오지 않았으며 지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는 농민들조차도 콩농사에 대한 관심을 별로 해오지 않았던것이 다.

그랬던 콩농사가 오늘날 선군시대에 와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식생활에 큰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새로운 의미를 안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주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민족고유의 기호를 이채롭게 풍미하여온 콩이 우리 식생활에 더 큰 몫을 차지하게된 오늘의 현실...

나의 마음은 불시에 뜨거워났다.

거기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이 마음을 덥혀 주어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를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먹는 문제를 두고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나라 국토건설력사에 류례없는 토지정리 구상을 펼쳐시여 나라의 전야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시켜주시였으며 개천-태성호물길공사와 백마-철산사이물길공사를 벌리도록 이끄시여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로 대지를 적시도록 해주시는 우리 장군님 .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종자혁명 방침을 제시하시여 이 땅을 풍요롭게 가꿔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콩농사를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의 먹는 문제해결의 중요고리의 하나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장수식품으로 이름높은 콩음식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깊은 사색을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인민군대에 과업

을 주시여 새로운 다수확품종의 콩종자를 개발하도록 하여주시고 콩농사와 관련한 새로운 재배법과 수확을 높일수 있는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해하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콩농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 얼마나 가슴뜨거운 일인가.

그토록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농사를 책임진 농민들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콩농사의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정녕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바로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오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 큰 행복을 약속하며 이 땅의 전야마다 새봄종의 콩밭들이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식생활은 더더욱 풍성해질수 있게 된것이다.

《정말 죄스럽습니다. 한생 농사일을 해오면서도 미처 관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콩농사법을 우리 장군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실 때 머리를 들 수 없더군요. 우리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에 미여져와 목이 메였습니다. 콩농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니며 콩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작물이라고 가르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콩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볼 마음뿐입니다.》

언젠가 저 앞 콩밭머리에서 만났던 이곳 농장관리위원장의 젖은 목소리가 귀가에 울린다.

문득 나의 할머니가 오늘의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눈가에 물기를 머금고 섰던 이곳 관리위원장의 걱정엔 넘쳤던 모습 그대로일것이다.

어느덧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대지를 감싸안는다. 조금 서늘해진 저녁바람이 콩밭우를 스치자 수만잎새들이 웃음이라도 터친듯 뒤채긴다.

진홍색노을에 물든 콩밭, 어쩐지 나에겐 꽃밭처럼 아름답게 안겨든다.

꽃밭처럼 아름답게 채색된 콩밭이 설레인다. 마치 우리 장군님께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아뢰이는 이 나라 군민의 마음을 담은듯 붉게 물든 설레이는 수만잎새들이 꽃잎처럼 나의 눈에 안겨든다.

# 나는 이 봄을 노래한다

장호건

누구나 노래했더라  
정든 고향산천에 봄이 오면  
마음속에 저절로 기쁨이 샘솟아  
내가의 살찐 버들개지  
아지랑이 피어나는 들  
맑은 하늘가에 한껏 우짖는 종다리를...

허나 나는  
그 봄아씨가 펼쳐놓은 풍경이 아니라  
선군조선 내 나라의  
전당  
전국  
전민이  
총 집중한 우리의 기본전선의 봄을  
노래한다

날알이 무엇인지 누가 모르랴만  
그 귀중한 한알한알이  
우리 반드시 이겨야 하는 침략자와의 대결에서  
한발한발의 총탄과 다름없기에  
온 나라가 떨쳐나선 총진군의 대지에 서서  
나는 이해의 봄을 노래한다

가슴아픈 희생의 슬픔도 겪었던  
눈보라 사나운 《고난의 행군》 어느날이었던가  
머나먼 전선길에서 우리 장군님

쥐기밥 드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터져오르는 오열 더는 못참아  
흐느껴 울었던 우리 마을 사람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하나같은 마음  
하기에  
농촌으로 부르는 당의 호소에  
화산처럼 폭발한 온 나라의 애국심  
새해 설인사마저 눈덮인 들에서  
거름더미 지고달리며 서로 나는 사람들이  
이 봄의 전야마다 덮여 끓고있나니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라지만  
가을의 그 환희를 안고있는 우리의 봄  
당창건 60 돛과 조국해방 60 돛 뜻깊은 날들에  
온 우주를 밝히며 하늘가득 터져오를  
경축의 그 축포를 다 하고있는 봄

이 봄을 노래한다 나는  
봄아씨의 애잔한 향토곡이 아니라  
봄장수의 장엄한 행진곡을  
이 봄의  
무진장한 힘과 투지  
벽찬 숨결과 맥박  
기어이 안아올 농업혁명승리의 개가를 노래한다

## 씨앗보다 먼저

리일섭

오늘은 콩 심는 날이어서  
분조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아버이장군님 보내주신 콩종자  
사랑담아 정성담아 알알이 심어간다

해빛도 류달리 따스하다  
제대군인 프락뜨로운전수총각  
앞서가며 잠든 밭 폭폭 갈아엎고  
이랑마다 구슬땀 거름삼아 뿌려가는 처녀들  
서로서로 뒤질세라 일손에 신바람 인다

철참엔 포전오락회도 흥이로다  
하늘의 종다리  
땅우에 내려앉아 노래하는듯  
봄들판의 처녀들  
저 하늘에 행복의 나래 펼친듯

재청받은 제대군인총각  
노래만 잘하나 말 또한 구수하다  
아버이장군님을 중대에 모셨던 자랑  
처녀들 가슴가슴 휘젓는 그 이야기  
앞벌의 강냉이 푸른 포기도 키숫구며 듣는듯

식사준비 한창인 취사장에 들리신 장군님  
 몸소 콩음식 가지수도 헤아려보시며  
 그리도 만족하시어 환히 웃으셨다고  
 인민군대 콩농사경험 온 나라가 따라배워  
 인민생활 더 높일 원대한 구상 펼치셨다고

그 은정 담아 보내주신 콩종자  
 알알이 총알같이 주렁지워  
 탈곡장에 콩날가리 하늘높이 쌓아놓고  
 장군님 기쁨속에 모시자는 절절한 그 호소  
 눈곱이 달아오른다 심장이 뜨거워진다

혁명적군인정신 농장벌에도 꽃피나  
 분조가 뚫고 작업반이 뚫고 농장이 뚫는다

쌀로써 결사옹위의 성새 든든히 쌓고  
 쌀로써 이 사회주의 더 굳건히 지켜  
 이 별에서 강성대국 새봄도 남먼저 마중하려니

얼마나 풍성할것이나 올 가을은  
 감나무집 분이와 저 총각 잔치상우에도  
 콩음식 민족음식 푸짐히 차려올리자고  
 처녀들 까르르 터치는 웃음소리  
 아지랑이처럼 희망도 피어나는 봄이로다

오, 더욱 아름다우라  
 아버지 그 사랑에 보답해갈  
 실농군의 도리 성실한 량심  
 그 농민된 본분을 씨앗보다 먼저  
 이 땅에 묻어가는 선군조선의 봄날이여

## 대지여 나의 사랑이여

주광일

잠 잘 잤느냐  
 노을빛에 눈을 뜨는 대지여  
 성큼 들에 나서며  
 정답게 너와 아침인사를 나눈다

쟁반같은 달을 벗삼아  
 밤늦도록 거름더미 벌에 날랐으니  
 오늘은 앞벌  
 래일은 뒤벌에  
 배미마다 부지런히 뿌려줘야지

기다리는 어린애에게로 가는 너인의 마음인양  
 다우쳐지는 걸음  
 어서 가자  
 벌이 나를 부른다

내 손길  
 내 마음이  
 피줄같이 뻗치고있는  
 살점같은 이 땅에  
 한점 빈구석이라도 생긴다면  
 아서라  
 풍요한 수확을 어찌 바라라

바쁘나 흥겨로운 들길이다  
 잘익은 거름을 듬뿍듬뿍 받아먹고  
 주먹같이 주렁질 감자포기 그려보는  
 선들바람에 푸른 머리 솟구며 흔들며  
 우썩우썩 밀보리 자라는 소리도 들려오는

어허- 푸른 줄기 푸른 잎을 살찌우며  
 온 한해 짊어지  
 벌에 살아야지  
 아침해살에 입맞추며 따라오는 논도랑물도  
 물노래만 신나게 부르누나

봄, 여름  
 나의 땀을 젖줄기로  
 오곡이여 물결쳐 설레이라  
 이 손의 온기로 더웁혀진 눈물에서  
 알찬 이삭이여 주렁지라

벌이 넘치게 오곡이 무르익은  
 알찬 열매를 열싸안으며  
 새벽이슬을 차는 그 가을날  
 행복의 속삭임을 너는 들으리라  
 대지여 나의 사랑이여!





# 류다른 풍경화

석유균

## 1

평양본사에 보낼 기사집필을 끝낸 △△사 기자 유민은 시계를 보았다. 벌써 4시가 꺾 넘었다.

생각같아서는 그사이 쌓인 피로를 풀겸 서늘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가에 나가 해수욕을 하고싶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5시에 호텔 3층로대에서 남아메리카주의 S 대학교수 송려영과 만나기로 약속했던것이다. 6. 15공동선언후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오늘 제주도에선 처음으로 되는 북과 남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축제가 며칠째 벌어졌던것이다.

그사이 유민은 노상 바쁜 시간을 보내었다.

눈물겨운 상봉과 들끓는 통일열기속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개별적인 인사들의 상담까지도 놓칠수 없었다. 그 과정에 유민은 송교수에게 류다른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에 비해서 꺾 젊어보이는 40대 후반기의 지성미가 그대로 내배인 현숙한 여성으로 살갗이 맑은 얼굴표정은 언제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예술공연이나 구경경기때만이 아닌 모두가 환영을 터치는 씨름경기를 보면서도 그는 소리없이 미소를 짓는것이 고작이었다.

경건한 자세 그대로인듯싶은 꼭 다문 입을 열때에도 부드러운 음성은 고저장단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그렇게 조용히 말하는것도 보기 꺾 드물었다. 유민은 뜻밖에 이루어진 그와의 첫 상면때 그 친절성이 지금도 이상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날은 오후에 여가가 생겨 유민은 둔덕을 따라 안침하게 늘어진 마을로 걸음을 옮기었다.

관광지로서 이름난 섬보다도 섬 특유의 생활풍속과 이곳 사람들의 이채로운 관습에 마음이 끌렸던것이다. 돌담장을 따라 내려가던 유민은 열린 《대문》으로 한걸음 들어서며 주인을 찾았다.

대답도 없었고 인기척마저 느껴지지 않아 머뭇거리던 유민은 걸음을 돌리려 했다. 이때 녀자의

친절한 말소리에 고개를 돌리었다.

《어서 들어가보세요.》

파르스름한 전뚱은 부인모를 쓴 녀인이 가벼운 걸음으로 다가오고있었다.

(가슴에 명찰을 건것을 보고 이 집 주인이 아니라 행사성원이라는것이 알렸다.)

유민이 놀라와하는 기척을 보이자 인차 자기 소개를 했다.

《S 대학 교수 송려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유민도 자기 소개를 하고나서 주인이 없다고 일러주었다.

《기자선생은 (그는 유민의 기자완장을 보았던것이다.)제주도가 처음이니까 그럴수밖에요. 저기 정랑(나무대기)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대문이 없이 정랑을 가로 질러놓곤 했다는것, 정랑을 하나 질러놓았으면 가까운 곳에 갔다가 인차 돌아오니 기다리라는것... 셋을 가로질렀으면 먼곳에 갔으니 기다리지 말고 후에 찾아오라는것으로 통용되었다는것이다.

《하지만 북에서 동포들이 온다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없어도 언제나 손님이 들어오라는 뜻으로 모든 집들에서 정랑을 걸었다고들 합니다.》

《고마운 일이군요. 제주도의 풍속에 대해서는 책에서 본 일이 있지만 이런 미풍이 있는줄도 뜻밖입니다.》

《미풍도 느껴볼겸 들어가보시지요.》

송교수는 제먼저 프락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선 유민은 두리번거리었다.

《어때요. 집안에 들어가볼가요?》

《아니, 아닙니다. 난 그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뒤옹박을 찾아볼가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쯤 다 바다에 나갔을겁니다. 아예 물질하는걸 구경하는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제 안내하십시오.》

유민은 그의 너그러운 권고에 끌려 검은 바위

가 솟아난 도래굴이까지 따라나왔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젊은 해녀들이 물질하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던 송교수는 손가방에서 작은 쌍안경을 꺼냈다.

《이 해녀들은 다 관광해녀입니다. 진짜배기 해녀들을 구경하겠으면 저쪽을 보십시오.》

그가 가리키는대로 도래굴이 맞은편 퍼그나 먼 너럭바위에 물질하고 나와 해조임하는 너댓명의 해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던 유민은 속으로 놀랐다.

50대 아니 60대의 녀인의 모습도 보였다.

《아니, 저 나이에도 바다깊이에까지 들어갑니까?》

《그 나이엔 어렵구두 위험한 일입니다.》

송교수는 가늘게 한숨 쉬며 제주도의 유명한 전통적인 해녀들이 조락되어가고있는 반면에 인기를 끌기 위해 관광해녀가 성행하는데 대하여 차근히 설명해주었다.

《지금도 70나이에 해녀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 하지만 대양건너 척도를 지나 머나먼 대륙에서 온 교수선생이 이 모든것을 자기 생활처럼 잘 알고있는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자 송교수는 서리죽은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피하고저 말머리를 돌리었다.

《기자선생이 시인이라는걸 여기 온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유민이 놀라와하자 그는 금빛모래를 밟으며 호텔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희망이 부풀던 그때 저도 기사를 부러워했고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어요. 기자이며 작가-이것이야말로 지성의 결정으로 여겨져서 마음에 끌리곤 했으니까요. 난 어제밤 선생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송교수는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눈길로 유민을 바라보았다.

《진지한 사색에 나도 마음이 열리는것 같았으니까요.》

글은 인간의 본태일진대 그에 끌리는 마음이야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하는 송교수는 은연중 미온의 감정에 젖어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섬의 풍속에 대해 묻는 유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던 그는 투명한 동심이 비친 일화까지도 퍼그나 재미있게 번지였다.

…해변가 마을의 앞뒤집에서 심술곳은 소년과 안타까비 소녀가 살고있었다. 소년은 코를 훌쩍거리면서도 그림그리기에 정신이 팔려 해지는줄 몰랐다.

배, 갈매기, 소나무, 참대며 마음에 끌리는것이면 무엇이든 종이우에 지긋게 그려가는 소년, 날이 감에 따라 재간도 퍼그나 늘어 어른들까지도 그가 그려놓은 갖가지 그림들을 보고는 신통하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소년이 그렇게도 똑같이

그려넣고싶어하는 소녀애의 모색만은 도무지 비슷하게나마도 그려낼수 없어 부아가 났다. 소년은 조개를 캐서 퍼그나 구어놓고는 그것을 맛나게 먹고있는 소녀를 또 그린다.

자기는 겨우 두세개 맞이나 보고는 또 코등에 땀발이 서도록 그림그리기에 정신을 쏟고있다.

조개를 다 먹고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판에 다가온 소녀는 또 울상이 된다.

《내 눈이 이렇게 울롱해? 코도 입도 밍게스리 그리면서… 심술쟁이-》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곱게 그려주겠다고 달래지만 성이 난 소녀는 웃음을 비튼다.

《싫어 싫어. 다른건 다 똑같이 곱게 그리면서 두 나만 밍게 그리는 심술쟁이… 다신 안 올래.》

어느새 와락 그림장을 잡아채려는 소녀의 팔목을 잡은 소년은 가까스레 뺨아낸다. 체킴에 안타까와난 소녀는 발을 동동 구른다. 몰래 돌아서간다.

《내 밥조개 잡아줄게, 응?》

《흥, 그런건 나두 잡아… 또 속을줄 알구, 심술쟁이.》

《앵이, 너 없다가 안될줄 알아.》

심술이 살아난 소년은 모래를 한줌 쥐여 소녀의 머리에 뿌린다. 울상이 되어 손가락으로 단발머리를 후벼내도 모래알을 다 털수 없어 안타까와난 소녀는 마른 울음을 운다.

《니 엄마한테 다 대줄래.》

그 말에 놀란 소년은 그를 억지로 끌고 바다물로 들어가 머리를 씻어준다…

이야기바람에 어느새 호텔로 왔는지…

《기자선생. 손님이 기다려요.》

로대에서 누군가가 찾는 소리에 송교수의 이야기는 동강났다. 다시금 눈살이 긴장해진 그는 별치 않는 이야기로 기자선생의 바쁜 시간을 흘렸다고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아닙니다. 기회를 내서 마저 듣고 싶습니다.》

《모래불에 났던 작은 흔적은 파도에 씻겨진지 오래지요.》

엷게나마 그려졌던 동심의 흔적이 사라진 송교수는 역시 답답한 기색이었다. 그후 사람들이 번다한데서 문득 만나도 목례만 할뿐 말 한마디 없는 그의 땡땡한 모습을 보게 된 유민은 차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더우기 어제 일로 하여 의혹은 더 짙어졌다.

방금 취재한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정원수아래 놓인 결상에 앉은 유민이 제 생각에 몰두해있을 때였다.

여론 매미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리던 고요속에 도란도란 들리는 남녀의 말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다.

《…이모부는 어떻게 지내세요?》

《내야 늘그막에 소일거리루 굴밭이나 가꾸지.》

《제가 온걸 어떻게 알았어요?》

《흠. 우린 어제야 텔레비존에서 너를 겨우 알아봤구나.》

《...》

《언제 집에 들리겠니?》

《글쎄 지금갈아선 시간을 낼것 같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나. 그럼 부씨댁에두 찾아뵙지 않구?》

《찾아가야 아픈 상처나 허빌텐데요.》

《아서라. 그러지 않아두 만누이가 오늘 아침에 찾아왔드라.》

《저두 물질하는걸 먼발치에서 왔어요.》

《영? 보구두 안찾아? 니 그러단 별받는다.》

《호- 별이야 반구두 남은걸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참 지독두 하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20년세월이 흘렀는데두 매정한 네 마음을 풀지 못한다 말이나...》

유민은 본의아니게 남의 절박한 사연을 엿듣는 것이 죄되는것 같아 슬며시 자리를 피했던것이다.

그래도 마음이 끌려 돌아보니 허우대가 큰 로인 앞에 송교수가 머리를 숙이고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안겨왔다.

## 2

활짝 열어놓은 유리문으로 해풍이 시원스레 불어왔다. 해풍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서있던 송교수가 시계를 보며 유민을 반기였다.

《작가선생은 시간이 정확하군요.》

《시간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교수선생한테야 꼭 두해야지요.》

웃음을 피웠으나 송교수는 어쩐지 서글픈 기색이었다.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군요. 어쩔 즐거운 때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지. 아픔은 긴 세월에도 그칠새 없는데...》

《그 슬픔도 벽찬 생활속에서 행복으로 승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미소로 그 말을 받아들이던 송교수는 간절히 청하였다.

《...선생의 직분이 바뀔줄 알면서도 오늘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면 고맙겠어요.》

연한 화장에 머리단장까지 간간히 한 송교수는 이 상면에 마음을 기울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오늘따라 엷은 흰옷을 입은 우아한 그 자태에 저녁노을이 함뿍 어려서인지 그의 얼굴도 붉게 상기된듯싶었다.

말없이 목례로 응해나선 유민은 그를 따라 긴 복도로 나섰다...

송교수를 따라 그의 방에 들어선 유민은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에 눈길이 갔다.

30호가량 되는 크지 않은 풍경화였다.

푸른 소나무가 억세게 뿌리내린 절벽에 노호한

파도가 밀려와 세차게 부딪쳐 격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격랑속에서 파도를 따라 해연이 솟구쳐 날고있었다.

힘있는 필치로 형상된 풍경화는 뜯어볼수록 화가의 담찬 기개만이 아닌 절절한 심혼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모사품이 아니라 사생화가 분명한데 이런 작품에 락구가 없는것이 이상스러웠다. 더우기 풍경화의 제명조차도 없었다.

송교수가 다반을 들고나와 굴차를 권했으나 유민은 화폭에서 눈길을 떨출 몰랐다.

《뜻이 깊은 작품입니다. 화가의 재능도 기발하지만 그보다도 그 담대한 기개가 더 마음에 끌립니다.》

그를 따라 풍경화에 눈을 주던 송교수는 조용히 속삭이였다.

《그렇테지요. 선생의 시에서도 벽찬 숨결이 맥박치고있으니까요.》

차탁에 나란히 앉은 유민은 차를 마시면서도 풍경화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볼수록 마음에 끌리는 작품인데 락구가 없군요... 지어는 제명까지도 달지 않았으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은 작품의 가치가 소외된것만 같아 유감입니다.》

유민은 저도 모르게 30대시인의 의협심에 끌려 마음속 호소를 터놓았다. 그래도 송교수는 어두운 눈길로 한곳을 응시하고있었다. 뜻밖에도 방안에 깃든 정적에 놀리어 유민도 잠시 말이 없었다.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송교수의 음성은 퍼그나 젖어있었다.

《작가선생한테서 량호한 평가를 받았으니 제가 화가를 대신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려요.》

《필치를 봐도 화가의 년세가 퍼그나 젊고 재능있는분같은데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유민이 진정을 말하자 송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멀리 바다를 내다보았다. 이윽고 그는 사려깊은 눈길을 들어 유민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하긴 두분이 서로 만나면 한결같은 열정만으로도 서로 뜻이 통할겁니다. 이제 와서 뭘 주저하겠습니까. 이 화가가 바로 내가 언제인가 말하던 심술곳은 소년이지요.》

《그럼 안타깝비 소녀는?...》

《그래요. 바로 저예요. 우린 바로 이 제주도에 서 나서 어린 시절을 함께 자랐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창가림을 제쳐놓은 송교수는 먼 바다를 내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였다.

## 3

고등학교시절에 려영은 부친이 △△회사전무로 전근되자 가족을 따라 광주로 갔다. 그래도 그는 고등학교시절은 물론 광주 XX대학교에 입학

한 후에도 방학이면 고향이 그리워 제주도에 사는 이모네집을 찾아가곤 하였다. 자기의 희망대로 서울 서라벌에 있는 대학에서 미술공부를 하게 된 부진호도 방학엔 화판을 메고 고향에 돌아와 바다풍경과 해녀들의 생활을 즐겨 그리곤 하였다.

해마다 한두번씩 만나곤 하는 그 상봉의 즐거움속에 그들의 우정은 해마다 깊어졌다. 방학을 기다리는 두사람의 가슴속에 고여오르는 그리움은 점차 따뜻한 애정으로 젖어들었다.

부진호가 졸업학년에 올라가는 해 봄방학이었다.

봄바람이 세찬 때였으나 오래간만에 만난 그들의 가슴은 즐거움으로 부풀었다.

씨(조개씨)를 뿌리는 이모를 따라 매생이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려영은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그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던 길에 려영은 너럭바위에 화가를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있는 진호를 보고 눈짓으로 불렀다. 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인차 따라들어오겠다고 했다.

려영은 어제 저녁 밀회장소에 나가지 않았던 속죄감에 끌려 진호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갔다. 화실로 쓰는 사랑방에 혼자 앉아 소묘들을 보면서 진호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려영은 책상뒤에 세워놓은 종이를 씌운 화판을 꺼내 펼쳐보고는 놀랐다. 해녀복을 입은 려영이 자기의 초상이었다. 흰살결을 드러낸채 자기가 사람들의 앞에 나선것만 같아 그는 얼굴을 활짝 붉혔다. 해월에 반사되는 살결의 물기까지도 섬세하게 채색한 그림은 퍼그나 정력을 쏟아부은 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그림을 뜯어볼수록 패색한 생각만 널뛰듯 솟구쳐올랐다.

《언제 이렇게 다 그렸는지...》 생각끝에 그림을 싸들고 나서던 려영은 진호가 히죽이 웃음까지 띄우고 막아서는데 놀랐다.

(아마도 문밖에서 자기를 지켜본것 같았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주인허가두 없이 가져가기야 아직 이르지요.》

이번에도 체면저 지긋게 선불질하는 그를 보니 려영은 속이 더 조여들었다.

《흥, 누가 이런걸 그리라고 했어요?》

《글쎄... 청탁을 받은것 같지는 않은데... 무엇을 그리는가는 화가의 자유지요.》

《날 망신시키지 못해 이런것까지 그려요?》

려영이 애써 아픈 말을 찾아 책망하려고 하였으나 부진호는 반죽종게 접어들었다. 누구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의외에도 당자의 눈에 띄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데, 다만 아직은 능력이 모자라 형상이 미흡한것은 더 수련시켜 그 언제이든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욕망만은 저 한나산 못지 않게 높다는것이다.

《그런건 몰라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나선것이

분해요.》

려영이 부러 양탈을 부리려 하자 진호는 대뜸 방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날 찾아왔으니 들어가야지. 누가 들으면 싸운다고 하겠소. 자, 어서. 내 좋은걸 보여주지.》

슬며시 그림을 앗아들면서 방안으로 밀고들어오는 (려영은 그렇게 생각되었다.) 그한테는 어떤 말도 먹어들지 않으리라는것을 직감했다. 려영은 하는수없이 마지막수를 썼다.

《싫어요. 더 말할것도 없어요. 난 래일 떠나겠어요.》

그말에야 부진호는 끄떡 놀랐다.

《아니 벌써 떠나다니. 방학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여기 있어야 해녀모델노릇이나 하게 되겠는데...》

《원 참, 별걸 다 가지고 노했군.》

눈을 쪼프리며 땀광스럽게 이죽거리었다. 그제야 려영도 그림을 손에 넣기 어렵게 된것만 같아 마음이 더 초조해졌다. 일김에 앓기운것이 아쉬워 다시 보자고 하였으나 그는 하루이틀사이에 완성작업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종시 내놓지 않았다. 하는수 없이 사흘을 기다렸으나 그림을 보여줄듯 말듯 끈덕지게 끌면서 어디에 깊숙이 간수했는지 도무지 빛갈도 볼수 없었다. 심술궂은 그의 놀림가마리에 든것 같아 속이 꼬인 려영은 그를 끌려줄 마음으로 간다는 말도 없이 나홀만에 슬그머니 섬을 떠났다. 하지만 배에 오르니 뜻밖에도 부진호가 먼저 선실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이번에도 그한테 또 끌려온것만 같아 은근히 부아가 났으나 려영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곁에 다가앉았다.

《그림을 다 그렸어요? 완성됐으면 보자요.》

《안됐구만. 또 해를 넘겨도 완성해낼것 같지 못하오.》

그는 시뭇하게 고개를 저으며 단마디로 대답했다.

(심술쟁이! 또 나를 끌렸지요. 참. 난 안타깝게야. 그때 보란듯이 흠 떠났어야 하는건데. 사흘씩이나 끌려다니다가 왜 또 같은 배에 탔담.)

《그럼 그림을 집에 두고 와요?》

《웬걸. 내 심장의 한 부분과도 같은데 하루라도 떼놓을수 있소.》

그는 부러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며 옆에 놓았던 화판을 두손으로 감싸쥐었다. 려영은 또 속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다.

《그럼 또 누구한테 보여주려구요?》

《아니, 그것만은 장담하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겠다는것만은 말이요. 지어 당자한테두...》

《아니 나한테두요? 난 꼭 봐야 하겠어요. 꼭...》

《할수 없지. 정 보겠으면 3년만 기다려주요. 그때면 우리 둘의 운명이 하나로 뭉테니까.》

그 말에 억이 막힌 려영은 아래입술만 깨물며 알곶은 생각을 굴리었다.

(사실이 이제 와선 3년? 뭐 3년후에는 어쩐다구? 모든게 그저 제 혼자 말처럼 될줄 알구? 이번 방학에는 아무리 꼬드겨두 제주도에는 오지 않으리라. 속리산으로 가면 제 아무리 애써도 찾아내지 못할걸.)

혼자 생각으로 위안했으나 려영은 웅친 마음을 풀지 못했다. 그날 목포항에서 기차에 오른 려영은 도중에 헤어지면서 가시돈힌 말로 내쏘았다.

《그림을 내놓기 전엔 나를 만날 생각 마세요.》

《웬걸. 나야 언제나 청하지 않아두 제발루 찾아가는줄 알면서두.》

(흠. 이번엔 찾아내지 못할걸. 적어도 1년나마 심술곶은 그 심보를 내 꺾어놓고야말걸...)

려영은 혼자속으로 다짐했다.

따뜻하게 잡은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하며 서운한 마음으로 헤어지던 예전과는 달리 려영은 알곶은 미소를 머금은채 표표한 자세로 승강대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허나 려영의 기대는 뜻밖의 사연으로 하여 버그러지고말았다. 그들이 헤어진지 두달밖에 안되는 그해 5월!

## 4

그해 5월 광주의 거리는 곳곳이 피로 물들여졌다. 려영은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첫날부터 △대학교 부속병원에 나가 수시로 밀려드는 부상자들 처치를 도와나섰다. 려영은 처음에 대검에 찔리고 총탄에 맞아 피자박이 된 부상자들을 보고는 그만 속이 뒤집히는 구토감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항쟁자들의 의로운 투쟁에 눈물을 머금은 려영은 밤을 새워가며 부상자들의 치료에 열중했다.

옛새째 되는날 부상자들을 태운 트럭을 몰고 부진호가 불쑥 나타난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로 간 사람이 광주에 오다니?)

《정말이지 무사했습짱? (반가움이 앞선 그는 흥분을 누르지 못해 저도 모르게 제주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그런걸 내 얼마나 가슴조였는지... 이틀이나 꼬박 찾아다녔은줄.》

《여기가 어떤데라구 와요?》

《어디긴... 려영이 보구과서 왔지. 내 제발로 찾아온다구 하지 않았어. 좀 이르기는 하지만...》

살륙과 만행이 살판치는 판국에도 심술곶은 그 성미만은 주눅이 들지 않았는지 한눈을 쫓긋거리다. 그리고는 의혹에 싸여 눈이 커진 려영을 덩씩 안았다.

《놀라긴?... 그래두 이 사지판에서 내가 지켜줘야지.》

여느때 같으면 부끄러워 당장 뿌리쳤을 려영이도 가슴가득히 교여오르는 련민의 정에 싸여 그

만 그의 넓은 품에 고개를 묻은채 흐느끼었다.

《내가 곁에 있는데 이제야 무슨 걱정있습짱. 맘 놓으라는데.》

려영의 눈물을 잔잔히 닦아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졸업작품창작으로 다도해를 순방하던 부진호는 섬에서 광주인민봉기소식을 듣자 려영의 신변이 걱정되었다. 그날밤 그는 수십년전 4.3제주도인민봉기때 놈들에게 무참히 참살된 할머니와 젖먹이 어린 삼촌의 원한이 덧쌓여 종시 잠을 이룰수 없었다. 이튿날 새벽 섬을 떠나 배를 갈아타면서 목포항에 온 그는 다시 자동차를 갈아타고 라주에까지 와서는 그상 걸어왔다것이다.

봉기자들이 빼앗은 빈 트럭을 놓고 차를 몰 사람을 호소하자 운전기술이 어설했지만 그는 선포자기가 나섰다는것이다. 그는 이틀이나 시내를 누비며 려영을 찾았다.

사뭇 험뎨한 자세로 웃음까지 띄우는 그의 말을 듣노라니 려영은 왜서인지 불안한 예감이 갈마들었다.

《무엇때문에 이 살판에 찾아왔을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려구. 남모르는 걱정까지 얹혀놓는다는걸 왜 몰라.》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수면부족으로 얼굴이 갱핏해진 과장의 말에 의하면 그가 태워온 부상자들중에는 이틀째 처치를 받지 못해 상처의 화농이 심해진 젊은이들이 많다는것이다.

그가 차를 몰아온 거리로는 벌써 끝목까지도 공수병들이 쓸어들어 보행자들조차도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온밤 차를 몰아 에돌았겠으니 좀 눈을 붙이라고 하오.》

과장은 약품창고열쇠를 꺼내주었다.

저녁까지 부상자들의 처치를 마친 려영이 식빵을 싸들고 나서자 과장이 책상서랍에서 라면봉지를 꺼내주었다.

《이거라도 끓여주오. 부상자들때문에 또 힘지로 가겠다는데 의사인 나로서는 막을수 없는것이 안타깝소. 날이 어두워지면 어떨런지...》

과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려영이 주사소독용전열기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내려가니 그때까지도 부진호는 긴결상에서 곯잠을 자고있었다. 려영이 깨우자 벌떡 일어난 그는 시계부터 보았다. 그를 놀러왔힌 려영이 저녁식사를 내놓았다. 라면은 달게 들면서도 식빵만은 밀어놓으며 같이 들자고 권하였다. 같이 들지 않으면 자기도 술을 놓겠다고 심술이었다. 조개구이때처럼 순간이나마 려영도 동심세제로 끌려들어 마음이 마스히 젖어드는듯싶었다.

라면그릇을 말끔히 비운 부진호는 입을 다시며 혼자소라처럼 뇌이였다.

《이렇게 천연스럽게 있는것두 모르구 난 그새 공연히 잠만 설치지.》

《언제나 무사태평인줄 알았는데 걱정할 때도 있어요.》

《햇비둘기같이서 마음 놓이질 않아 그러우. 겁 많은 그 눈에 눈물이라도 고일가봐.》

《내 생각말구 제 걱정이나 해요. … 거긴 어때요?》

문득 묻는 말에 부진호는 금시 진중해졌다.

《غم직한 살륙이 벌어지고있지. 이 땅에 민주와 통일을 갈망하는 의로운 젊음을 어찌면 그렇게도 무참히 참살할수 있는가 말ियो. 야수도 낫을 붙힐 만행을… 소총으로 쏘다 못해 대검으로 찌르고…》

《아니 그만해요. 생각만 해두 끔찍해요.》

잠시나마 차려진 안온한 분위기가 흐려지자 려영은 그의 손을 잡아흔들며 간청하였다.

숨소리가 높아진 부진호는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푹 꺼진 소리로 근엄하게 말했다.

《아니, 우린 이 모든걸 똑똑히 보고 똑똑히 알아야 해. 어느놈이 민주를 짓밟고 통일에 칼을 들고 막아서는지… 우리 제주도민의 3분의 1을 참살한 그 무서운 살륙을 난 믿지 않았댔소. 믿고싶지도 않았고…하지만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야 제눈으로 보면서 비로소 그 만행도 믿지 않을수 없었소. 이 참극의 장본인을 발가놓고 결산해야 돼.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치떨리는 만행을 조종하는 양키와 결산할 때는 왔소.》

고즈넉이 그의 말을 듣던 려영은 안타까운 마음을 참지 못해 그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아이, 난 난 무서워요.》

《무서운건 죽음이 아니라 자기자신이지. 죽음을 내대고라도 이 땅에 민주와 통일을 안아오려는것이 모두의 의지요. 그래서 피도 서슴지 않는 거요.》

그의 가슴속에 것처럼 강렬한 지향이 분출하고 있음을 새삼스레 알게 된 려영은 저도 모르게 온몸이 으시시 떨리었다. 불이 이는듯 한 그의 눈길을 지켜보던 려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통일은 그렇게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네요. 것처럼 의로운 열사들이 더운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려영이 안타까이 묻고싶었으나 오열이 복받쳐 말을 더 못하자 그 뜻을 알았는지 부진호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은 겨레가 피라게 갈망하는데 주저할것이 무엇이었소… 려영이, 통일이 되면 우리 함께 백두산, 금강산두 가보구 묘향산, 칠보산두 가보자구.

송도원두 몽금포두… 내 무던 재능을 버려서라도 금수강산 내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화폭에 담고싶소… 그날을 위해 무얼 아끼겠소.》

헉헉한 안색을 짓는 그를 보니 려영이도 한껏 조여들었던 마음이 어지간히 풀리는듯 했으나 경

계심만은 늦출수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떠나려는 기색이었다. 려영은 그의 손을 쥐며 간청했다.

《다신 헤어지지 말아요.》

《난 가야 하오. 부상자들이 신음하는데…》

《정 그러면 같이 가요. 네? 사방 저지선을 쳤는데…》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마주보며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고 했으나 입귀는 이그러지고말았다. 애원하는 겁먹은 눈을 보는 순간 부진호의 눈앞에는 녀대생의 앞자락을 으악스레 감아친채 단번에 찢어발기고는 흰살이 드러난것이 부끄러워 두손으로 앞가슴을 싸쥐며 몸을 수그리는 그의 등에 대검을 막던 공수병놈의 잔악한 모습이 그려졌던것이다. 부진호는 한손으로 려영의 탐스러운 머리칼을 비담아쓸며 그가 쥐고있던 다른 손을 슬며시 빼어 가볍게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러지 마오. 내 얼핏 다녀올텐데.》

《같이 있으면 난 무섭지 않아요. 날 위해서라도 자길 지켜줘요.》

《음, 꼭 돌아오지. 나에게는 려영이가 귀중해.》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려영을 다정하게 달래며 슬쩍 밀어놓으려 하였다. 그러자 려영은 런민의 정에 못이겨 두팔로 그의 목을 꼭 그리안았다. 억센 사나이의 심장의 세찬 박동을 온몸으로 뜨겁게 느끼며 려영은 무아경속에서 입속말로 속삭였다.

《기다리기 무서워요. 함께 있어요. 네.…”》

통금시간이 가까와오자 부진호는 웃음을 피우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애끓어하는 자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말이 려영의 뇌리에 새겨졌다.

《태일 돌아오겠소. 약속하지. 기다리오. 》…

소리없이 웃음을 남기며 어둠속으로 그가 사라진 뒤에도 려영은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느라고 거의 밤을 새우다 싶이하면서도 려영의 생각은 부진호에게 가있었다. 이튿날도… 하지만 기다리는 부진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흥흥해졌다.

방금 들어온 부상자들의 말은 공수병놈들이 도청앞까지 진입했다고 한다. 때없이 헬리콥터가 하늘을 썰며 점점 더 발광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태우는 려영의 가슴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두렵게 쌓이였다. 기다림에 지친 려영은 때없이 창밖을 내다보곤하였다. 떠날 때처럼 부진호가 소리없이 불쑥 웃으며 나타날것만 같았다. 사흘째되는 날 새벽녘이었다. 물을떠가지고 올라오느라니 여럿이 창문가에 몰켜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아니 저런? 저 녀석 술취한것 아니야?》

《어느때라구 술마시고 차를 몰겠나. 무슨 연고가 있겠지. … 저걸 보게. 앞창이 깨진걸…》

려영이도 급히 다가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넓은 포장도로위로 트럭이 갈지 자를 그리며 위협스럽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미명속에 가까와진 트럭을 보는 순간 려영은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비명을 막으려고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앞창이 깨어진 트럭은 분명 부진호가 물고갔던 차였다.

문을 열고나선 려영은 정신없이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가 정원으로 나섰을 때는 벌써 서너명이 병원정문에 멈춰선 트럭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운전대에 고개를 묻고있는 운전사의 얼굴을 가려볼수 없었다. 앞서 달려간 청년이 운전칸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운전사를 조심히 안아내렸다.

맥없이 고개를 젖힌 그가 부진호라는것을 알아본 려영은 숨이 킁 막혀 그자리에 굳어졌다.

오른쪽 가슴에 피가 질벅하니 내뻘 그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듯 했다.

못박힌듯 섰던 려영은 불시에 달려갔다.

《나한테 얹혀줘요, 네. 어서요.》

비분에 목소리만이 아닌 온몸을 떨고있는 려영을 돌아본 청년은 말없이 그에게 부진호를 얹혀주고 부상자들쪽으로 돌아섰다. 다급해진 마음으로 부진호를 들쳐업었으나 축 늘어진 그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등뒤에서 두어번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으며 려영은 그 생명의 경각이 자기한테 달려있기라도 한듯 재게 걸음을 옮기느라고 온몸에 땀발이 섰다. 담가를 들고 마주나오던 간호원과 젊은이들이 그를 받아 조심히 눕히었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과장은 부진호의 앞자락을 헤치었다. 간간이 피가 흘러내리는 총상부위에 겹자가위로 약숨을 밀어넣고난 그는 손의 맥박이며 가슴에 청진을 해보고는 컴컴해진 얼굴을 무겁게 들었다.

《무서운 젊은이로군. 이래가지고도 차를 몰다니...》

조용히 뇌이는 그 말이 려영의 가슴에 모진 아픔을 주며 울리었다. 자는듯 조용히 눈을 감고있는 그가 이제라도 심술궂게 웃으며 자리를 툭 털고 일어설것만 같았다. 급히 부르짖은 팔을 내밀며 려영은 과장에게 안타까이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 피를 넣어주세요. 제가 엎고 올 때에도 숨을 몰아쉬던데요...》

주사를 놓자 반쯤 눈을 뜬 부진호는 《가고파, 가고...파》 겨우 한마디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려영은 과장에게 또 매달리었다. 하지만 과장은 식어가는 부진호의 손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려영은 태치듯 탁을 치며 비분에 못이겨 통곡하였다.

《선생님, 그럼 난 어쩌면 좋아요. 아...》

죽음이 이렇게도 앞길이 창창한 그에게 찾아올 줄 몰랐던 려영은 침대우에 쓰러지고말았다...

봉기가 진압된 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려영은 보름나마 열에 떠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같이 갈래. 나두 같이 갈래.》

이 한마디만 이따금 외울뿐 비몽사몽간에 헤매이는것이였다. 한달남짓이 지나 부진호와 함께 다도해순방을 떠났던 학우들이 광주로 찾아왔다.

부진호의 사품을 정리하던 려영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풍경화를 따로 건사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도 려영은 문밖을 나서기 저어하였고 찾아오는 사람들마저 피하였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눈만 커질뿐 살이 점점 빠지는 그 정상이 가궁하여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고향 섬을 찾아 정양을 갔다. 절기가 두번 바뀌었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안타까와 달랠 때면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려영은 고개를 저으며 외마디로 뇌이였다.

《싫어, 다 싫어요. 난 이 땅을 떠나 세상끝에 갈래. 이민이라도 갈래.》

이듬해 여름 부모와 형제들이 론의끝에 그가 소망하는대로 이 세상 한끝을 찾아 머나먼 남아메리카주로 떠나갔다...

...《다시는 저주로운 이 땅을 밟지 않으리라 침뵈고 떠났지요.》...

서리서리 드리운 세월의 이끼에 묻히어 모든것을 체념한 송교수는 마치 남의 말을 하듯 담담한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했으나 유민은 녀성으로서 가혹한 운명과 맞서 가슴허비는 아픔을 안고 모태기던 끝에 오랜 세월속에 이제는 체념에 빠져든 그에 대한 동정만이 아닌 회오에 끌려 숨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따듯한 말을 골라 그를 위안한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풍경화로 다가갔다.

풍경화로만 보았던 한쪽의 작은 그림에 것처럼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는 다시금 화폭에 시선을 모두었다.

제명은 달지 못했지만 통일에 대한 절규를 안고 숨진 열렬한의 유고작품이라고 생각하니 하나하나의 세부조차도 깊은 의미를 안고 새롭게 안겨왔다.

노호하는 파도로 분렬의 장벽처럼 막아선 절벽을 일격에 들부실 우뢰와 같은 기상에 바로 화가의 피타는 절규가 그대로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아니 파도의 포말에 나래를 적시면서도 화살처럼 솟구치는 해연 역시 폭풍의 산아-피를 뿌리면서도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던 화가의 넋이 그대로 번개처럼 번뜩이는것 같았다.

이윽고 려영이도 자리에서 일어서 유민의 곁에 다가와 풍경화에 눈을 주었다.

《새겨볼수록 깊은 뜻이 새겨지는 작품입니다. 왜 미전(미술전람회)에 출품하지 않았습니까?》

《미전예요? 못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하고싶지

않았어요. 난 이 풍경화가 하나의 작품이기전에 그의 숨결로 여겨져요. 그래서 수십년세월 단 하루도 떨어진적이 없어요.》

송교수는 가슴이 답답한듯 차물로 목을 추기었다. 그를 지켜보던 유민은 생각에 잠겨 조심히 이끌었다.

《교수선생, 우리 밖에 나가 시원한 바람이나 쏘입시다.》

송교수도 쾌히 뒤따라 나섰다. 시원한 바다바람이 불어대는 로대에 나선 그들도 끝간데 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느덧 대양 멀리 해는 지고 가없는 하늘가에 저녁노을이 붉게 비친 바다는 장관이었다.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던 유민은 의미심장한 눈길을 송교수에게 돌리었다.

《교수선생, 해는 졌어도 저렇게 열정의 빛발을 뿌리지 않습니까. 풍경화에서 받은 나의 충격은 실로 큼니다. 아니 누구나 보면 같은 심정일겁니다.》

《작가선생은 그 풍경화가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고싶어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가요?》

송교수의 눈가에는 기대어런 빛이 어리었다.

《저두 그의 고결한 녀를 지켜 순정을 기울이는 교수선생에게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허나 온 겨레가 피타게 바라는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뭘 저어하겠습니까.》

송교수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생각을 깊이 더듬고있었다. 아래층홀에서 젊은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통일념원이 그 어느때보다 달아올라 이 땅 한 끝인 이 제주도에서 겨레가 손을 맞잡고 회로애락을 나누지 않습니까. 전 그 풍경화는 작품이기전에 통일에 대한 피타는 절규로 절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의 뜻을 크게 여겨주시니... 허지만 락구도 없고 제명마저 없는데... 욕되지 않아요.》

《락구는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습니다. 부언컨대 락구대신 화가의 이름앞에 5월항쟁자의 유고작품이라는걸 밝힌다면 누구나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될겁니다.》

떠들썩한 젊은이들의 소리가 또 들려왔다.

《항쟁의 그 시절에 태어난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뜻깊은 시사겠습니까. 그네들만이 아닌 우리 겨레모두에게 의로운 뜻을 안고 숨진 화가의 고결한 녀를, 강렬한 지향을 안겨준다면 세월이 흐른 오늘만이 아닌 래일에도 그는 교수선생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서 통일열기로 뜨겁게 고배칠것입니다.》

송교수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전 그렇게까지 미쳐 생각지 못했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교수선생, 우리 장군님께서 남뉘겨레만이 아니라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마음쓰시는지 저희들도 다는 모릅시다. 우리 겨레가 통일된 강산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니까요.》

《저두 대륙 멀리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높으신 덕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이번에 와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모두가 바라는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두사람의눈길은 저으기 밋났다.

다음날 유민을 배려주러 나온 송교수는 오래도록 그의 손을 놓지 못하였다.

《작가선생, 이렇게 만나고보니 초면이지만 정말 헤어지고싶지 않군요.

전 수십년동안 이국땅에서 살면서도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진적은 없어요. 아마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가봐요.》

송교수는 마음속에서 댄도는 말을 미쳐 하지 못했으나 그옥한 그 눈길을 지켜보는 유민은 그 뜻을 알아채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었다.

《기회를 얻어 교수선생이 평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가 바라던대로 백두산에도 금강산에도 찾아오느라면 그의 큰 뜻을 더 깊이 알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교수선생의 마음도 한결 더 넓어지게 될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반가운 손님으로 안내해드리지요.》

《고마워요. 작가선생, 그때 풍경화를 가지고 가겠어요.》

진정을 터놓는 송교수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 유모아

### 빠스안에서

빠스가 굵뜨게 가고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화가 나서 견딜수 없었다.

차장이 손님들에게 차표를 받고있었다.

《손님, 표를 내세요.》

한사람이 어린이표를 내밀었다.

《아니 손님은 분명 어른인데 왜 아이표를 내는가요?》

《내가 이 표를 살 때는 아이였댔소.》



##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

(총련) 남시우

사시장철 항구에는  
비가 몇지 않았네  
언제 떴다 지는지  
해님을 볼수 없네

사시장철 항구에는  
구름이 비껴있네  
안개런듯 연기런듯  
머리우에 드리웠네

예로부터 항구에선  
바람결, 구름발로  
용하게 그날 일기  
알아맞혔다지만

믿을수 없네  
니이가다항구에선  
어른들의 날씨짚기  
맞지 않았네

그런데  
비의 항구-니이가다에

신기한 새 전설이  
돌기 시작하였네

우리 귀국선 첫길이 열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배뜨는 날이면  
기쁨의 노래 거리에 가득차고  
사람마다 꽃보라 날리는 날이면

부두에는 아롱다롱  
오색래프 걸치고  
뜨거운 우정의 작별속에  
귀국선 고동이 울어터지면

그날이면 지꽃게 흐렸던  
하늘도 상을 펴고 구름도 물러서네  
즐거운 출항, 희망의 길을  
해님도 웃으며 배길을 열어주네

항구에 새 전설이 돌았네  
어른들도 반가와라 이야기하였네  
아이들도 즐거워라 노래불렀네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인다-고

### ◁가사▷

## 걱정마세요

(총련) 김두권

달리는 내물  
그 누가 멈추리  
검은 머리에 흰빛 서려도  
걱정마세요  
이 가슴에 피는 꽃은  
더욱 고와요

바람은 불고  
눈서리 내리어  
콧던 얼굴이 거칠어져도  
걱정마세요  
이 가슴에 피는 청춘  
더욱 불타요



(총련) 리상민

# 1

휴가를 끝내고난 다음날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사이교생의 전차칸은 퇴근길을 다그치는 회사원들로 꽉 찼다.

키가 작은 최석두는 사람들사이에 끼워앉아 차량의 진동과 승객들의 흔들림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승객들의 눈명이 붓고 눈자위가 빨갛게 충혈된 얼굴마다에는 하루일의 부담에서 해방된 안도감이 아니라 련휴기간의 《피로》를 풀고 출근해야 했던 불만이 어린듯 싶었다.

차량이 세게 흔들거릴 때마다 석두는 승객들의 어깨너머 언뜻언뜻 보이는 정수리에 가깝도록 벗겨진 이마를 잔뜩 찌프렸다. 그의 우묵하게 패인 눈확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떠돌았으며 가느다란 실눈에서 보이는 좁은 눈자위에도 피발이 서 있었다. 눈매로 뻗친 새발자국같은 주름살과 눈섭끝으로 몇오리 섞여진 서리발은 40살인 석두를 더 늙어보이게 하였다.

석두는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출념도 없이 입을 크게 벌려 하품하였다. 그로서는 꿈쩍도 못하게 봄비는 이 전차칸에 부아가 났고 《황금주간》을 싣것 즐겼음에도 어딘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회사원들을 밟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택시운전사였다.

택시근무는 한 단위가 24시간이다. 그가 받게 될 월급은 달에 가동한 날자수와 배상금의 높이에 따라 계산된다. 거액의 빚을 짊어지고 그것을 갚아야 할 사정을 지닌 석두로서는 남들이 쉬건 말건 어쨌든 벌어야 했다. 하여 어چه까지의 휴가 기간에도 그는 정해진 근무날에 택시를 내몰았다.

회사원들처럼 다달이 보장되는 월급의 범위에서만 생각할수는 없었던것이다.

전차가 주요역에 도착하자 석두는 걸음을 다그치는 회사원들의 무리에 말리며 재촉을 받듯 나들문을 빠져 나와야 했다.

자동차들문을 지날 때 그의 왼손에 들려있던 종이가방의 한쪽이 찢어졌다. 뒤따르던 사람이

석두를 앞질러 빠져나가려 하다가 걸채이었던것이다. 앞서간 사람은 약간 주춤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석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입가에 랭소를 띠우고 그냥 가버렸다. 신식양복차림의 일류 회사원풍의 청년이었다.

석두는 종이가방을 랑손으로 그러안게 된 어려운 자세로 차표를 내고 자동차들문을 빠져는데 청년은 벌써 사람들사이로 사라졌다.

(제길! 내가 왜...)

영겁결에 그는 정신을 차렸고 이어 속으로 세차게 치밀어오르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그것은 청년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분함인지 청년을 놓쳐버리고 탓하지도 못했던 자신에 대한 답답함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보다 택시근무를 끝내고 쉬어야 할 몸인데 만원전차에 시달리고 돈으로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일로 가야 할 이 결음때문인지도 몰랐다.

석두는 상수의 권고를 끝까지 물리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고있었으며 이제는 물러설수도 없게 된 이결음에 대한 울분으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가 상수의 전화를 받은것은 4월말이었다. 그것은 수년만에 듣게 된 조고시절의 친구의 목소리였다.

수화기로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도 석두는 상수가 무엇때문에 전화하였는가보다, 어떻게 이 전화번호를 알고있는가 하는 의문이 앞섰다.

지난 6년동안 택시운전사로 된 이후로 그는 거처를 옮겼으며 그전까지의 친구들과의 사귀를 끊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상수는 석두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엉뚱한 말을 꺼내었다.

《석두! 이번 5월 9일에 나와 함께 <만풍년> 공연에 출연해보지 않겠소! 창호랑 영철이도 동원되고있소!》

《아니? <만풍년>이라구?...》

아닌밤중에 흥두깨내밀듯 불쑥 꺼낸 상수의 말에 석두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수는 열기편 어조로 계속하였다.

청상회 도교도조직이 5월 9일에 《민족모임98》을 주최한다는것, 상수자신도 역원이며 공연속에 《만풍년》곡목도 있다는것, 조고때 긴상모의 명수로 이름 떨치던 최석두를 아무래도 동원해야겠다는 말이 성원들속에 퍼져 전화를 걸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석두로서는 《청상회》가 무슨 《회》인지도 몰랐고 하물며 긴상모수로 출연해달라는 상수의 요청은 꿈속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것이였다.

상수는 5월 9일까지의 연습계획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자기 일을 쉬어야만 보장되는 사업이다.

석두는 점점 부아가 나기 시작했다. 자기의 사정도 모르면서 쉽게 동원을 요청해온 그또래들의 수작에 울컥해졌다.

그는 솟아오르는 감정을 묵새기려고 애를 썼으나 목소리는 떨리였다.

《상수… 모처럼 전화를 해준것은 고맙긴 하네만…그, 그렇게 못하겠소!》

## 2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석두의 머리속으로는 지나온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도교조교를 졸업한 석두는 동포기업의 불고기점에서 10여년간 요리사로 일했다. 서른을 넘어 장가든 그는 안해의 도움으로 처가집의 자금을 빌려 자립하였다. 자그마한 불고기점방이였지만 호경기의 시세를 따라 예상외로 돈을 벌었고 옥동같은 딸도 생겼다.

그런데 점방손님으로 드나들던 증권회사원과 친근해져 주식투기에 손을 낸것이 큰 실수였다. 《거품》경제가 터져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점포를 잃어버렸고 처가에서 빌린 2천만엔의 빚만이 남게 되었다.

우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석두는 택시운전사로 일하게 되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쉽게 취직할수 있었고 매상금을 높이면 그만큼 로임도 좋아지는 업종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불철주야의 24시간근무는 석두의 신경을 아프게 건드렸다. 켜하면 신경질을 부리게 된 석두로 해서 안해와 어린 딸은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2년전 안해는 딸을 데리고 도야마의 처가로 돌아갔으며 석두는 택시회사와 잇닿은 집에 거처를 옮겼다.

그는 위험이 따르는 과격한 운전으로 매상금을 올려 처가집에 송금하는 메마른 생활을 이어가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에 허덕이게 되었고 최근에는 어쩔수 없는 고독감에 빠지게 되었다.

잠시후 상수는 또다시 《민족모임98》의 목적을

말하기 시작했으나 그 소리는 처음 말투보다 소심해지고있었다. 전화가 끝날무렵 공연의 입장권 만이라도 사달라는 부탁도 석두는 《미안하지만…》 하고 거절해버렸다.

수화기를 놓은 뒤 석두는 친구로서의 의리를 저버린것같은 죄송함을 느꼈다. 불고기점방을 개점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금을 가지고 찾아와준 친구가 상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의 생각이였다. 그는 벌써 휴가기간에도 일할 예정을 회사측에 알리고있었다. 그런 자기의 처지에서는 공연은 고사하고 다문 수천엔의 입장권값도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엇그제밤 근무를 끝내고 회사로 돌아온 석두앞으로 느닷없이 상수가 나타났다.

석두는 며칠전의 전화가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그와 동시에 이 상봉이 몇년만이라는 회포의 정보라도 자꾸만 불쾌해지는 심정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는 상수를 무시하듯 근무규정에 따라 물고은 택시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익숙된 동작으로 물을 뿌려 밀대질과 걸레질로 걸면과 다이야를 씻은 다음 흡진기로 차내와 좌석밀의 구석구석까지 차례대로 처리해나갔다.

까다로운 차청소가 끝날 때까지 석두는 아무 말도 안했으며 상수 역시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 3

근무수속을 끝내고 사무소를 나온 석두에게 상수는 주저주저하는 기색으로 말을 걸었다.

한잔 하러 가자는 그의 말을 석두는 피로의 빛이 도는 얼굴을 찡그려보이는것으로 대답했다. 사실 이틀째 계속된 근무로 석두의 정신과 육체는 휴식을 간절히 바라고있었다.

상수는 갑자기 정색해지더니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어조로 말하였다.

《석두! 오해하지 말아. 난 이것때문에 찾아온거요!》

그는 손에 쥐고있던 종이가방을 한번 크게 들어올렸다.

《?》

잠시후 석두의 방에서 마주앉은 상수는 종이가방속에서 부서진 긴상모를 꺼내놓았다.

그순간 석두는 상수가 자기를 직접 찾아온 사연을 이해하였다. 눈앞에 놓여진 긴상모는 모자의 꼭지부분에 박혀있어야 할 상모새가 떨어져 분리되어있었다.

《어제 연습중에 빠져버렸데. 실은 전번에도 빠진걸 내가 고쳐놓았는데두…》

석두는 상모새의 모가지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부분은 수십겹으로 얹어맨 연놀이할

때 쓰는 실로 만들어졌는데 한 부분이 터져서 찢어지고있었다. 석두가 조그시절에 쓰던것은 재봉기피대에 가야금줄을 둘둘 감아놓은것을 재료로 썼다.

그는 상모새의 맨끝에 달린 납덩이도 손에 쥐어보았다. 그것은 낚시질에 쓰는 무게를 대용한 것인데 석두가 기억하던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으로 느껴졌다. 긴상모를 돌릴 때 생기는 원심력의 부하가 꼭지부분에 집중되어 모가지부분의 끈이 견디지 못했던것이다.

석두의 짐작으로는 모가지의 절개부분을 보다 강한 재료로 갈아바꾸고 가벼운 납덩이를 달면 팬찮을것 같았다. 재료와 도구만 있으면 한두시간의 작업량이었다.

《내 이 방을 보고 행여나 출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단념해버렸소. 그렇지만 석두… 이 상모만이라도 고쳐줄수 없을까?》

자못 진지해진 상수의 목소리에는 이번 공연을 꼭 성사시키려는 열정과 함께 석두자기에게 마음쓰려는 친구로서의 살뜰한 정의가 느껴졌다. 석두는 공연의 입장권조차 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라 상수의 청을 받아들이고야말았다.

상수가 돌아간 뒤 곧 이불속에 들어간 그는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제각기 제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를 모르는 나이도 아니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 한 로력이 필요함을 사무치게 느껴보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있는 자기들이 아닌가…

석두는 청상회요, 민족모임이요 하는 사업에 열성을 다 하고있는 상수포대들에 대한 반발심을 느끼고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있다는 느낌도 부정하지 못하였다.

어쩔수 없는 모순된 감정을 풀어보지 못한채 그는 이날 상수가 두고간 긴상모를 고치러 가는 길에 올랐다.

## 4

문득 생각에서 깨어난 석두는 자기가 역두에 명하니 서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앞으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쥬조역전광장이 펼쳐지고있었다. 돌이켜보면 택시를 몰고 두세번 들린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역사쪽에서 바라보기는 20여년만이였다.

기억에 남아있던 분수는 없어져 잔디밭으로 변모되었으나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과 가게들의 풍경이며 자전거들로 비좁아진 보도길과 그사이를 누비며 삼삼오오 떼를 지어 가는 사람들의 흐름이며 드문드문 눈에 띄는 치마저고리차림의 녀학생들의 모습이며… 그 모든것들이 지칠대로 지쳐

버린 석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듯싶었다.

《석두야 너밖에 할수 없어! 진심으로 부탁해…》

상수의 간절한 목소리까지 귀전에 되살아났다.

그는 졸음을 물리치듯 빨강게 충혈된 실눈을 한번 세게 찔렀다가 다음순간 부릅떴다. 거기에서는 석두자신으로서도 알수 없는 그 무슨 기대를 갈망하는 뜨거운 빛이 떠돌고있었다.

석두는 약속한 시간에 도꼬조고 교문을 들어섰다. 어둑해진 접수구에서 찾아온 용건을 알리자 상수가 미리 연락해주었던지 경비교원이 나와 그를 문화회관 지하의 무용부실로 안내해주었다.

무용부실안에 들어가니 한 녀학생이 기다리고있었다. 최석두임을 눈치챈 녀학생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깅듯이 인사하였다.

레절이 바르고 령리해보이는 소녀의 높고 청청한 목소리에 이끌리듯 석두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숙였다. 머리를 든 그의 얼굴은 별절게 상기되고있었다.

검은 무용련습복차림이며 도꼬조고 무용부 녀학생들의 《전통》인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가리마로 곱게 탄 머리로 해서 소녀의 얼굴은 더욱 가름하게만 보였다.

소녀는 미리 준비해놓은 《상모도구》라고 써여진 지함을 석두앞으로 내놓으면서 정색하여 인사하였다.

《최석두선생님! 저희들도 <만풍년>공연에 찬조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긴상모를 고치러 찾아와주셨다는것도 들었습니다.》

《…》

석두는 자기에게 지함을 인계하기 위해 사위가 컴컴해지도록 기다려주었으며 진심이 어린 인사로 석두의 수고를 위로해주는 소녀에게 무슨 따뜻한 말이라도 들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친구의 부탁을 외면했던 그 일로 하여 그는 확 달아오른 얼굴을 한번 끄덕여보여주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등골에서는 진땀이 흐르고있었다. 말이 안나가는 안타까움을 답답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였다.

## 5

소녀가 나간 뒤 석두는 바깥쪽 벽면을 메운 크고 넓다란 거울과 반들반들 윤택이 도는 마루바닥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용련습장 한복판에 망연히 서있었다.

한점의 티도 흐림도 보이지 않게 닦아진 거울로는 석두자기의 전신이 그대로 비끼고있었다.

정수리까지 벗겨진 이마와 우묵한 눈확, 색깔은 뜨개옷과 풀기가 빠진 쥐색 바지, 종이봉투를 한손에 그러안고 서있는 자신의 모습은 볼수록 초라했고 공원을 거처로 하는 부랑자와 별반 다름없게 느껴졌다.

저속한 손님들의 《운전사주제에!》하는 멀리에 찬 말도 몇번 들었으나 그때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빛을 갚을 때까지!》하며 참을수밖에 없었던 석두였다.

멀리 처가에 돌려보낸 안해와 딸한테서도 아버지로서의 기대와 믿음마저 거의 잃고있던 석두였다.

그럼에도 소년은 석두자기를 《선생님》이라는 존칭으로 불러주었다. 소년의 맑고 까만 눈동자에는 공연성공의 열쇠가 마치 석두자에게 달려있거나 하듯 절절하게 안겨오는 그 무엇이 깃들여있었다.

석두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달래기라도 하듯 율방자를 틀고앉아 어린 자식을 불러안아보는 어머니처럼 조심스럽게 지함을 끄당겼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서는 조그마한 석두의 손에 익은 그 모든것들이 쏟아져나왔다. 굵고 가는 여러가지 끈과 가야금줄, 자전거차륜을 받치는 쇠대, 쇠바줄, 굵고 연한 쇠줄들, 크고작은 납덩이들, 초대, 점착제, 뽕지, 비닐테프... 석두를 중심으로 로점상처럼 벌려놓은 이러저러한 부속품들은 아닌게아니라 무용소조생이 아닌 동원자 남학생들속에서 유일하게 《상모책임자》의 분공을 맡던 석두 자신이 학교에 제기하여 모두어놓은 《보물》들이었다.

석두는 놀이감을 꺼내는 어린애처럼 흥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랭철한 눈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갔다.

지함속을 이리저리 뒤지고있다가 그속에서 재봉기피대를 발견했을 때 석두의 실눈은 의미있게 반짝거렸다.

석두는 자동화되고 전자회로까지 갖춘 최근식 재봉기밖에는 재봉기로 알지 못하는 이 세월에 수십년전의 골동품으로 되어버린 수동식재봉기의 그것도 동력용피대만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있었다. 혹시 도표조교 무용부실에 보관된 상모도구함속에 있을수 있다는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뜨개옷을 벗어놓고 상수가 넘겨준 종이가방에서 모자와 상모채를 꺼냈다. 무엇을 결심한듯 자세를 고쳐앉은 석두는 등을 구부리고 쪼그린 자세로 돌처럼 굳어진채 상모를 고치기 시작했다.

무용부실의 거울은 행뎡그래한 방과 그것으로 해서 더욱 작아진 석두의 모습을 외롭게 비치고있었다.

25년전, 무용부실 마루바닥에 쪼그리고앉아 상모를 고쳐가면서 밤을 지새우면 15살소년은 좁은 이마에 여드름을 띠우던 상고머리였다. 지금 텍시운전사인 석두에게서 25년전의 인상을 간직하고있는것은 거의나 없었다. 그의 어디에도 작은 몸을 고무공처럼 약동시켜 재치있게 긴상모를 돌려 문화회관의 큰 무대를 독차지해버린 《만풍년》

의 주인공다운데는 없었다. 그의 가느다란 실눈과 그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눈동자마저 없었더라면...

## 6

밤은 이슬했다.

석두는 복잡하고 미세한 손작업에 온 정신을 가다듬고있었다. 그 손놀림은 누구한테서 배운것도 아니였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리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것도 아니었다. 전혀 련관성이 없는 잔잔한 부속품들을 굵어모아 이리 붙이고 저리 떼고 하면서 상모를 만들던 선배들의 모습을 본따르던 과정에 석두자신도 모르게 익혀버린 솜씨였다. 이런 상모를 처음에 누가 창의고안했는지, 언제부터 쓰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하물며 상모가 어떤 재료로 되어있는지는 더욱 몰랐다. 하지만 도표조교의 자랑인 《만풍년》공연은 선배들로부터 자기들에게로 그리고 후배들에게로 면면히 이어지고 전해진 이 솜씨로 해서 전통화되어왔다는것을 석두는 모르지 않았다.

상모는 고쳐졌다.

그의 손바닥에는 지렁이모양으로 붉고 길쭉하게 부은 줄이 몇개나 새겨지고있었다. 물집이 생긴 자리도 있었었고 그것이 터져 물크러진데도 있었다.

눈앞은 아찔하였고 팔도 어깨도 빠근었다. 그런데 그의 정신만은 맑고푸른 아침처럼 산뜻하였다.

그는 자기가 줄음에 몰리어 지친 몸이라는것을 잊어버리고있었다. 이 걸음을 불만스럽게 여기던 자기의 생각을 웅졸했다고 돌이키고있었다. 그리고 상수의 맨 처음 부탁을 엉뚱하고 허황한것으로 딱 거절해버리던 자기자신을 후회하고있었다.

무심결에 그는 무용부실 반대편의 출입문을 열었다. 《비상구》의 연록색 얇은 불빛이 무대로 통하는 계단통로를 어슴푸레 비치고있었다. 조그마한 3년간에 수백번이나 오르내리던 계단이었다.

그는 뜨겁게 불타던 그 시절의 그 무대에로 걸어갔다.

전동이 켜진 문화회관 무대의 한복판에 그는 섰다. 그리고 긴상모를 깊숙이 눌러썼다. 머리카락과 땀과 곰팡이냄새가 스며 엉킨 상모특유의 냄새가 석두의 코를 사무치게 그렇게 자극하였다.

그는 오른손에 쥐었던 납덩이를 앞으로 처-억 내던졌다.

다음 순간 석두의 걸음을 따라 뱀처럼 굴뚝굴뚝 기여가던 희디흰 상모머가 허공으로 휙 날아올랐다가 석두를 축으로 아름답게 동그란 원모양을 이루었다. 뱀의 꼬리같은 띠의 끝부분이 무대

바닥을 찰싹 후리칠 때마다 뿌연 먼지가 몽클 솟아올랐다.

석두의 온몸의 힘줄과 뼈마디들이 오직 진상모를 돌리기 위하여 20여년간의 잠을 깨고 기를 펴기 시작하였다.

(석두야! 목으로 돌리려 해선 안돼! 굴신이야 굴신! 무릎을 쓰는거야!)

《만풍년》긴 상모수의 《영예》를 석두자에게 넘겨주던 선배의 목소리까지 되살아났다.

그렇다! 그것은 공화국창건 25돐을 경축하던 대음악무용서사시의 무대였다.

100명 관현악단의 연주에 따라 500명 고정합창단의 방창이 울려 퍼진다.

벼가 춤을 추고 물결친다.

요란한 북소리에 팽과리, 장고들도 장단을 돈다.

소고춤이 열썬구!

장고춤이 절썬구!

최절정에 달한 무대복판으로 긴상모가 돈다! 역세게 돌아간다...

잠시후 석두는 뒤처리를 하고있었는데 무용부실의 정적을 깨듯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전화의 임자를 직감적으로 예감하였으며 이제 그에게 전해야 할 자기의 결심으로 해서 가슴이 울렁거렸다.

《석두요? 난데... 아니. 벌써 끝났다고? 아, 역시 석두가 다르긴 달라. 그런데 이거... 정말 야단났구만!》

상수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들뜨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자기가 신주구의 공연회장에 와있는데 관통련습총화가 계속되어 빠질 형편이 못된다고 사정하였다.

《널 기다리게 할수도 없구... 정말 미안하게 되었는데 상모는 거기에 두어주었으면 좋겠네. 이번 모임을 끝내고난 뒤 청상회역원들을 소개할겸 내 정식으로 찾아 가겠소... 석두, 이번엔 정말 고맙소!》

《상수, 그건 아니요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요!》

석두는 마음속으로 바재이던 결심을 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꾸만 더듬거리는 말을 겨우겨우 이어가며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

《뭐라구? 공연에 출연시켜달라구...》

《상수, 공연을 눈앞에 둔 지금 와서 말하기가 참으로 미안한데... 이젠 늦지 않을까?》

《석두... 자네가 조고의 무용부실에서 상모를 고쳐보겠다고 말하던 때 내 웬일인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더랬소. 자넨 학생때부터 처음엔 남의 말을 순하게 들을줄 모르고 자꾸 빼놓아진 외곶으로만 자기의 고집을 굴러가던 사람이

였으니까...》

《그렇던가...》

《늦고 빠르곤 쓸데없는 걱정이겠지. 나부터가 첫시기엔 청상회역원이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소. 그런데 모임동원의 대상자였던 내가 어느새 동원자가 되고 모임실행위원이 되고 오늘은 공연의 출연자야. 이번 참가자들은 누구든 꼭절 많은 사연을 가슴속깊이 묻어두고 아니, 그것을 이겨낼 마음으로 하나둘 모여졌소.》

《!》

《그러니 이제 최석두가 긴상모를 들고 여기로 오겠다하고 알려준다면 모두들 반가와할거요.》

《놀리지 말라는데두... 그렇다면 내 당장 거기로 가겠소. 공연날까지 내 일도 다 끝내겠소!》

석두의 머리속으로는 이제 만나게 될 조고시절의 그리운 얼굴들이 번갈아 떠오르고있었다.

《그리구 석두...》

상수는 잠시 말끝을 얼버무렸다. 수화기너머 자못 심각해진 상수의 기색이 보이는듯싶었다. 석두는 지도 모르게 들뜬 기분이 가셔지고 긴장해지는 자기를 느끼고있었다.

《자네가 이번 모임에 스스로 나서게 된것은 실행위원으로서 아주 기쁜 일이요. 하지만 무대에서 긴상모를 돌릴 모습을 자네 딸이나 안해가 볼수 없는것이라면 내 심정은 복잡해...》

《아니, 그건...》

《내 전번에도 말했지만 이번 모임의 제목은 <우리 꽃봉오리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거요. 우리들이 응원할 꽃봉오리들속엔... 난 자네 딸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해.》

《...》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연은 내외간밖에 알수 없는 일이고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참견할 문제도 아닐거야. 그러나 공연에 출연하리라는 자네 결심이 친구이기때문에 망설여지던 나에게 이 말을 하게 했소.》

《!》

《석두, 거기가 무용부실이지?... 졸업식날 밤 부서진채 내버려둔 상모를 거기서 하나하나 고쳐가던 자네모습을, 후배들에게 절대로 이런 상모를 넘겨줄수 없다고 하던 그때의 그 말을 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있소.》

《...》

무용부실의 거울은 수화기를 든채 머리를 푹 떨구고 서있는 석두의 모습을 말없이 비치고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길이 없었으나 머리카락이 엮어져 반나마 드러난 정수리는 떨리고있는듯 하였다...

다음날 아침 여느때보다 일찍 일어난 석두는 도야마로 전화를 걸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먼저 처가로 전화를 걸어보기는 처음이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재일조선문학예술의 개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해 나가시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다

(총련) 손지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발전시키고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려면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언제나 해외에 사는 재일조선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해외교포운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재일조선문학예술의 개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해나가시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다.

주체적문예사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외교포문학예술의 개화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여 나가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발전의 매시기 재일조선문학예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문학예술을 새로운 경지로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으로서의 총련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총련이 체육문화활동을 잘하면 재일조선 청소년학생들과 동포들속에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들이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총련의 문학예술의 영예로운 사명을 밝혀주신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에서 총련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같은것을 하면 문학예술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좋을뿐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민족교육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과시하고 총련의 권위를 더욱 높일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에서의 음악무용서

사시공연을 이국땅에서 진행하는 혁명사업으로 보시고 문학예술을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고 동포들을 애국사업에 헌신하도록 하는 중요한 고리로 여기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의 창작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헤아리시고 조국의 유능한 예술인들이 적극 도와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참고자료와 민족악기들을 비롯한 창조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음악무용서사시공연을 수록한 록화물을 친히 보아주시고는 총련에서 음악무용서사시를 창작하여 무대에 올린것은 세계 해외교포문학예술사상 전례없는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해빛아래》는 동포대중을 교양하는데 아주 좋을것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성과리에 진행된 대음악무용서사시공연은 총련의 위력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으며 총련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고 군중문예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대작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은 이와 같은 큰 형식의 작품에 대해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한것은 역량보다도 우선 그 대본을 앞세워야 하는데 총련문학예술인들중에는 것처럼 큰 형식의 작품의 대본을 선뜻 맡아 쓸만한 작가가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였기에 작품의 대본을 완성할수 있었고 몇천명이 출연하는 작품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총련은 《조국의 해빛아래》에 이어 《조국과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를 성과적으로 창작공연하였다.

이 음악무용서사시들은 모두 동포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공화국공민된 긍지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참으로 1960년대부터 재일조선문학예술사업에

관심을 돌리시어 새 경지를 개척할수 있도록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어 총련은 문학예술을 통하여 자기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민족교육을 압살하려는 반동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큰 형식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재일조선문학예술인들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재일조선문학예술은 1970년대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속에 사회주의조국의 문학예술성과들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고 총련의 예술단체를 튼튼히 꾸려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높여 총련의 문학예술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한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재일동포들속에 적극 보급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을 애국운동에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도록 하시었다.

여기에서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있는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준비사업을 료해하시면서 예술단의 공연규모는 통이 크게 하여야 하며 음악무용종합공연뿐 아니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도 하도록 하시었다.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은 재일동포들에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끝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안겨주었으며 찬란히 꽃피고있는 주체적문학예술의 위력을 떨치는 사변으로 되었다.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작품은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를 산 현실로 체합하였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 동포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여 총련이 제시한 애국사업에 기여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아야 하며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고 생활을 풍부히 반영하는 문제 등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작품창작에서 거울로 삼아야 할 수많은 사상미학적문제들을 받아안았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비롯한 예술단들을 보내주시어 총련의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뿐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예술단체들을 튼튼히 꾸리며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높일수 있도록 현명하게 조

직령도하시었다.

총련의 예술단체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총련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이 동포대중을 교양하고 애국과업수행으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수 있다.

총련의 예술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식견을 높이고 예술적기량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의 조국방문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노래와 춤으로 70만동포들의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싶어하는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재일조선예술인들의 조국방문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문학예술성과를 따라배울뿐아니라 그것을 재일동포들속에 보급하는데서 혁명가극공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공연활동을 광범히 벌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혁명가극을 전습받은 재일조선인중앙예술단 예술인들로 《금강산가극단》을 무을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고 그것이 총련의 예술활동에서 중추적역할을 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금강산가극단》을 새로 조직할데 대한 조치는 총련안에 주체의 문예리론과 방침에 의거하여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예술을 꽃피워나갈수 있는 핵심적인 예술인집단을 꾸림으로써 예술활동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다.

《금강산가극단》의 창립은 총련의 문학예술사업을 높은 경지에로 끌어올리며 개화발전하는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대외에 널리 시위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총련의 지방가무단사업을 개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총련지방가무단의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방가무단의 임무와 사명은 동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주체조선의 참다운 해외공민된 영예를 가지도록 교양하며 매 시기 동포들을 애국과업수행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술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금강산가극단》을 무어주시고 총련지방가무단의 임무와 사명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었다.

창작공연성과의 열쇠가 작가, 예술인들의 자질향상에 있다고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매해 한번씩 조국에 오면 그들의 수준이 더 높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조국에 와서 사상예술적기량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매해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깊이 체득하게 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높은 가치있는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될수 있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로 총련의 문학예술단체들은 튼튼히 꾸려졌으며 작가, 예술인들의 자질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0년대에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문학예술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문학예술의 담당자들인 작가, 예술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총련결성 25돐을 맞으며 애국혁신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던 이 시기에 문학예술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작가, 예술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은 총련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치며 동포군중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과 총련의 문학예술사업을 개선하여나갈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변화발전하는 애국운동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문학예술사업을 개선하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총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실무적수준과 창작적기량을 높여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총련문학예술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작가, 예술인들의 준비정도를 깊이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문예일군들이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무장하며 그들의 창작능력과 예술적기량을 적극 높일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총련의 문학예술일군후비를 전망성있게 키울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총련의 문예일군후비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는것은 이시기 새세대 문예일군대렬을 끊임없이 보충

하며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총련 각급 학교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 문예일군후비를 체계적으로 키우는 한편 조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총련에서 창작가, 예술인들을 키우는 사업도 적극 짜고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음으로 이 시기 총련의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동포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에 의해서만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에서 문학예술소조를 광범히 조직하고 그 운영을 잘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총련조직들이 문화예술사업을 대중화할데 대한 요구를 언제나 틀어쥐고 2세대, 3세대 동포들과 젊은 상공인들의 특성에 맞는 군중문화소조활동을 벌리며 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총련의 실정과 동포들의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총련에서 그들의 정서에 맞는 대중적인 서정가요들을 만들어 널리 부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이 모든 방침들은 총련의 문학예술사업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정당한 방침이다. 또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힘을 키워 문학예술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게 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문학예술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총련의 문학예술일군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은 비상히 높아졌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재일동포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조국애, 민족애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었다.

영화문학 《은비녀》, 《어머니의 소원》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과 소설, 시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각종 문예소조들이 무어지고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조직되여나갔다. 그 자랑찬 성과들은 총련결성 30돐을 경축하여 창작공연된 음악무용서사시 《5월의 노래》에서도 크게 파시되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의 문학예술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음으로써 1980년대 총련조직들은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하여 총련일군들과 동포군중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총련애국사업에 힘있게 불려일으킬수 있게 되었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대의 변화발전하는 재일조선인운동과 새 세대동포청년들의 미학정서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총련의 문학예술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세대 동포청년들을 애국위업의 주인으로 교양하여야 할 애국운동의 실정을 통찰하시여 총련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특성을 잘 살려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총련은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 **《총련사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총련의 예술은 자기 특성을 살려야 한다》**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이 시기 총련의 문학예술활동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들에서 문학예술을 통한 새세대 동포교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총련은 문학예술창작과 공연활동에서 자기의 얼굴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하며 조국의것을 덮어놓고 모방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기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며 총련에서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내용을 놓치지 말고 그 사상성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예술형식은 그 어떤 틀에도 구속되지 말고 자체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문학예술활동에서 자기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사상은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정서적향에 맞게 창조발전시키는 문제로서 이것은 문학예술에서의 주체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문학예술의 생활력, 건인력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감정정서를 어떻게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총련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총련문학예술로 하여금 총련의 애국사업에 문학예술이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었고 재일조선문학예술의 사상교양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총련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창조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재일조선문학예술은 새세대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 감정정서를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올수 있었다. 특히 문학예술에 남아있던 도식적이며 형식적인 낡은 틀이 점차 극복되고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문학예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기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무단을 비롯한 예술단과의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예술인들이 동포들속에서 예술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금강산가극단》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유일한 해외의 교포 예술단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선전하며 재일동포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위력한 예술집단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총련의 모든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마음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새세대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동포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조국의 통일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예술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재일조선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주체의 해외교포예술단에서 사업하는 영예를 가슴에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성실히 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 예술활동을 더 정력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든 재일조선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전선길을 이어나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삼가 올린 대합창의 록화편집물을 친히 보아주시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일본도쿄의 한복판에서 1,000명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대합창공연을 진행한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대학생들의 공연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예술단의 음악예술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금강산가극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산이라고, 수령님께서 《금강산가극단》을 무척 사랑하셨기에 나도 《금강산가극단》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을 다 보시고는 오늘 공연준비를 잘하였다고, 성의가 알려진다고 과분하게 치하하시였으며 한 가수가 부른 노래와 그 가사를 두고 노래를 잘 불렀다고, 가사도 형식도 좋다고, 우리 혁명은 어제도 노래와 함께 있었고 오늘도 노래와 함께 있으며 래일도 노래와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은 일본땅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고는 바다 건너 머나먼 이국땅에서 민족문화를 꽃피우고있는 재일조선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재일조선문학예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내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이 우심한 속에서도 문학예술선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애국애족운동의 새 단계의 요구에 맞게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동포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고수는 새세기 민족문학예술운동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당의 문예전사로 굳게 믿어주시고 애국의 투철한 신념을 안고 창작공연활동을 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인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조국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와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평양영화축전을 비롯한 큰 국제문학예술행사에도 친히 불러주시

였으며 해마다 진행되는 2월명절과 4월의 봄명절을 경축하는 무대와 설맞이무대에 재일조선예술인들과 총련의 학생들도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시인들의 작품을 친히 보아주시고 작가 예술인들이 이룩한 창작적 성과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진정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을 친아버이사랑으로 한품에 안아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은 매 시기 총련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을 충성으로 불타게 하고 새 혁신의 원동력으로 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총련의 문학 예술사업은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 모란봉의 봄날에

변홍영

솔향기 그윽한 모란봉의 숲속길  
꽃피는 이 봄날에 가족야회 나왔더니  
소학생 손자녀석 제 먼저 달려가며  
어서빨리 오라고 할아버질 재촉하네

그래그래 어서가자 우리 한껏 즐겨보자  
꽃에 묻혀 하냥좋은 모란봉의 봄경치  
오늘은 일요일 시흥도 도도하니  
이 가슴에 넘친 기쁨 시 한수엔 못담겠네

×

마음씨 무던한 우리 집 만머느리  
평시에는 음식솜씨 별로 크게 못봤더니  
그가 빚은 송편이 오늘따라 별맛이요  
그가 담근 김치 또한 오늘따라 진미로다

아들손자 부어주는 한잔술에 비낀것이  
청청장송 아지곶에 걸린 구름만이라  
내 인생의 백발을 멀리로 밀어내는  
화목한 우리 가정 정이 철철 넘쳤구나

×

군대에서 제대되어 돌아온 막내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온 류다른 봄야회  
건드러진 새납소리 흥에 겨운 복장단  
애련정에 벌린 춤판 아니보곤 못가겠네

내 마음도 흥에 떠서 어깨가 절로 들썩  
막내도 어느결에 처녀와 짝 이뤘네  
이보소 로친네 우리도 춤을 춰세  
이 하루를 놓치고는 온 한해 후회되리

×

어깨 들썩 춤을 추며 안해 얼굴 마주보니  
주름진 그 눈가에 웃음 함뿍 어렸네  
조국이 어려웠던 고난의 그 나날에  
너인들 겪은 고생 있었던듯 없었던듯

식솔많은 주부의 천백날의 수고를  
바라노니 이 하루에 말끔히 가셨으면  
이런 기쁜 날과 날을 천년으로 이어서  
안해에게 젊음을 다시 찾아주고싶네

×

모란봉 온 등판이 사람들로 붐비는데  
얼굴마다 웃음이요 곳곳마다 노래로세  
기쁨넘친 봄풍경 한가슴에 안아보니  
왜서인지 저도몰래 눈시울이 젖는구려

이 봄날을 안아온 선군장정 천만리는  
얼마나 준엄하고 험난한 길이드뇨  
오늘도 우리 장군님 철령너머 계시는지  
뜨거운 마음속에 그려보네

## 고향에 대한 생각

한영애

얼마전에 나는 아들을 데리고 나의 아버지 고향을 찾았다.

평시에 아버지에 대하여, 그 고향에 대하여 말로는 많이 하였지만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나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지냈던 고향에 대한 낯을 심어주고싶은 마음에서였다.

언제부터 버르던 일인지라 아들은 무척 호기심이 동해하였다.

《어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그렇게 훌륭한 고장인가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할수 있으랴싶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가보면 알게 된단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낮익은 산과 들을 따라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조국에 대한 사랑, 당에 대한 충실성과 잇닿아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됩니다.》**

아버지가 한평생 그리도 못잊어하던 고향.

그 고향은 변화한 도시도 아니요, 기름진 벌방도 아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의 외진 산골이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범이 자주 나오곤 하여 마을뒤골은 범골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밖에 나서면 밤이며 가래 등 산열매가 주렁져 잠간사이에 한바구니씩 주어담는 풍요한 고장이다.

아버지는 추석때마다 도시에서 나서자란 나를 데리고 고향을 찾곤 하였다.

그곳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에 의하여 희생된 나의 할아버지의 묘가 있다. 해마다 묘주변에 심은 측백나무들도 손질해주고 애국렬사묘로 올라가는 돌계단도 손질해주고 묘비앞에 정성스레 엮은 들꽃다발도 놓아주곤 하였다.

혹시 먼바다항행으로 그해 추석에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귀향하여 고향을 꼭 찾곤 하였다.

말수가 적은 아버지였지만 어느때부터인가는

이담에 년로보장을 받으면 아예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때의 아버지마음을 다 알지 못하였다.

고향이란 어떤 곳이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가. 선친의 묘가 있고 나서자란 곳이어서 그리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고향을 지켜싸운 부모들의 피가 스민 땅이어서 그리도 못잊어하는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이 한적한 산촌에 무슨 미련이 있어 고향으로 내려가 살 결심까지 하는것인지.

아버지는 늘 가고싶으면서도 일이 바빠서 못가 군해서인지 중학시절부터 방학이 되면 나혼자서라도 이 한적한 산촌을 찾게 하였다.

마을어구에 흐르는 개울을 건느려니 언제인가 아버지따라 이곳에서 고기잡이하던 일이 떠올랐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여기에 오곤하였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하루종일 산벼랑 밑으로 굽이치는 이 개울에서 반두질을 하였다. 고기잡이재미를 알리 없던 나는 들꽃도 꺾고 돌장난, 물장난도 했지만 하루해가 너무 길었다. 나는 칭얼대기 시작했다. 이젠 들어가자고...

그때 아버지는 《왜 그러냐. 이 맑은 물이 얼마나 좋으냐》하며 개울물을 두손으로 떠서 두어모금 마시고 또 떠서는 나에게 먹여주었다.

그처럼 무뚝뚝한 아버지가 고향에만 오면 늘 흥겨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바위같은 사나이도 순진한 아이처럼 만드는 고향!

아버지에게 있어서 고향은 순수 나서 자란 곳만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분여받은 제 땅이 너무도 소중하여 늘 들에서 사는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 포기포기 곡식을 심으며 온몸에 습배이던 구수한 땅냄새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미제의 폭격으로 파헤쳐진 차길을 복구하며 밤새워 흘리던 더운 땀이었으며 조개산의 폭탄자리에 나무를 심으며 래일에 대한 포부를 안고 가슴뿌듯이 들이키던 싱그러운 잣나무향기였다.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된 기쁨을 안고 발목이 시도록 종일 후치질을 해도 성차지 않아 저녁별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에 넘치던 희열이었다.

그 시절에 매일처럼 느껴온 그 기쁨과 행복감, 끌어넘치는 희열과 랑만, 그것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온 긍지로운 나날들이었으며 그 기쁨과 희열로 하여 고향을 위하여 끝없이 성실하고 근면해지고싶어한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고향, 그것은 사랑이었고 자기의 온넛을 바치고 또 바치고싶어한 열정의 썸의 원천이었다.

그렇듯 고향을 깨끗한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 아버지였기에 한생 무역선을 타고 대양을 넘나들면서도 오직 당과 조국을 위한 길밖에 몰랐다.

어느해인가는 아버지네 《베개봉》호가 나라에 큰 리익을 주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떨어져있어도 아버지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조국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진출을 할 때에도 아버지로서 딸에게 왜 할 말이 없었으랴만 아버지는 평시에 입버릇처럼 늘 외우던 《당에서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뿐이었다.

이처럼 아버지는 당과 조국과 고향을 언제나 안고살았다.

나는 아버지가 것처럼 잊지 못해하는 고향에 출가한 후로는 갈 기회가 없어 자주 가보지 못하였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골을 고향에 옮겨왔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의 묘소도 찾을겸 이렇게 오래간만에 본적지를 찾게 되었다.

그사이 마을이 얼마나 많이 변하였는지 우리를 태운 배스가 마을어구에 들어설 때까지도 나는 그곳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을 떠먹여주던 그 개울에 놓였던 돌다리는 넓은 콘크리트다리로 변했고 다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소형발전소가 아담하게 일떠섰으며 개울 주변을 따라가며 석축을 하여 그 인상적인 산벼랑만 아니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저앞에 바라보이는 조개산기슭엔 지난날의 참외밭원두막은 흔적도 없고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앉았고 집집마다 아담하게 둘러친 생울타리 안에는 여러 그루의 과일나무들이 한창 꽃피며 벌떼들이 붐붕-분주히 날아다니고있었다. 또 산굽이를 돌아 삼촌네 집이 있는 가래골쪽으로 내려가느라니 전에 없던 양어장이 펼쳐지는것이 아닌가. 규모있게 펼쳐진 양어장물결위에 흰 구름인양 염소떼가 비껴흐른다!

차안에서는 저마다 탄성이 튀어나왔다.

《참, 그림같구만!...》

《원, 무릉도원이라더니 전설속의 신선이 찾아왔다가 놀러앉자구 하겠수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곧 삼촌네 집뜨락에 들어섰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것은 삼촌의 모습이였다.

농사일로 곱늘어보이던 삼촌이였는데 이제는 년로보장나이가 되었지만 그때보다 젊어보이는것이었다.

고향땅의 전변을 두고 놀라와하는 우리에게 삼촌은 이야기하였다.

《저 산너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셨던 범안리가 있단다. 우리 마을도 범안리를 닮아야 하지 않겠냐.》

하루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나는 잠들수가 없었다.

희한하게 전변된 이 땅의 오늘이, 아버지가 늘 마음속에 안고 살던 이 고향땅의 변혁이 꿈만 같아서였다.

나는 밤이 새도록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 마련하신 이 땅의 전변에 대하여, 이 사랑하는 고향땅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은 말하였다.

할아버지가 고향을 어째서 한평생 못잊어하며 그리워하였는지.

어린시절의 아름다운 꿈이 움트고 땀흘리며 고향을 가꿔온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이 굳게 자리잡은 땅이기때문이라고.

바로 이 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로써 찾아주신 땅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가꿔가시는 귀중한땅이기때문이라고.

그러니 자기도 귀중한 고향을, 고마운 조국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목숨으로 지켜가겠다고-

## 성격의 매력, 심리의 여운

- 단편소설 《바다를 푸르게 하라》를 읽고 -

김덕선

단편소설 《바다를 푸르게 하라》(최련작 《조선문학》 주제 93(2004), 2호)는 인물성격의 새로운 면모를 생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과학자들을 아름답게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소설의 주인공은 현실에 실지 있는 인물이여야 하고 사람들결에서 늘 같이 숨쉬고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안겨와야 한다.》**

소설은 인물들의 형상을 산인간의 숨결을 느끼게 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준다.

소설의 윤해송은 바다의 푸른빛에 호기심을 품고 꿈많은 소녀시절부터 바다가에서 살았으며 오늘은 해양식물학자가 된 처녀이다.

그는 가정의 애뜻한 정과 사랑을 희생하며 침광시약을 연구한 연경연구사의 가슴에 찬물을 끼여준 당돌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처녀가 무엇으로 하여 연경에게는 뜨겁게 안겨오는 인물로, 림형준에게는 가정의 행복에 대하여 흥금을 터놓을수 있는 친근한 인물로 박신철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끄는 사랑하고싶은 인물로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가는가.

여기에 이 소설의 성격이 가지는 매력이 있고 여운이 있다.

윤해송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고있는것은 해양식물학자로서 바다의 자원을 만년대계 푸르게 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려는 애국심이다. 이리하여

그는 이와 저촉되는 연경의 과학연구사업을 반대하며 그와 타협없는 투쟁을 벌린다.

그것은 시약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지답사조를 책임지고 국에서 나온 박신철과의 관계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윤해송이 지닌 성격은 이것만으로써도 나무랄데가 없다.

그러나 소설은 윤해송을 연경의 새시약연구작업을 적극 도와나서는 성격으로 그림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 과학자성격의 면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인물성격을 단순화하지 않고 생활론리에 맞는 성격을 탐구하기 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윤해송은 처음 연경의 침광시약생산을 위한 시

험공장을 련포앞바다에 꾸리는것을 반대해나선다.

연경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슴아픈 일이였으며 박신철에게는 더우기 접수될수 없는 문제였다. 그것은 이 시약생산문제가 연경의 운명문제, 가정의 행복과도 관련되는 인간문제였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소설은 바다가에서 조가비를 좇는 연경을 만나는 장면, 신철과 연경이 시험생산문제를 토론하는 방에 들리는 장면, 연경의 합숙에 찾아가 그의 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통하여 윤해송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 연경이가 과학연구사업을 위해 헌신해오는것에 대한 인간적공감을 가지게 되는데서부터 오는 성격의 변화이다. 그리하여 해송의 성격을 처음엔 연경의 시험생산을 반대해나섰던 인물로부터 그 시험을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제기하는 인물로 성장한다.

윤해송의 이와 같은 성격적변화로 하여 해송과 맺어지는 인물들의 인간관계도 더욱 심화되며 그들의 형상의 뉘이 뚜렷해지게 된다.

그것은 해송이가 자기는 해조류연구사가 아니라 기계공학연구사라고 하면서 연경에게 시험공장을 포기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도 될 문제라고 하였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생명에 위협한 폐유에 의한 시약생산을 하는데서 볼수 있다.

이 과정에 연경에게는 남편과 아들을 둘러싼 가정적문제가 하나의 시련으로 제기되었지만 연경은 이를 꺾듯이 이겨나가며 그의 남편 림형준은 안해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서기까지 한다.

림형준의 이러한 형상은 윤해송이가 해조류에 대한 설명을 하며 연경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는것을 말하였을 때 그건 위선이다, 나도 집사람도 그런 위선은 바라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림형준이 안해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서는 형상은 또한 집에서 동자질이나 잘하는 녀인, 현숙한 안해로가 아니라 처녀시절의 열정을 안고 오늘도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는 연경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그의 사랑관, 행복관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더우기 림형준의 성격에서 감명깊은 대목은 연

경이가 새로운 시약연구문제로 집에 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들을 데리고 연경을 찾아와서도 연경을 만나지 않는 생활세부이다.

연경이가 아무리 강인한 마음으로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고있지만 그도 녀자이므로 아들 웅이 앞에는 모든것이 흔들릴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어 이 연경을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남편인 림형준의 소행을 후에 알게 된 연경의 심리는 어떠한가. 연경은 남편에게 왜 자기의 연구사업을 멈춰세우려 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오열을 터친다.

소설은 연경을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하면서도 형준에게 자기의 녀성적인것을 깡그리 바쳐가려고 애쓰고있는 안해로, 림형준을 안해의 과학적 열정을 보듬어주고 꽃피워주기 위해 헌신하는 남편으로 형상함으로써 과학자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지난시기 과학자형상에서 생활과 동떨어진 인간을 과학자의 전형으로 내세우거나 과학자가정의 경우 안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편이 안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여 생긴 성격적 충돌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위해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성격을 형상하고 있다.

만약 이 소설에서 해송의 성격을 연경의 시험 공장건설을 반대해나서는 인물로만 취급하였다면 해송의 성격은 단순해졌을뿐만아니라 메마른 성격으로 딱딱하게 되었을것이며 성격도 지금처럼 심화시키지 못하였을것이다.

림형준이가 연경을 찾아와서도 연경을 만나지 않은것을 오해한 윤해송이가 형준에게 가슴아픈 말을 던져준것을 안 신철은 형준을 대변하여 윤해송에게 항거한다.

이것은 림형준이가 연경의 과학연구사업을 도와나서기까지에는 얼마나 눈물겨운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윤해송을 타매하는 장면에서 신철의 성격특질이 뚜렷이 부각된다.

이를 통하여 과학자가정을 지지해나서는 박신철의 성격을 미덥게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단편소설 《바다를 푸르게 하라》는 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지 않고 생활에 있는 진실한 인간의 성격을 탐구하고 그들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전형화함으로써 과학자의 성격을 매력있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성격미는 성격형상의 가장 위력한 수단인 심리묘사에 의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있다.

소설은 첫 시작을 바다물은 왜 푸른가 하는 어린시절의 소녀가 지녔던 의혹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심리정서로 펼치고있다.

이것은 바다가 푸르다는것은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며 사랑스러운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이 바다를 푸르게 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투쟁을 동반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매 장면들과 구체적인 생활세부마다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특징짓는 심리묘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소설의 2 절 첫 대목에서 바다에 대한 묘사를 보자.

《바다는 조용히 뒤설레고있었다. 먼 수평선 끝은 부드러운 안개발속에 푸른 하늘과 맞붙어 어디서부터 바다인지 알수 없다. 파도는 그 수평선 한끝에서 달려와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래불에 얹어진다. 저들만이 아는 안타까움과 진정을 호소하러 달려왔다가 힘이 진하여 이 기슭에 뿌려던지는것 같다. 백사장은 그들의 실분을 다 새긴다는듯 파도를 부드럽게 품어주고…》

이것은 박신철의 랭대를 받고 나섰을 때의 윤해송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바다를 푸르게 하려는 뜻을 품고 그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안타까움의 심리가 밀려오는 파도에 비유되어 얼마나 생활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여운으로 안겨오는가.

이러한 심리묘사는 연경이가 과학연구사업에 바쳐오는 헌신성을 해송의 심리를 통해 드러내기도 한다.

《해송은 연경의 방을 나섰다. 밤하늘에 조각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며 외로이 떠있었다. 진해가는 힘을 가까스로 모아 마지막 빛을 뿌리는것같은 그 모양에 어쩐지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과학연구사업과 함께 가정의 《2 중의 짐》을 지고 애쓰는 연경연구사에 대한 동정이다.

이러한 심리묘사를 통해 연경의 남편 림형준의 성격은 또 얼마나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는가.

《…사위는 이미 어둑속에 잠겼다. 해송의 눈앞에 보이는것은 불그레하게 물든 수평선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푸르고 환희에 찬 바다의 설레임을 보고있었다. 그것은 지금껏 자기가 알고있던 그 바다가 아닌 무엇인가 그가 채 알고있지 못했던 숨엄한 사연들을 속삭이는 바다였다.…》

연경의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떠밀어주는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는 림형준을 새롭게 리해하는 해송의 심리, 이것은 림형준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많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소설은 여러 장면들과 계기마다에서 주인공의 깊은 내면세계를 정서적으로 생동하고도 섬세하게 그리고있음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소설의 마지막 웅이의 편지내용은 또 얼마나 과학자가정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는

가.

《엄마, 아버지 말씀했어요. 내 생일에 엄마는 나에게 바다를 선물한다고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주 넓고 새파란 바다대요.》

이러한 세부와 함께 인물들의 심리에서 탐구된 바다물의 푸른 빛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보여주는데서도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그것은 소설의 첫 시작에서 해송이 어린시절에 품었던 푸른 바다에 대한 의혹의 세계와 오늘 웅이가 지니는 푸른 바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하나로 이어주고있음으로 하여 어제와 오늘도 푸른 바다는 무엇에 의한것인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소설의 전반내용에 대해 다시금 련상하게 한다.

소설은 또한 림형준과 그의 아들 웅이가 연경과 해송이가 탄 새벽렬차를 내려주는 극적인 장면을 회화적인 화폭속에 담아보여줌으로써 강한 심리정서적충격을 주고있다.

소설의 마지막을 읽고나면 《웅이 아버지!》, 《웅이야!》하고 부르는 연경의 젖은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오고 행복에 겨워 울고있는 연경과 해

송이가 눈앞에 떠오른다.

소설은 이와같이 인물들의 심리세계를 정서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마치 한편의 시와도 같이 강렬한 충동과 함께 깊은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창조의 희열로 행복을 가꾸는것은 과학자가 지닌 가정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인물들이 지닌 성격의 매력과 심리의 여운은 지성적이고도 분석적인 심리묘사, 시적인 낭만성에 의하여 더욱 강조됨으로써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부족점이라고 생각되는것은 연경의 형상에서 바다자원을 리용하여 침광시약을 생산할 연구과제를 맡을 때 시약의 성공이 바다를 황폐화하게 된다는것을 드디어 해송이에 의해서 알게 되는것은 최첨단과학기술로 장비된 정보산업시대의 과학자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매력있고 정서적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의의를 가진다.

## 행복한 인연

김영옥

집에선 외동딸인 나에게  
일터에 가면  
형제들이 많아

웃는해를 반기며  
병원정문으로 들어설 때면  
창문가에 저마끔 매달려  
우리 간호원이 온다고  
소리쳐 부르는 정깊은 이들

즐거움의 그 한끝을 살뚫이 들면  
환자의 머리맡을 지켜  
병마를 이겨내던 그 밤들이  
지나가니 옛말같아도  
추억의 물결우에 실린 꽃잎처럼  
조용히 흘러오는가

내 진정과 사랑을 깡그리 바친  
그 정으로 일어서고  
일어선 그 마음이 다시 정을 주어

먼 곳에 가서도  
동생이 되고 오빠가 된 인연

이제 이렇게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나라의 따뜻한 한 지붕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형제가 될것인가

혈육의 사랑에 비기라  
장군님 한식솔로 아름다운  
이 땅의 생명들이 피줄처럼 잇고 사는  
그것이 인민이 되고 조국이 된 이 시대

장군님두리에 선군으로 뭉쳐진  
사회주의의 크나큰 한 지붕밑에  
진정으로 형제들이 많이도 태어나고  
사랑으로 행복한 인연들이 하 많이 태어나는  
그것으로 길이길이 무궁할  
아, 내 조국의 래일을 안아보는 마음이어!



## 통일애국투사의 신념에 대한 진실한 형상

-장편소설 《돌아오다》를 읽고-

장정춘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간고한 길이였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쓸쓸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뼈아픈 고난의 길, 그래도 끝내는 돌아와야 했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였다.

장편소설 《돌아오다》(리동구)에서 우리는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과 그 비극을 안고 모대긴 우리 겨레의 상처의 깊이를 투시해볼수 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듯 멀고도 간고한 길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어찌하여 우리는 해방후 60년이 되어오도록 같은 피줄을 나눈 겨레가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소설은 분렬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불행과 희생을 가져다주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겨레에게 말 못할 슬픔과 재난을 들뜨워왔는가 하는 그 력사에 대한 고발장이다. 그러면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애민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강毅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지닌 인간의 지조는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다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소설의 기본과제를 안고있는 인물은 주인공 김성규이다. 그의 성격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러 추호의 동요없이 원썬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끝까지 고수한 남녘의 모든 비전향장기수들, 통일애국인사들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징들이 일반화되어있다.

장편소설 《돌아오다》의 주인공 김성규는 해방후만이 아니라 해방전부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과 그리움을 안고 살며 싸워왔다. 그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통일애국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 무조건적인 관철자이다.

감방생활의 고독하고 지치고 쓸쓸한 순간이던 그는 해방전 서대문형무소에서 만났던 박달동지를 생각하며 힘을 얻곤 하였다. 가뭇든 땅에 단비가 잦아들듯이 박달동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가슴에 깊이새겨져 먼 후날 그의 옥중생활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 그때 박달동지는 성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가르치심따라 끝까지 싸우기 위해 결코 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네. 해산과 함흥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을 때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죽고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 자결을 하는것은 간단한 일이네. 그러나 살아서 장군님을 만나뵈와야 한다는 각오가 늘 나를 고무해주었네...》

이것이 성규로 하여금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싸워 이길수 있게 한 그 힘의 원천이 되었다. 만약 그가 해방전에 서대문형무소에서 박달동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해방후 남조선의 복잡한 정치환경속에서 그의 운명은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 혹 적들편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의 정치정세는 그것을 부정할수 없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있었기때문이다. 실지 그의 벗이며 해방전에 그와 반일애국의 길을 함께 걸은적이 있었던 리수성이 해방후 남조선에서 경찰관제복을 입고나타났던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주는다.

성규의 할아버지는 청춘시절에 동학란에 참가했고 후에는 의병으로 싸웠다. 따라서 성규는 민족적의분에 있어서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으며 자랐다고 볼수 있다. 그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애국의 지향으로 불탔지만 해방전에는 참된 애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알게 되고 해방후에 평양에 와서 **김일성**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는 진정으로 참된 애국애족의 길이 어데 있는가를 알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김성규를 원썬들이 어찌 굴복시킬수 있었겠는가.

소설에서 기본부정인물이며 가장 극악한 반동인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박병배가 성규의 전황이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닫고 그를 두고 도저히 깨뜨릴수 없는 압반과 같은 존재로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우연하지 않다. 박병배는 해방전부터 일제놈들에게 복무하면서 오랜 형사경력을 가지고있는 자였지만 성규와의 대결에서는 자기가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말에 의

하면 김성규는 평생 《빨갱이》를 다루어왔다는 자기에 있어서 두번째로 좌절감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강의한 신념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높은 인격과 완강성으로 하여 때로 적들까지도 탄복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다. 박병배가 첫번째로 좌절감을 느끼게 한 인물은 성시백이었다. 박병배의 견지에서 보면 김성규는 성시백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 한 인물로 인정되었다. 김성규와의 대결에서 그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어떤 고문과 회유, 모략도 그의 신념과 의지와 지조를 꺾을수 없었다.

고문장에서의 김성규의 모습은 그대로 원썬들을 전율케 한 불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돌조각상》은 아니었다. 가장 강의한 인간인 그는 또한 가장 인정깊은 인간이었다. 김성규는 다감하고 인정깊은 인간인 동시에 높은 리성과 지성이 있으며 현실과 역사를 볼줄 아는 밝은 눈을 가지고있었다.

이 소설의 1장부분에 빨찌산부대가 자리잡고있는 수림속 공지에서 펼쳐지는 한쌍의 청춘들의 결혼식장면이 있다. 빨찌산에서의 결혼식,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낭만적인가. 엄혹한 전투환경과 무자비한 전쟁분위기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 생활인가. 생활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 곳에 생활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싸움속에 인간들의 생활이 없고 전투라 하여 청춘들의 사랑이 없겠는가.

정의의 전쟁은 그런 참된 인간들, 사랑할줄 알고 중오할줄 알고 생각할줄 알고 느낄줄 아는 인간들이 하는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면, 그런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원썬들을 이길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결혼식장면을 아주 인상깊게 읽는다.

피아골의 평지에 수백명의 대원들이 정렬해 서 있다.

마치 무슨 중요한 회합이라도 가지는듯싶다. 그러나 회합은 아니다. 그것은 김성규와 현보숙의 결혼식을 위한 모임이다. 무엇이 독자들을 눈물나게 하는가. 처절한 싸움속에서 청춘들이 성례를 치른다는 그 사실자체가 눈물나게 하는것이다. 무엇이 독자들을 감동시키는가. 가정과 미래와 행복을 두고 생각하는 대원들의 숭고한 모습이다.

결혼식을 위한 축사에서 박영발위원장은 말한다.

《...2년여기간에 걸친 결사항전이 끊임없이 벌

어진 지리산은 빨찌산들의 영웅성과 희생성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후세에 길이 전할것입니다. 동무들은 지리산의 피바다, 불바다우에서 피어난 한떨기 사랑의 꽃입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가를 보여주는 낭만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랑신부에게 여기 모인 모든 동지들의 심정을 대표하여 뜨거운 축복을 보냅니다.》

축복받은 인간들의 삶은 아름답다. 이런 낭만적인 생활의 주인공들이 어찌 그 심장 뜨겁지 않고 그 신념과 의지 강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성규는 누구보다 다감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간, 혁명과 생활과 사람에 성실한 인간이다. 철창가에 별이 빛나는 밤,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조용히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를 읊을 때의 성규의 눈에 어린 눈물은 적들까지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한 그의 숭고한 마음과 정신과 인간애의 결정체였다.

성규와 보숙의 사랑은 처음부터 순결하고 열렬한 믿음에서 출발한것이었고 그만큼 섬처럼 깨끗한것이였다. 건전하면서도 열렬하고 진실하면서도 순결한 사랑은 강한 힘을 낳는 법이다. 전쟁도 그들 사랑의 맑은 샘을 흐리게는 못한다. 어찌면 그것은 불길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것은 아닌가.

그들의 사랑은 남몰래 간직한 마음속 행복의 빛이였고 고난속에서도 그들에게 힘을 준 미래의 생활의 꿈이였다.

보숙은 시샘이 많은 처녀였다. 그런데 그 시샘이 사랑을 더욱 불붙게 하였다. 모든 시샘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시샘이 사랑이였다. 이 소설에서 보숙의 형상이 가지는 의의는 그가 혁명의 미래를 낳아 그 피줄기를 이어준 전투대오의 어머니이며 혁명가, 비전향장기수의 안해이며 그자신 또한 죽음으로써 전향을 거부한 투사라는데 있다. 보숙의 형상은 그성격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지만 성규의 성격의 또 다른 한 측면 즉 그의 사랑관, 료리관을 반증하는 인물로써도 더욱 의미가 있다.

김성규는 놈들에게 체포된 후에도 사람들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종래의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줄기차게 벌려나간다. 이것이 그의 성격에서 중요한 특성을 이루고있는 내용의 하나이다. 그는 자기 신념만을 지킨 비전향장기수가 아니라 감옥속에서도 자신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통일애국사상을 심어주고 그들모두를 민족대단결의 거세찬 흐름에 합류하도록 이끌어주고 떠밀어준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락관적태도와 승리에 대

한 확신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통일애국의 뜻을 같이 하는 참된 길에 나서게 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리수성, 리재현, 정태묵, 아버지인 김진수 등이 있다.

리수성은 성규의 벗으로부터 동지로 된 인물이다. 벗으로 갈라졌다 동지로 다시 만난다는 여기에 그들의 우정관계, 동지관계의 본질이 있다. 그들은 해방전 목포상고시절에 민족의 참된 아들이 되리라는 하나의 뜻으로 독립만세도 함께 불렀고 감옥에도 함께 갇혔던 적이 있지만 두차례의 동란은 그들 두 친우를 대립되는 두 면에서 서로원수가 되어 만나게 한다. 한사람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지리산빨찌산의 전남도당 부장이 되었고 다른 한사람은 전남도경찰국 부국장이 되었다. 얼마나 심각한 극을 안고있는 운명의 교차인가. 성규와 수성, 그들중 누군가는 청소년시절의 순결한 애국의 뜻을 배반했음이 분명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인가.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두 벗의 리념상대결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애국애족과매국배족의 대결로 된다는데 두 인물이 안고있는 극의 심각한 의미가 있다.

수성이 동지가 되어 성규에게로 돌아오는 길은 순란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랜 기간 사회주의리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해방후에 그는 남조선에서 치안을 위한 권력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면 경찰판계복을 펼쳐입고 나타났지만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그것은 한갓 허황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부정의에 의해 정의가 유린말살되는 땅에서 어찌 정의를 말할수 있겠는가. 온갖 사기와 모략이 판을 치는 남반부의 현실속에서 그래도 그는 한조각 량심만이라도 간직해보려고 모지름을 쓴다. 하지만 량심의 폐허지대에서 어찌 량심이 허용될수 있겠는가. 지리산 《토벌》 당시 포위망에서 대원들을 먼저 빠져나가게 하고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빨찌산중대장의 최후를 목격했을 때 그는 리념을 초월한 그 기개와 희생성에 감동하여 비록 적대되는 관계에 있었지만 그의 시체를 잘 안장해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기개와 희생성이 그를 감동시킨것이다. 그것이 후날 놈들에게 의심을 사게 한 근거들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민군대가 남진할 때 수성은 보성경찰서 부서장이었다. 그때에도 그는 《보도련맹》가담자들을 총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나 집행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을 량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그 세계에 대한 환멸이었던지 아니면 북조선에 대한 그의 동경심의 작용이었던지 혹은 자기 위안이였

던지 그것은 그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자유민주주의》리념의 구체적인 체현자라고 자처하는 리승만이나 서민호 등 권력자들의 자리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리념과 현실과의 모순속에서 번민한다.

이러한 그가 지리산빨찌산들이 투항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놈들의 꾀임을 진실로 믿는다는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그의 내면심리의 모순이 있다.

김진수 등과 함께 감방속의 성규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목적은 성규를 돌려세우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일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되었다. 도리어 성규로부터 영향받은 수성은 자기가 성규의 사상정신세계에 감화되고있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모순속에 빠진다. 이것이 그의 동요의 첫 발단이였다. 법정에서 한성규의 최후의 진술은 수성의 가슴속에 세워졌던 마음의 기둥을 허물어버렸다.

성규와 수성의 성격형상에는 이 나라 분열의 비극이 가져온 수난의 력사가 반영되어있으며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비껴있다.

이 소설에서는 리재현의 형상도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리재현은 일찌기 목포상고시절부터 성규에게 호감을 가지고 은근히 짝사랑한 처녀였으며 지리산에서는 성규를 치료해준적도 있다. 하긴 부유한 가정에서 고이 자란 그가 2년 동안이나 엄혹한 싸움에 나섰던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의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있어 혁명은 목숨바쳐 이룩해야 할 성스러운 위업으로 자각되어있지 못했다. 혁명은 행세거리가 아니다. 때로는 시련의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고 목숨도 바칠 각오도 되어있어야 한다. 이 진리를 리재현은 체득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유리할 때 총을 잡았다가 불리할 때 그것을 집어던졌다. 물론 그는 다른 탈주자들처럼 야밤도주는 하지 않았다. 리현상을 직접 찾아가 귀가의사를 표시한다. 리현상은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귀가의사표시란 혁명을 포기한 배신자의 자기 패배의 인정,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기때문이다. 배신자는 그 자체로서 이미 패배한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리재현의 귀가 그것은 도주를 한 탈주자들과 다른 형태를 띠고있는듯 하지만 실은 그 역시 한갓 자기의 불명예와 수치심에 대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것이다. 탈주하든 공개적으로 떠나든 혁명과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가 비겁하다면 다른 하나는 파렴치할뿐이다. 아무리 그가

너성이고 가정환경이 남다르다고 해도 혁명에서 2종의 원칙이 적용될수 없다. 배신은 어디까지나 배신일뿐이다. 여기서 의심스러운것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조금도 낯을 붉힘이 없이 감옥안의 성규를 찾아올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가 이미 물러선 그 길에 어떤 미련이나마 들수 있었는지 하는것이다.

지리산빨찌산에 대한 놈들의 평화담판 교섭책동에 대한 그의 태도를 놓고 보자.

수성이 그에 나서는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는 이미부터 적진영에 있던 사람으로서 일시적이거나 적을 리념적으로 대변한 인물이기때문에 그의 평화담판교섭활동은 그 자체로서 타당한 측면들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는 그 담판교섭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진한 행동이며 허망한 꿈인가를 아직 몰랐다. 그러나 리재현의 경우는 다르다. 그의 평화담판계획에 대한 동의는 혁명과 동지들에 대해 다시 한번 배신하는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 전우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 행동의 이 비렬함, 이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그는 리현상이 평화담판교섭을 위해 자기가 나타났다고해도 자기를 반역자로 보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성규가 그 길에 나선다면 도당위원장들까지 다 그의 말을 믿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자각한 인간의 망상인가. 때문에 리재현이 자기혼자서라도 그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을 때 성규는 그에게 력사는 적들의 회유에 넘어가 수치스러운 자욕을 남긴 재현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준렬히 규탄하는것이다. 그런 리재현이가 후날 《민주회복부녀회》에서 일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수 있는것은 성규의 영향을 받아 민족대단결의 흐름에 합세했기때문이다.

소설에서는 또한 성규의 아버지인 김진수의 형상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있다. 그의 이전날의 삶이란 아버지구실조차 제대로 못하고 자기 한몸의 안락을 위해서만 바쳐온 한마디로 속물적 인간의 삶이었다. 그러던 그도 혁명을 이해하고 동경하며 아들을 장하게 생각하는 참다운 아버지로 성장한다. 누구나 아버지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추기는 어렵다. 때로는 죽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때도 있다. 김진수는 리승만독재정치를 반대하는 싸움의 바리케트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것으로써 장한 두 아들의 아버지답게 사는것이 어떻게 사는것인가를 보여주었다.

거기까지 오는 길에 그는 누구들을 생각했던가.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성규에게 선물하신 만년필을 넘겨주며 숨진 성규 어머니였던가. 사형이 선포되는날 법정에서 자기가 찾은 진정한 애국의 길에 대해 궁지높이 말하던 성규였던가, 혹은 흘러간 옛 시절 추상같이 부르짖던 아버지(성규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모두가 자기를 참된 삶의 길로 말없이 떠밀어 주었다.

소설에서는 김진수의 형상을 비롯한 일련의 긍정인물들의 형상을 그림에 있어서 만년필세부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 품에서 저 품으로 마치 계주봉처럼 넘겨지고 이어지는 만년필, 그러는 사이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사상이 통하였다. 그들은 그저 보통사람들이었다.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만년필을 한번 품에 간직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났던것이다. 천한 백성에 지나지 않았던 정태묵은 후날 통일혁명당(당시)당원이 되었고 혁명이란 말조차 알지 못했던 성규의 어머니 그리고 성규의 아버지, 그들도 혁명가의 어머니, 훌륭한 두 아들의 아버지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인간들로 되었고 그저 소박하기만 하던 사람들은 강의한 인간들로 되었다. 마치 만년필로부터 어떤 신비한 힘의 작용을 받는듯 싶다.

소설에서는 박영발의 형상도 인상깊다. 그는 소설의 1장부분에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 40대의 자기 나이보다 지속해보이는 지리산빨찌산의 전남도당 위원장이다. 일제시기부터 사회주의운동에 나섰고 감옥생활도 여러번 했다. 그는 박만협중대장의 최후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규와 보숙의 결혼식을 마련해준 지휘관들중의 한 사람이다. 그자신도 끝까지 빨찌산부대를 이끌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장편소설 《돌아오다》는 김성규를 비롯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통일애국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온 통일애국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을 생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여기에 이 소설의 형상들이 가지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 과연 통일의 날은 언제올것인가. 언제면 우리도 통일된 조국에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것인가. 소설은 이러한 문제들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 연필화



세르게이 리보브

하수홍 역

전쟁시기 어느 이른 가을날에 있는 일이었다. 나는 하천려객선 정박장의 군인매표구앞에 줄을 서고 있었다. 발동선이 언제 나타나겠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다림칸에도 모든 통로에도 아래 갑판에도 방수포나 거적을 씌워놓은 짐들우에도 사람들이 앉았거나 누워있었다. 가정에서처럼 온기를 풍기는 커다란 가마결에서는 늙수그레한 병사들이 식량을 짬짬히 나누고있었고 한 녀인이 실컷 울다 난 얼굴로 어린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으며 그 옆에서는 도미노쪽을 통탕거리면서 도미노놀이를 하고있었다.

이전에 식당이던 방에서 우리는 전쟁전의 러객선운행표가 붙어있는 유리판을 오래동안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형언할수 없이 아름다운 하얀 발동선이 한척 그려져있고 그우에 《강려행은 가장 좋은 휴식》이라고 써여있었다.

우리는 부두의 상선장을 빙 돌아간 좁은 갑판으로 나와 마지막 입담배를 피우면서 덤덤히 수면을 바라보았다. 불이 켜진 수로표식들이 떠있는 넓은 강은 스산해보였다. 뜻밖에 어데선가 기적소리가 울리었다. 우리는 매표구로 우르르 달려갔다. 거기서는 벌써 줄을 짓고들 있었다. 모두들 흥분하여 매표구쪽으로 비집고 나가면서 신임장이며 후불권을 펼쳐들었다.

《군관동지들에게 알립니다!》 운전사령이 짜진 소리로 알리었다.

《직위를 불문하고 모두 짐배에 올라야 합니다.》

줄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조용하십시오!》하고 운전사령은 한팔을 쳐들었다. 《발동선에는 아이들과 사민부상자들이 타고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었다. 발동선이 끄는 짐배의 선창으로는 가파로운 사다리가 놓여있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발로 층층계를 더듬으며 내려갔다. 누군가 발을 헛디디여 투덜거렸다. 밑은 먹물을 뿌린듯이 캄캄하였다.

손전지불빛이 어둠속에 줄지어선 상하단으로 된 널침상이며 널장을 무어 만든 탁상이며 가느다란 사슬에 고뿌가 매달려있는 물통을 비치고 온 선창안을 한바퀴 빙 돌아 그 어떤 선전화의 한끝을 스치더니 다시금 널침상으로 돌아갔다.

겨우 배낭을 베고 외투자락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고 누울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발동선의 회전륜날개가 물을 철썽거리는 소리며 옆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고 뒤치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어 종시 잠들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나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다시 시작된것 같았다. … 밖에 나가볼가? 다시금 전지불이 출구를 찾으면서 선창안을 빙 돌다가 또 한번 벽에 붙인 선전화를 비치였다.

이번에는 전면을 다 비치였다.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내가 그날 밤 전지불의 둥근 불빛에 비쳐본 그 선전화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파헤쳐진 별판, 곤두선 땅, 비구름이 무겁게 비낀 하늘, 이 별판을, 이 하늘밑을 군인외투를 입은 한 처녀가 걸어간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훑날리고 외투자락을 붙어제킨다. 그러나 처녀는 앞으로 간다. 완강하게 걸어간다. 선전화에 그려진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선전화에 그려진 처녀도 그 너자를 그린 사람도 내가 알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나의 동무 알렉산드르 포카레브가 우리 대학의 녀학생 리다 곤드라찌예바를 그린 연필화가 어떻게 선전화로 되었을가? 이 선전화가 어떻게 여기에 와 붙었을가?

나는 갑판에 나가서 물통걸에 놓인 장결상에 앉았다. 등뒤에는 통나무벽이 있고 벽에는 가림막을 드리운 어둑컴컴한 창문이 있었다. -승무원실이다. 고물 어데선가 암탉이 잠결에 구구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내가 낮선 마을에서 밤중에

집앞에 좀 앉아있으려고 밖으로 나온것만 같다. 다르다면 그저 그 마을이 자리를 떠서 어두운 강우를 뚫고 떠나려가는것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발동선이 짐배를 끌고 힘겹게 흐름을 거슬러오르는동안 지금은 선전화로 된 그 그림을 처음 보던 때를 회상하였다.

전쟁전에 우리는 우리 대학생 구락부의 미술연구실에서 그림공부를 하였다. 기실 그것은 보통 애호가소조에 불과하였지만 우리로서는 소조를 연구실로, 자신을 연구생으로 치부하는것이 유풍하였다.

드미트리엠프스끼가 우리를 지도하였다. 그는 이름없는 화가, 지어 불우한 화가이기도 하였지만 예술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었다. 습작을 할 때면 그는 우리가 별장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을 본다고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화필을 빼앗아 그것으로 화판을 쿵쿵 찌르며 어떻게 그릴것인가를 가르쳐주곤 하였다.

프레찌야코프비미술박물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설명할 때면 흡사 그가 그 그림을 새로 그리거나 하는듯 그의 두손이 화폭우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것이였다.

드미트리엠프스끼는 우리에게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강의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못하고말았다. 그의 마음속에 빛과 그늘처럼 자리잡고있는 공감과 반감이 그것을 방해하였던것이다. 오래전에 죽었거나 오래전에 인정을 받은 거장들에 대하여 그는 혹은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모욕적인 독설을 퍼붓기도 하는데 마치나 그 거장들이 자기 작품을 처음으로 그의 심사를 받으려고 내놓은것만 같았다.

우리들이 석고상을 그리는 동안 드미트리엠프스끼는 믿기 어려울만치 안달아하였다. 조급성이 그를 괴롭힌것이다. 그는 어데선가 파파 늙은 로인을 모델로 데리고 왔다. 로인은 드미트리엠프스끼가 유명한 셰로브선생의 학급에서 배울 때 셰로브선생자신이 모델로 쓰던 사람이었다. 그는 로인과 더불어 옛날을 회고하며 그에게 우리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모델로 서는 시간을 정하였다. 그리고나서 손님을 배웅하러 나갔는데 돌아왔을 땐 그에게서 술냄새가 풍기였다.

하루는 드미트리엠프스끼가 의외의 파제를 내놓아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매 개인이 자유제목으로 풍경화건 초상화건 풍속화건 마음에 드는것을 유화로건 연필화로건 수채화로건 선화로건 그 무엇으로건 마음에 맞는대로 그려야 하였다. 그 작품들을 우리는 구락부에 전시하여 우리 매 개인이 무엇을 할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저 하며 무엇때문에 그림을 그리는가를 보여줄것이였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반대하자 드미트리엠프스끼는 성을 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어린 중학생들도 자유제목으로 작문을 짓습니

다. 갓 진출한 젊은 배우도 집에서는 차츰끼역을 연습합니다. 동무들이 기교로써는 나를 놀래우지 못할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무들에게 자신의 사고, 사고와 감정을 요구할수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이한 경쟁은 대학에서도 다 알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고대하게 되였다.

드디어 전람회를 열기로 정한 날자가 닥쳐왔다.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자기 작품들을 내걸기 시작하였다. 구락부(회관)에는 채 마르지 않은 화구며 데레핀유냄새가 가득 풍기였다. 그런데 2학년생인 또까레브만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으며 어찌된 일인가고 묻는 말에 도리질을 하면서 미처 못했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두시에는 초청한 사람들- 대학지도부, 공청위원회, 대학생들, 친구들, 지기들이 오기로 되어있었다. 어느때는 떠들썩한 일이면 질색이던 드미트리엠프스끼가 그날만은 자기도 손님들을 초청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켰다.

드미트리엠프스끼는 그 전날에 예고한것처럼 열두시 정각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레복을 입고있었다. 우리는 그가 그런 차림을 한것을 전에는 한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는 우리들 매 사람과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고나서 천천히 장내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는데 마치 그앞에 묵직한 액틀에 넣은 거장들의 화폭을 진렬한 원주실이 활짝 열려있는듯이 그렇게 걸어갔다. ... 그러면 우리는? ... 우리도 그의 기분에 감염되어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불현듯 우리는 자기의 생활에서 실현되어본적이 없는 그런 희망을 드미트리엠프스끼가 우리에게 안겨주고있음을 감촉하였다...

그는 매 그림을 오래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는데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고 무엇이 들지 않는지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그에게 캐묻기 시작하였다.

《심사는 후에 합시다.》하고 드미트리엠프스끼는 대답하였다.

《동무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군, 또까레브.》(그는 보통 우리를 성만으로 불렀다.)

《저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또까레브가 말하였다.

《동무는 이날을 빈 손으로 맞이했습니까?》 드미트리엠프스끼는 한숨을 지었다.

《동무 일이 나는 섭섭합니다.》

《빈 손이 아닙니다. 아직 다 되지 않았을따를입니다.》 하고 또까레브는 드미트리엠프스끼에게 자기의 그림첩을 주저하면서 내밀었다.

드미트리엠프스끼는 그것을 펼쳐서 그림장을 넘기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장마다 몇가지씩 급히 휘갈긴 연필속사들이 있었다. ... 몇몇 그림은 수채화로 하다가 만것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내가 후에 자세히 보고 안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인것은 다른 것이었다. 속사는 그 전부가 다 동일한 처녀-우리 학급의 녀학생인 리다 끈드라찌예바를 그린 것이었다. 그 녀자가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있는 장면, 생각에 잠겨있는 장면, 충충계의 란 간너머로 몸을 굽혀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장면, 거울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장면.

그는 음악대학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환희에 넘쳐 여념없이 연주를 듣고있는 리다의 모습도 그리었다. 그런데 그때 리다와 함께 앉아있던 유리 뽀뽀는 그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유리의 손만을-두귀를 세우고 열심히 음악을 듣고있는 리다의 손과 팔걸이우에 나란히 놓인 느린하고 묵직한 손만을 그렸는데 참말이지 유리의 손은 음악회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의 손이라는것이 일목요연하였고 그렇게 나란히 놓인것이 보기만해도 화가 났다.

드미트리엠프스키는 그림을 한장한장 번지고 우리는 그의 어깨너머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는데 또까레브가 눈의 표정을 살리려고 애쓴것을 엿볼수 있었다. 그는 한번 그러서 안되면 다시 그리고 또 그리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공하였다. -얼굴은 대강 윤곽뿐이지만 눈은 벌써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림에 그린 리다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아온 그 리다였고 그런가 하면 또 그 리다가 아니기도 하였다.

또까레브는 1년반가량전에 대학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다를 알고 있었고 많은 동무들이 은근히 그 녀자를 사모하고있었다. 그러나 또까레브는 그 녀자의 얼굴, 그 녀자의 동작, 그 녀자의 미소를 다시, 또다시 그리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 녀자에게서 발견한 것이었다. 우리들 역시 느끼고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던 그 남다른 표정을 그가 찾아낸 것이었다. 사실 우리들은 그 표정을 말로 형용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려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가? 양전한 처녀인가? 좋은 처녀는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 ... 아름다운 처녀인가? 모르겠다! ... 그냥 지나쳐버릴수 없으며 눈여겨보지 않을수 없는 그런 처녀였다.

《리다를 맨앞에 앉히라.》 하고 배구경기를 앞두고 학부의 한 궤보가 말하였다. 《그러면 선수들이 죽기내기로 경기를 할거요...》

또까레브의 속사들에는 이 모든것이 담겨있었다. 그림들을 보면서 나는 자기가 말없는 비상한 사랑의 고백을 목격하고있는듯이 느꼈다.

마지막 한장, 바로 그것이 그 처녀가 벌판을 걸어가는 그림이었다. 드미트리엠프스키는 그림첩에서 그것을 뽑아내어 오래동안 들여다보다가 긴

숨을 내쉬고는 또까레브를 껴안고 그 이마에 입을 맞추더니 또까레브가 어리둥절해하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함을 쳤다.

《동무들은 어째서 서있기만 하오? 이것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다 말입니까?》 하고 우리 반장이 놀래면서 불안스럽게 물었다.

《동무는 뭘 반대하시오?》 하고 드미트리엠프스키는 그에게 말하였다. 성을 낼 때면 그는 깍듯한 말투를 쓰는 것이었다.

《거의 스무장의 같은 녀대학생 초상화!》 반장은 어깨를 으쓱하였다.

《핑장하네! 그 무슨 시위 갈구만...》

《그야말로 시위요! 옳게 포착하였습니다. 재능, 즉 나와 동무들은 비교도 안되는 그런 재능의 시위요!》 하고 늑은이는 웨치고 몸소 압정을 박으면서 그림들을 걸기 시작하였다.

늑은이는 제나름으로 정당하였다. 그는 그 여려해동안 초학도들을 지도하면서 줄곧 바라마지 않던 그것, 참된 천부를 발견한 것이다. 물론 그는 이날이 또까레브에게 있어 피로운 시련으로 될 줄은 생각조차 못하였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드미트리엠프스키의 개회사도 다른 소조원들의 작품도- 그 무엇도 또까레브의 그림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멀리 할수는 없었다.

처녀들은 서로 소곤거리면서 또까레브를 마치 이제 처음 만나는데 한 눈초리로 보았다. 그 속삭임과 《대인기군!》 하고 학부 벽신문주필이 한마디 한 말은 곧 일반적인 기본을 표현하였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사람인 우리 학부장은 미술연구실 지도자가 한 화가와 또한(학부장이 조심스럽게 표현한바를 빌면)한 대상만을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학적이겠는가고 의혹을 품었다. 드미트리엠프스키는 몹시 흥분하였으며 또까레브에 대하여 별의별 말을 다하였는데 만약 그 말들이 나를 두고 한 것이었다면 나는 행복과 자랑으로 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까레브에게 있어 가장 난처한 일은 앞에 놓여있었다. 관람과 심사가 끝나고 우리들이 이젠 전람회를 닫으려고 할 때 벽신문주필이 광실로 되돌아왔다. 그는 또까레브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하듯이 말하였다.

《령감(별명), 용기를 내게. 자네의 뮤즈(시인)가 오네. 처녀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거든. 동무들, 좀 있다가 떼오. 그리고 다들 여기서 좀 나가자구... 또까레브 자신이 설명해주게시리...》

우리는 《또까레브, 겁내지 말게!》 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말들을 지껄이면서 출입문쪽으로 나왔는데 바로 출입문에서 리다와 마주쳤다. 그 녀자에게는 전람회를 죄 돌아볼만 한 참을성이 없었으며 또 그렇게 교활하게 구는 성미도 아니었다.

그 녀자는 곧바로 또까레브의 그림쪽으로 걸어갔다. -놀라움과 노여움이 가득 차서 돌진하듯 걸어갔다.

《비슷한데.》하고 누군가가 말하였다. 그러자 우리들은 정말 판에 박은듯이 비슷하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편 간이 콩알만큼 되어 어쭙어서 볼품없이 서있는 싸샤 또까레브를 상상해보라. 우리들에게다 대면 그는 중학생같았다. 만약 그가 대학의 가장 큰 강의실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듣게 《여러분. 나는 리다 쾨드라찌예바를 사랑합니다!》하고 언명했다 한들 그것이 그의 그림들보다 더 큰 사건으로는 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리다를 상상해보라. 그는 방금 너두무들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동무들은 서로 앞을 다투며 이렇게들 말하였다.

구락부 온 벽에 리다의 초상화들이 가득 나붙었으며 소조를 지도하는 화가는 이에 대하여 장황한 연설을 하였는데 심지어 그중 한 그림, 바로 리다가 어쨌선지 파헤쳐진 별판을 군인의투를 입고 (아니, 참말로 군인의투를 입었어!) 걸어가는 그 그림은 영웅적충격을 전하는것으로 승리의 녀신의 형상이 담겨있다고 하더라...

{여기까지 말하고 아마 그들은 전화통에 대고 코웃음을 쳤을것이다. 그들은 리다의 동무들이었지만 어쨌든 리다를 당황하게 만들어놓는것이 재미있었을것이다.) 그리고는 리다더러 전람회가 끝 달기니 속히 오라고 하면서 구락부로 바빠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말게라고 덧붙였...

그리하여 지금 리다는 그림을 보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그 녀자 역시 우선 놀란것은 그림의 재능때문에가 아니였다. 리다에게 있어 주되는 문제는 다른데-(이 일을 나 자신은 어떻게 이해하며 주위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하는데 있었다. (저 애송이가 나하고는 안면이 거의 없는데 날마다 몰래 나를 지켜보며 나를 그리고있었구나... 글썄 그때내가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고 정원의 긴걸상에 앉아서 혼자 생각한 일을 그는 어떻게 짐작할수 있었을까? 그걸 짐작하지 못했다면야 어떻게 저런 얼굴표정을 그림에 그렸을까? 어디서 그는 나의 생각을 알아낼까? 저렇게도 잘 알다니! 모른다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못했을텐데... 그렇지만 설사 알기로서니 어떻게 알고있는것을 감히 표현할수 있을까? 누가 그러더 이 그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내걸게 했담?)

물론 시인이나 화가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나 그림으로 노래한다. 이것은 주지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시인들, 위대한 음악가들, 위대한 화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크낙한것이다. 그 사랑을 사람들은 길이길이

기억한다. 그 사랑을 두고 책을 쓴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문학시험을 칠 때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만큼 비상한 사랑인것이다.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을수 있는 녀인들 또한 비상한 사람들이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되고있는것은 리다에 대해서다... 리다와 자크가 달린 라사지 잠바를 입은 애송이에 대해서다. 그 잠바는 아마도 그가 중학교에 다닐 때 지은것일것이다. 바로 그가 지금 곁에 서서 간신히 용기를 내어 리다에게로 눈을 돌려고 한다. 모든것을 보아내는, 지어 리다자신도 생각이 미칠가 말가 한 일마저 보아내는 그 눈을.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고 리다는 속으로 생각하였지만 또까레브를 돌아보고는 딱딱하게 물었다.

《동무는 어찌려고 이런짓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녀성다운 물음이다. 때로 처녀들은 키스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이렇게 묻곤 하는 것이다.

또까레브는 리다가 별판을 가는 그 속사를 그 녀자에게 내밀었다.

《보십시오.》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이 《보십시오.》하는 한마디조차 힘겹게 발음하였다.

《나는 완전한 작품을 그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습작이지요. 기억을 더듬어서는 완전한 작품을 그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겠습시다.》

리다를 마음놓고 그린다는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녀자가 가끔 모델로 되는데 동의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그는 설명하고싶었지만 종시 그러지 못하고말았다.

속사에 힐끔 시선을 던진 리다는 자기가 생전 걸어보지 못한 별판과 생전 입어보지 못한 군인의투를 보았다.

《내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또 어쨌서 군인의투를 입었는가요?》하고 리다는 물었다.

그러나 이어 속사를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니 입을 다물고말았다. 우리들은 광실을 나갔다. 그 시각에는 제아무리 분별없는 익살군이라도 나가야 한다는것, 말없이 돌아보지도 말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나는 리다와 또까레브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고있으며 또까레브와 친해진 후에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서 또까레브의 처지가 곤란하게 되었다는것을 기억하고있다.

그의 속사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다. 대학에서는 상스러운 소문도 떠돌았다. 후에 나는 유리 뽀뽀브가 그따위 말을 꾸며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자는 너절한 인간이었다. 놀리는것보다 더 나쁜것은 우둔한 칭찬이었다. 이 모든것은 또까레브와 리다와의 관계, 나아가서는 그와 리다



를 둘러싸고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전과 같이 회의장 그 어데 앉거나 강의실 한구석에 박혀서 남몰래 자기의 그림첩을 꺼낼수가 없게 되었을뿐더러 원체 대학으로는 화첩을 가져오질 못하였으니 가져오는것만으로도 어리석은 질문을 받거나 회롱을 당하기가 일쑤였기때문이다. ...

뽀뽀브를 내놓고는 아무도 그를 일부러 모욕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저 동무들은 이것이 놀려주거나 비웃을 일이 못된다는것을 깨닫지 못하였을뿐이다.

리다는 소문을 개의치 않는것 같았지만 가끔가다 포카레브와 함께 그 어떤 대학일을 하게 되는 때면 그를 쌀쌀하게 대하였다. 그런즉 그 녀자가 포카레브 그림의 모델이 된다는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었다. 그렇건만 모델없이 작품을 착수할수 없다. 드미트리예스끼는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동무가 그 처녀와 말 좀 해보오. 그에게 알기 쉽게 모든걸 설명해주란 말이요. 이를테면 개인 감정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라 예술의 고상한 리익을 위한것이라고. 동무는 내 의도를 알겠소?》

그러나 나는 딱 거절하였다.

포카레브는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고민하였는데 옆친데 덮치기로 시험이 닥쳐서 그는 겨우 3점을 맞았다.

《그림을 덜 그리고... 서정시도 덜 짓고 도서관에 더 많이 앉아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게요.》 내가 우리 소조를 대표하여 포카레브에게 시험을 다시 치게 할것을 청원하려고 갔을 때 학부장은 이렇게 성이 나서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심리학을 강의하는 이 학부장은 인간정신의 모든 움직임에 능통한 사람으로 자부하고있었다.

나는 청원이 틀려진것을 알리려고 포카레브에게로 갔었다. 그해는 기숙사에 자리가 부족해서 대학에서는 조용한 빠르크거리에서 방들을 얻었다. 포카레브와 두명의 그의 동급생들은 목조2층집의 다락방에서 살았다. 밤에는 반원형의 들창이 하나 있고 천정은 경사졌다. 이 모든것이 우리에게 아주 량만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 량만적인 방은 여름이면 지독하게 달아올랐고 겨울이면 덥힐 엄두를 낼수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다른 설비들이 없는 대신 벽에 낡아빠진 전화가 걸려있었는데 전화통에는 붉은 번개살표가 서로 교차되게 찍혀있었다. 그 전화는 이 건물에 있던 그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던것이였다.

포카레브의 동거자들은 도서관에 가서 없고 그만이 침대에 누워서 락체한 과목을 짜증을 내면서 읽고있었는데 몇쪽의 그림이 마음을 끌지 못하도록 화면을 벽쪽으로 하고 놓여있었다. 이젠 시험을 다시 칠수 없다고 내가 말하자 포카레브는 한시를 덜었다는듯이 교과서를 침대아래에 내

던졌다.

우리는 그가 장학금없이 어떻게 살아갈것이며 저녁시간을 리용해서 어떤 립시로동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후에는 우리 소조로 화제를 옮겨서 전람회일을 회상하였다. 그러다가 앞으로 친교를 맺을 감정을 품고 헤어졌다.

나는 포카레브를 가까이 사귄수록 그의 속사를 처음 보던 그 전람회에서 깨닫지 못했던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어느날 나는 그와 함께 거리를 거닐었다. 지붕에서 눈을 쓸어들 내리기때문에 우리는 자주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서야만 하였다. 고드름이 아래로 날아내려 유리소리를 내면서 깨여졌다. 젖은 빙어리장갑을 낀 아이들이 sap으로 흐린 물을 몰아가고있었다. 거리의 소공원에는 해묵은 풀들이 눈우로 비죽비죽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강안통로의 란간에 널장들이 쌓여 있었다. 나무진이 방울져 해빛에 반짝거렸다. 널장은 려క్ష선부두를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다놓은것이였다.

알렉산드르 포카레브는 불그레한 송진방울도, 흐릿한 물도 여기저기 눈이 녹은 파란 땅도, 3월의 푸른 대기속에서 룡박이 뚜렷하고 진하게 보이는 나무가지도 -모든것을 가슴으로, 입으로 눈으로 빨아들이는듯, 삼키는듯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후 하루 《혹은 한주일일수도 있다.》 지나서 그는 불췌 뜻밖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모스크바에 첫 성벽을 쌓았을 때 그것은 흙이 었어. 흙을 부대에 넣어서 끌어왔지. 나무껍질로 엮어서 만든 부대였는데 알겠나, 어떤건지? 미투리같은거야. 흙을 다지고는 그우에다 잔디를 입혔다네. 그래서 여름이면 성벽에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

그가 교과서 하단에 작은 활자로 찍힌 글줄에서 암시를 받아 이 모든것을 상상한것인지, 혹은 우리의 산책이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반영된것인지, 아니면 이 두 과정이 한데 합쳐진것인지 알수는 없다. 자기가 만나보고 읽고 알아낸 모든것을 그는 룡박으로, 색조로, 움직임과 명암으로 보았다. 그가 볼 때 려사는 비단 년대와 인명과 사건의 설명들로만 가득차있는것이 아니라 화쪽으로 가득차있었다...

나는 화가의 상상력이란 말을 여러번 들었고 자신이 써보기도 하였지만 그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공민전쟁시기의 공청원들을 회상하면서, 군인외투를 입고 행군길을 걸어간 우리 처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세대의 미래에 대하여, 헤치고 나가야 할 앞길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면서 우리들이 머리에 그려본 모든것, 그 모든것이 포카레브의 상상속에서는 사랑하는 처녀의 형상과 융합되였다. 때문에 그는 리다를 단순히 바람을 맞받아서가 아니라 무서운 시련을 맞받아나아가

는것처럼 그리기도 한것이다. 그가 탐구하려고 한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가 자기의 작품에 표현하고자 한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림은 아직 다 그리지 못하였고 게다가 리다는 그가 최초의 속사를 방금 시작하던 때보다 그에게서 더 멀어져갔다.

6월의 더위가 닥쳐왔다. 골목으로 백양나무 꽃숨이 날아다녔고 별장지대의 역들에서 삐오네르(소년단원)의 나팔소리가 울렸으며 중학교 상급생들이 거리의 소공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있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숨막히는 강의실에 앉아서 마지막강의를 받은 귀등으로 흘러보내며 듣고있었다.

하루는 리다가 내게로 다가왔다. 비록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곤 하였지만 나는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이 녀자를 한번 만나본 사람은 그후에도 오래동안 그날을 비상한 사건이 있는 날로 회상할것이다.)라고

우리가 학부사업에 대하여 한참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문득 그는 발을 멈추고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또까레브가 어때요?》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것인가? 또까레브의 동급생들은 벌써 다 학업을 끝냈지만 그만은 그 지붕밀방에 막막히 들어앉아서 이를 악물고 시험준비를 하였고, 돈벌이로 제도를 말아다 그리기에 골똘하였으며 이따금 그림첩을 내들고는 착수하지 못한 자기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그리고 그 녀자, 리다에 대하여 생각하곤 하였다.

《여전하오.》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나에게서는 이 한마디가 모든것을 설명하는듯싶었다.

《그가 어디 사는지 동무는 알지요?》

나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은 알고있었지만 집주소를 기억하고있지 못해서 정확한 주소를 대줄수 없었다.

《그 집에는 전화가 있소.》 문득 나는 생각이 났다.

1년후 또까레브의 출발을 앞두고 우리가 어두워오는 모스크바거리를 걸을 때에 비로소 그는 그날 있는 일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리다는 수업이 끝나자 전화를 걸었다. 그 녀자는 교대사 필기장을 얻으러 들리겠노라고 하였다.

《언제 오겠습니까?》 하고 또까레브는 물었다. 그는 자기의 심장의 고동이 전화기로, 전선으로 전해지는것만 같았다.

《될수 있다면 5시쯤에 가겠어요.》 하고 리다는 대답하였다.

또까레브는 알렉세옙스끼의 대학생마을에 거주하는 동무에게 학습장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리다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고 주소만 대주고나서 주머니란 주머니는 죄 뒤져 돈을 긁어모

아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시계는 3시반을 가리키고있었다. 그는 전차로 두구간을 지나가다가 빈 택시를 보자 달리는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알렉세옙스끼 대학생마을이라는 행차를 듣자 택시운전사는 또까레브의 어린애같은 잠바를 훑어보면서 못미덥다는듯이 휘파람을 휘 불었다. 또까레브가 주머니에서 돌돌 말아진 돈을 꺼내보이고서야 택시는 떠났다.

또까레브는 험뎡거리며 기숙사로 뛰여 들어가서 학습장과 그리고 가능하면 돌아갈 차비를 꺾달라고 하였다. 또까레브가 찾아간 그 동무는 밖에 택시가 기다리고있는줄을 알자 놀라서 침대우에 벌렁 나자마졌다.

《이 귀공자를 좀 보게... 아니, 웬 일이야, 령감, 공부를 지내 해서 정신이 나갔나?》

그러나 그는 학습장을 내주었고 지어 옆친구들한테서까지 모아 돈을 20루블리가량 쥐여주었다. 약속한 시간을 한 10분 앞두고 또까레브는 집에 돌아왔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활짝 열렸던 창문이 바람에 탕 하고 달렸다. 유리가 방바닥에 산산이 흩어졌다. 불시에 6월의 소나기가 쏟아져내렸다. 그러자 또까레브는 리다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책상우에는 그가 도시의 다른 한끝까지 가서 가져온 학습장이 놓여있었다.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비줄기가 창문턱을 두드렸다.

그러나 리다는 왔다.

《아유 비두! 나는 겨우 뛰어왔어요... 창문은 왜 이렇게 뻤어요?》

그는 학습장때문에 온것이 아니었다. 또까레브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아보려고 온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리다가 이미 알고있는터였다. 알고있기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걸 결심도 이내 내리지 못한것이였다. 그렇지만 정작 전화를 걸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형클어진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문에 들어섰을 때 리다는 명랑하고 좀 거처큰 동지적인 말투, 사내애들과 말할 적에 쓰는 그런 말투로 류창하게 꺼리낌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 녀자는 미처 세마디도 말하기 전에 또까레브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그런 말투로는 찾아온 까닭을 그에게 말할수 없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전람회가 있는 후로 날이 갈수록 리다는 또까레브의 속사에, 특히 마지막속사에 그려진것과 같은 그런 자기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었으며 모르기는 해도 크낙한 운명에 대한, 크낙한 사랑에 대한, 위훈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였다... 우리 매사람이 청춘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것이니 자라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량만적인 망상처럼 내버리지 않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싸샤, 나는 동무의 그림을 봤으면 해요.》하고 리다는 단호하게, 매우 심각하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능청스러운 말인줄 알면서도 이런 말을 더 하였다.

《물론 동무가 바쁘지 않다면 말이에요...》

싸샤는 자기의 그림첩을 꺼내어 리다앞에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몸돌 곳을 몰라하였다. - 리다를 혼자 남겨둘것인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을것인지?

《싸샤, 동무는 왜 그러세요? 난 동무자신이 나에게 한장한장 보여줄줄 알았는데.》 그 녀자는 또까레브가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그렇듯 원하는 바로 그것을 말한것이다.

가지런히 앉아서 또까레브는 그림을 번지고 리다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또까레브는 자기의 그림이 말하고있는바를 말로 표현할 엄두를 결코 내지 못했을것이다.

또까레브와 같이 있는 동무들이 돌아왔다. 능글맞게도 그들은 깨어진 창문도 심지어 리다의 출현도 놀랍지 않은척 하였다. 리다는 모두와 함께 차를 마시고나서 작별하려고 일어섰다...

《날 바라다줄건 없어요.》 리다는 자기와 함께 거리로 나온 또까레브에게 말하였다. 《난 혼자 가겠어요...》

그러나 또까레브가 어떻게나 절망적이며 애원하는 눈으로 리다를 쳐다보았던지 그 녀자는 조금만 같이 걸어가는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골목의 좁은 인도를 걸다가 공원목책을 따라 뺨은 가로수길로 돌아나왔다. 가로수길은 갖 갖든 어둡, 젖은 나무잎냄새, 그윽한 달빛 그리고 긴결상에 앉은 쌍쌍이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차있었다.

그렇건만 또까레브는 리다의 팔을 낄 생각조차 내지 못하였다.

지하철도역은 저녁이면 늘 그렇듯이 혼잡하였다. 리다는 주저하다가 계속 걸어가는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넓은 교외거리를, 고요하고 컴컴한 병원 정원이며 건축설계가 커다란 치차모양이 나게 한 회관건물열을 걸어갔다.(그때는 또까레브도 우리들중 그 누구도 머지 않아 그 건물에 우리네 군사동원부가 자리잡으며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예비련대로, 군사학교로 흩어져가리라는것은 알지 못했었다...)

그 길이 더 계속되며 리다가 자기결을 곧 떠나가지 않는다는것을 알자 또까레브는 그 기나긴 길을 가면서 내내 전에 없이 수다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가장 힘든 사연은 그를 대신하여 그림들이 말해주었고 또 그것이 지나간 일로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말하기는 험하였다. 그는 자기의 창작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에 와서 처음으로 프레찌야코브미술박물관에 갔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귀가 메고 났이나간 사람처럼

되어 그곳을 나왔었다. 어데로 가야 할지를 몰라 자모스크워레치에의 골목길들을 오래동안 헤매였었다... 그는 자기의 창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자기가 원하는바를 알고있고 눈으로 뵈히 보고있으면서도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부어넣은듯 손이 서툴러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드미트리엠프스끼가 그의 집에 와서 자기의 한생을 회고하면서 자기에게는 진정한 화가가 되기 위하여 조그마한것, 즉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서글프게 토로하였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또 드미트리엠프스끼와 담화한 후로는 하나의 감정-시간은 가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였다. 어서 하자, 빨리!- 하는 감정이 그자신을 더욱더 괴롭힌다는것을 말하였다... 그렇건만 그의 큰 작품은 의연히 착수하지 못한채 있는것이다.

또까레브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길은 리다의 집대문앞에서 끝났다. 그는 그동안 내내 들고온 학습장을 리다에게 주고 돌아섰다.

아직 집에 있을 때 그는 학습장속에 자기의 그림을 끼여넣었었다. 리다가 별판을 가는 그 그림을...

또까레브는 이야기하였거나 미처 이야기하지 못하고만 모든것을 돌이켜 생각하며 걸어서 집으로 왔다. 리다가 작별인사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리다가 자기 손을 지그시 친근하게 잡아주는것을 감촉하였으며 또한 불현듯 -2년이란 나이의 차이때문이 아니었다.- 그 녀자결에서는 자기가 아직도 영 어린애임을 깨달았다. 그러자 행복감은 갑자기 명백한 뉘우침으로 -마치나 그가 제3자의 립장에서 리다도 자기도 뜯어본것처럼 -(리다는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것이다, 결코...) 하는 명백한 뉘우침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날밤 침베에서는 이 모든것을 나는 다르게 회상했었다. 이처럼 갈피가 잡히지도 않았고 이처럼 상세하지도 않았...

날이 밝아오자 갑관우가 몹시 추웠기때문에 나는 다시 배밀창으로 내려가야만 하였다. 배밀창의 탁한 공기에 몸이 훈훈해져 조는듯 마는듯 하면서 나는 문득 1941년 8월 우리가 또까레브를 배웅하던 일을 상기하였다...

나는 아직 완전히 몸에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군복을 입고있었는데 방금 어제 저녁에야 군사훈련소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은 또까레브는 그냥 사복을 입고있었다.

우리는 차랑결에 서있었다. 그와 드미트리엠프스끼와 나 셋이었다. 드미트리엠프스끼는 아버지, 어머니들이며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또까레브를 보았으며 가져야 할것을 다 가졌는가 물어보고는 도중에서 필요할것을 이것저것 사주려고 뛰어다녔다. 담배를 피울 때 그의 손은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발차까지 몇분이 남았다. 첫 차량결에서 한 녀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정거장의 둥근 유리천정을 울리던 그 통곡소리는 이내 그치고말았다. 확성기소리가 나기 시작한것이다. 열차광무니에서는 음악을 연주하였다.

우리는 포옹하였다. 포카레브가 차량안으로 막 들어가려 할 때 나는 역구내끝에서 리다를 발견하였다.

리다는 우리에게로 달려오면서 소리를 쳤다.

《싸샤 포카레브!》

그는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 난 늦을가봐 겁이 났어요.》 하고 리다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때 발차를 알리었다. 리다는 포카레브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는 그를 안고 입맞추었다.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포카레브가 승강구에 서있는 그 차량과 나란히 역홈을 걸어갔다. 차량은 우리를 앞섰다. 다른 차량들이 더욱더 빨리 걸을 스쳐가고 노란 기발을 손에 말아챈 승무원이 피땀 지나갔다. 열차는 덜컹거리면서 전철기를 넘어 멀어져갔다.

《떠나고말아준.》 드미프리엡스끼가 말하였다.

우리는 잠시 광장에 서있었다.

《이제는 싸샤를 기다리고있겠소.》 하고 드미프리엡스끼는 중얼거렸다.

나는 리다가 떠날 립박에야 달려온것이 섭섭하였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리다가 먼저 말을 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녀자 역시 말이 없었다.

《동무는 어델 가겠소?》 마침내 내가 리다에게 물었다.

《구역당에 들려야겠어요.》

그 녀자가 그렇게 말하는것을 유심히 들었더라면 나는 그가 중요한 결심을 하였다는것을 깨달았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포카레브를 생각하면서 리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헤어졌다. 리다는 전차정류소쪽으로 걸어가다가 무엇인가 말하려는듯 우리를 다시 돌아보더니그저 손만 흔들어보이고 군중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모레가마니를 쌓아올린 진렬장들을 옆에 보면서 싸도보이불환도로를 묵묵히 걸었다. 어두워졌다. 그전에는 이맘때면 벌써 가로등이 켜지곤 하였었다.

드미프리엡스끼가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나누지 못한 사랑은 불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약자들이 꾸며낸 말ियो. 그는 약자가 아니요.》

그런데 나는 드미프리엡스끼가 자기자신의 생각에 대답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술에 대한 그의 관계도 역시 그 어떤 서로 나누지 못한 사랑과 같은것이 아니던가. 두달쯤 지나 내가

이미 군관학교에 있을 때 동무들이 리다가 간호원단기강습반을 마치고 전선으로 떠나갔다고 나에게 써보냈다....

어제 저녁 매표구앞에 줄을 섰을 때 서로 알게된, 내결에 자리잡은 포병이 아침에 푸념을 늘어놓았다.

《중위동무, 당신은 영 잠을 자지 못하더군! 뒤치락거리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일어났다가... 타박상을 입어서 그렇소?》

나는 잠자코 있었다. 젊은 얼굴에 고통의 주름살이 잡힌 이 포병이나 나의 모든 동행자들은 이미 그렇듯많은것을 보아왔고 또 우리모두는 이제 앞으로도 그렇듯 많은것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니만큼 차마 대학시절이 생각나서 잠자지 못했다고는 말할수 없었다. ... 나는 다시금 선전화로 다가갔는데 간밤에 보지 못한것이 문득 눈에 띄었다. 그림자에 받쳐 쓴 글이 있었던것이다. 몇줄은 찢어져 없는데 아마 바빠 짐을 부릴 때 배낭이나 총탁에 걸려서 찢어졌을것이다. 아니면 그저 종이가 없어서 엽초를 마는데 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은 글줄만으로도 리다가 위훈을 세우고 전사하였다는것을 넉넉히 알수 있었다. 글의 남아있는 부분은 전사들이 그 녀자의 무덤앞에서 다지는 맹세로 시작되고있었다.

그 녀자의 위훈이 포카레브가 상상했던 그것과 비슷하였는지?

지휘관이 전사하고 중대가 포화밀에 놓였을 때 그 녀자가 선참으로 일어나 앞장서 나간것인지 혹은 그녀자가 비오듯 하는 사격을 무릅쓰고 부상병들을 끌어낸것인지 혹은 정찰을 나간것은 아닌지? 나는 모른다. ... 그러나 나는 다른것을 알고있다. ... 그 녀자는 포카레브의 눈, 그의 사랑의 눈을 빌어서 본 자기, 바로 그러한 녀자가 되려고 원했던것이다.

나는 상상하였다. 리다가 한 일에 대한 소식이 지휘부에 전해지고 그의 위훈이 죽은 후에도 표창할만한것으로 인정되었으리라. 그리하여 기자들이 그의 사진이 없는가고 전투가 멎은 짬에 그의 녀동무들에게 물었으리라고. 아마도 처녀들은 배낭을 뒤졌을것이고 사진대신 편지들가운데서 포카레브의 속사를 찾아내자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들여다보다가 그것을 기자에게 넘겨주었을것이다. 이렇게 하여 속사는 선전화로 되었을것이다.

파헤쳐진 벌판, 곤두선 땅, 비구름이 무겁게 비낀 하늘, 이 벌판을, 이 하늘밀을 군인외투를 입은 한 처녀가 걸어간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훑날리고 외투자락을 뒤로 불어 젖힌다. 그러나 처녀는 앞으로 간다. 완강하게 걸어간다. 자기의 총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면서...

1954년

## 미제놈!

주광남

사람들이여.

불의앞에 분노로 몸부림치게 될 때  
그 분노를 삭일 말이 모자랄 때  
가슴 후련해지도록 욱할 말  
비수보다 총알보다 더 무서운 말을  
내 적으려니

생각해보라

이 세상 최대악의 대명사로  
어떤 부름이 가장 적중할것인가를

과수원에 떨어진

썩은 사과 한알 주어먹은 아이를  
바줄로 꿰뚫어 묶어 매놓고

그 여린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긴

악마보다 더한짓을 들어본적 있는가

100 년도 훨씬 전에

선교사의 탈을 쓰고 이 땅에 기여들었던

그놈은 바로 미제놈이었다

어머니의 젖품에서 아기들을 떼내어

침침한 방공호에 처넣고

배고파 우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먹이고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죽이는

사람의 두뇌로는 상상도 못할 악행을

내 나라 신천땅에서 저지른 놈도

다름아닌 미제놈들이었다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탕치고

산사람의 머리우에 못을 박고

사지를 두 달구지에 갈라 묶어 찢어죽이고...

아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모든 악랄한짓을 한것도

미제놈, 미제놈들이다!

승냥이며 여우며 이리떼며

악의 대명사처럼 부르는 짐승들도

인간이 허구로 지어낸 그 악마도

미제놈들의 악착스런 만행앞에선

어찌 낯을 붉히며 기겁해하지 않으랴

이 세상 생명체들에게 있는

가장 나쁜것, 악하고 너절한것은

골라골라 한몸에 다 모아 가진

그것이 바로 미제놈이다

최대의 악한과 맞다들렸을 때

욕하라, 한마디로

《미제놈같은것》하고

욕하라

포악한짓을 두고도 《미제놈처럼》

교활한짓을 두고도 《미제놈처럼》

비열한짓을 두고도 《미제놈처럼》

그러면 악한은 모멸과 수치로 전몰하고

가슴속 격분은 더 끓어번지리니

오, 가장 아픈 욱을 퍼붓고싶을 때

분노가 하도 끓어 욱할 말이 모자랄 때

한마디로 웨치라

《미제놈같은것》이라고

《미제놈처럼》이라고